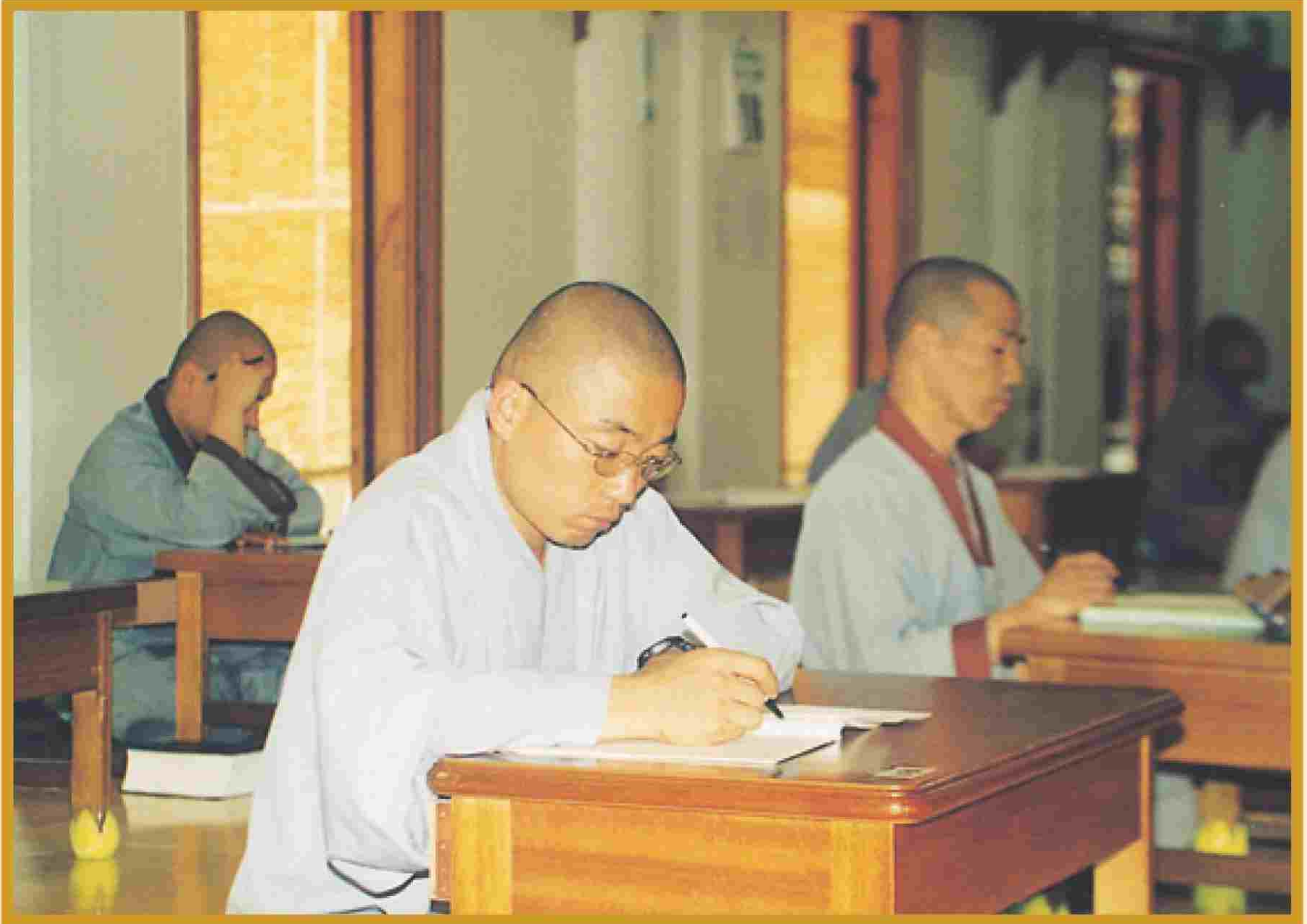


# 定慧社

불기 2547년 여름 | 제 27 호



교수논단 이 시대의 '화두' 를 열며  
정혜탐방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  
특별취재 전국승가학인연합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학인기고 수능엄경 가운데 이십오원통 수행방편에 대해서  
몽산범어(영역)2

송광사 전통강원



# 절집안의 경제학

## 經濟學

간화사  
시주물



송광사 일주문을 넘어서면 청량한 개울을 가로 지르는 우화각이 도량을 안내한다. 교량 위에 세운 목조 구조물로서 어느 고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고풍스런 건축물이다. 그런데 그 우화각은 소박한 돌다리 한 칸에 소중한 전통 승가의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 무지개 모양의 석조물 밑으로 튀어나온 용머리 여의주에 철사 줄로 꿰어진 돈 꾸러미가 그것이다. 그 사연인 즉, 우화각 불사 당시에 쓰고 남은 시주금인 엽전 세 냥을 간직해 놓은 것이라 한다.

절집안에는 호용죄(互用罪)라는 것이 있다. 시주물을 받을 때 불사나 공양의 용도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던 법도에서 나온 말이다. 이미 정해진 시주의 용도를 바꾸어서 불상 조성에 마련된 시주금을 스님들이 쓴다거나 경전 불사를 위한 금액을 불탑 등의 조성에 사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또한 각각의 전각이나 불사, 사찰에 시주된 물건도 섞어 사용하면 호용죄가 된다. 언뜻 보면 고지식한 고집 같기도 하지만 엄정한 불법의 차제, 철저한 인과법, 시주자에 대한 존중, 그리고 쓸데없는 불사를 막기 위한 지혜로운 철학이 담겨있는 것이다.

예전 스님들은 이렇듯 공무의 엄격함 뿐만이 아니라 공과 사의 구분도 엄했다. 심지어는 등잔불을 켤 때의 등잔과 기름에도 구분이 있어서 아래쪽에는 공적인 일을 할 때, 위쪽 등잔불은 개인적인 일을 볼 때 사용했다 한다. 간혹 실수로라도 기름을 흘리게 되면 공적인 용도인 아래쪽 등잔으로 기름이 떨어지게 한 철저한 마음씨에서였다. 부처님 당시에도 헤어질 가사를 기워 입다가 못쓰게 되면 걸레로 사용하고 그 후에는 진흙을 개어서 벽돌로 사용하라고 당부하셨다.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500년 간의 조선조의 역불책 속에서도 고유한 수도가풍과 사원경제를 유지해온 근간은 이렇듯 옛 스님들의 철두철미한 자기 관리였다. 엄격한 시주물에 대한 법도와 절약을 바탕으로 이룩된 상호 신뢰는 어떠한 외풍도 막아낼 수 있었던 것이다.

논어(論語)에서는 식량(食)과 군대(兵)와 국민의 믿음(民信)중에서 마지막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고 한다. 신뢰를 얻지 못하는 경제·군사논리는 오히려 공동체를 파괴하는 자기모순이 되기 때문이다. 요즘 세간에 떠들썩한 북한산 관통도로, 새만금 사업 등의 핵심 또한 소수의 경제논리를 앞세운 정부 스스로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소아(小我)적 이해타산을 버리지 못함이 그 원인이다.

근세의 고승이신 혜월선사는 논 다섯 마지기의 값으로 세 마지기의 논을 개간하고는 한없이 기뻐하셨다고 한다. 없어진 돈이 아닌 새로 생긴 받을 바라본 웃음이었다. 철저한 자기 절제를 바탕으로 한 내면의 엄격함이 피아(彼我)의 구별이 사라진 대승적 경제논리로 발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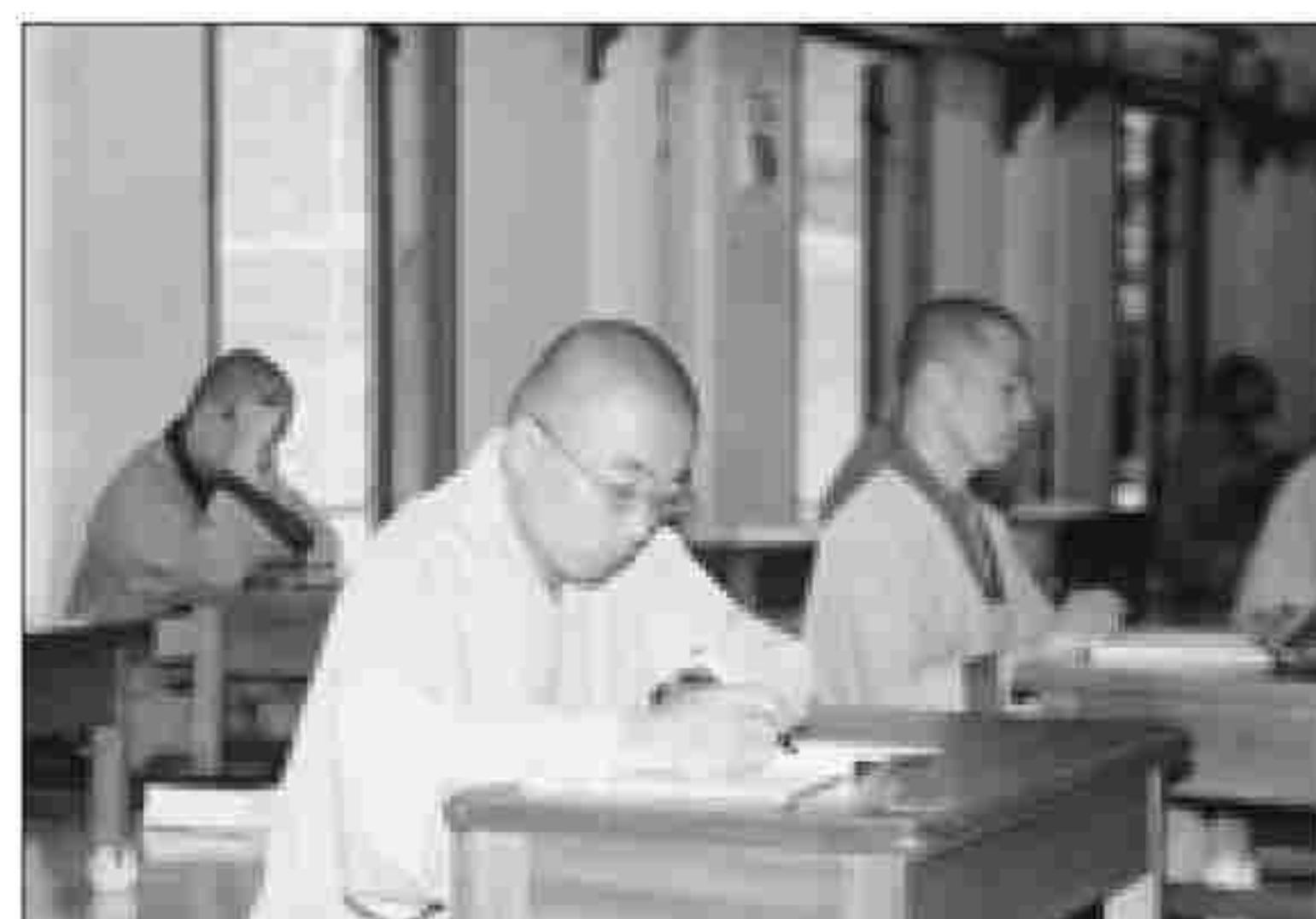
절집안도 예전과는 같지 않아서 근간에 풍요해진 사원 경제와 현대화된 행정에 따라 검소함과 엄격함이 사라지고 세간의 경제성이 불사의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옛 스님들의 엄격한 절약과 법도, 그리고 대중의 신뢰와 화합에 자칫 누를 끼치진 않는지 돌아볼 것이다. 언젠가 우화각 불사에 다시 사용될 엽전 꾸러미를 보면서 떠들썩한 세상의 지남(指南)이 될 만한 혜월스님의 웃음을 떠올려 본다.



# 定慧社

불기 2547년 여름호 | 통권 제27호

- 2 사진 속 이야기
- 4 방장스님 법어  
계미년 삼하안거반산림 법문 | 범일 보성
- 6 교수논단  
이 시대의 '화두' 를 열며 | 원경
- 11 동문기고  
소임을 살면서 | 성경
- 14 기획연재  
11세조사 자원국사 묘엄  
12세조사 혜각국사 묘구  
13세조사 각진국사 복구
- 21 지대방 이야기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보윤  
나도 이제는 | 보순  
짧은 강원 생활 | 보명  
날아라! 독수리 | 염경  
사집반이 된 지금 나의 모습 | 보원  
치문 지대방 | 혜각  
큰방을 떠나며 | 무량  
정근 | 범성
- 28 정혜탐방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
- 37 경전 한 구절  
사랑의 꾸깃음
- 38 목우만평  
여우와 지네
- 40 목우단상  
송광사 | 불각  
깨어난 꿈의 강당 | 능인  
치문 | 지월  
잡상 | 목우  
지하철에서 만난 예수님 | 흥진  
상생죽필문 5 | 도해  
너머, 송광사 너머 | 효산
- 50 특별취재  
전국승가학인연합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 54 바람소리 한 자락  
출가 | 연옥  
메기의 추억 | 인법
- 57 시가 있는 풍경  
일일시호일 | 혜명  
한경 | 적문  
수행의 의미 | 선광
- 60 바람을 메고  
비행기 타지 않고 인도 가는 법
- 65 학인기고  
수능엄경 가운데 이십오원통 수행방편에 대해서 | 대정  
몽산법어(영역)2 | 해안
- 74 화보로 보는 강원 소식



대나무 발 사이로 비치는  
뜨거운 햇살 아래  
더위는 졸음에 날개를 달아주고  
안경 너머 보이는 금구성언金口聖言.  
한 글자 한 문장 새기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언뜻언뜻  
부처님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글·사진 | 편집실

발행처 | 송광사 강원  
발행인 | 현진(강주)  
편집인 | 혜천(입승)  
편집장 | 해진  
편집 | 인호 흥진 연옥  
사진 | 인호 연옥

발행일 | 불기 2547년(서기 2003년) 8월 12일  
주소 |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전화 | 061) 755-5302  
인쇄 | 부다기획 062) 225-8825





本是山中人  
愛說山中說  
五月賣松風  
人間恐無價

글 | 작자미상·사진 | 편집실





본시 산山사람이라  
산중의 이야기 즐겨 하나니  
오월의 솔바람 팔고 싶으나  
그대들 값 모를까 그게 두렵네.



방장스님 법어

# 계미년癸未年 삼하안거반산림三夏安居半山林 법문法門

범일 보성 | 조계총림 방장



오늘이 삼하결제중제三夏結制中齊날이니 고인古人이 공부하는 길을 이야기한 계송偈頌 한 수를 소개한다.  
대중大衆은 들어보라.

경경답지공인지輕輕踏地恐人知하라  
어소분명갱막의語笑分明更莫疑커든  
지자지금맹제취智者至今猛提取하야  
막대천명실각계莫待天明失却鷄하라

살푼살푼 땅을 밟아서 남이 알까 두려워하라.  
말하고 웃음 웃는데 분명해서 다시 의심이 없거든  
지혜있는 사람은 이때를 놓치지 않나니  
내일을 기다리느라 닭 울 때를 놓치지 말라.  
(닭 울 때는 시절인연)



중국中國의 어떤 선지식善知識은 깊은 산중山中 토굴에 숨어서 정진精進하는데 누가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기에 열어보니 젊은 수행자修行者가 삼배三拜를 올리고 나서 “제가 공부가 너무 안 되어서 산신山神에게 물었더니 스님을 찾아뵙고 지도指導를 받으라고 하기에 찾아왔습니다.” 하니 그 선지식善知識 말씀이 “내 공부가 얼마나 부실不實하길래 산신山神이 다 알고 있느냐.”고 탄식嘆息하고 이 산을 떠나 어디론가 깊이 숨어 버렸다고 한다.

임제臨濟스님은 후학後學을 위해서 이런 계송偈頌을 읊었으니,

약인수도도불행若人修道道不行이라  
만반사경경두생滿盤邪境競頭生이로다  
지검출래무일물智劍出來無一物하면  
명두미현암두명明頭未現暗頭明이니라

만약 사람이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면  
만가지 샷된 경계가 다투어 일어난다.  
지혜칼로 내려쳐서 한물건도 없어진 뒤에러야  
밝은 놈이 나타나기 전에 어두운 놈이 밝아지리라.

대중大衆에게 권勸하노니 공부工夫한다는 상相을 가지고 공부工夫하지 말라.  
공부工夫는 점점 멀어지고 마魔가 나타나서 공부工夫를 방해妨害할 것이다.

(주장자를 한번 내려치시고)

수류원입해水流元入海요  
월락불이천月落不離天이로다

물은 원래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고,  
달은 떨어져도 하늘을 여의지 않느니라.

할땀하고 하좌下座하다.



# 이 시대의 '화두話頭' 를 열며

원경元鏡 | 松廣寺講院 學監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제1화두 : 깨달음과 교화의 관계  
제2화두 : 욕망해소의 불교적 이해  
제3화두 : 성불의 현대적 의미  
제4화두 : 사회현상에 대한 불교적 해석  
제5화두 : 수행의 이론과 실천  
에필로그 : 행복과 정토사회 구현

## 프롤로그 : 혼돈에서 질서로

혼돈(chaos)이란 원래 초기 그리이스의 우주론에서 만물이 생겨나기 이전 우주의 시원적 공허 空虛 또는 지하 세계인 타르타로스의 심연深淵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 두 개념 모두 헤시오도스의 <신통기 Theogony>에 나온다. 헤시오도스의 신통神統 계보학에 따르면 맨 처음 카오스가 있었고, 그다음 가이아와 에로스(땅과 욕망)가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카오스가 가이아를 낳은 것은 아니다. 카오스의 후예는 에레부스(어둠)와 닉스였다. 닉스는 밝은 공기인 아이테르와 낮을 낳았고, 나중에 우주의 어둡고 무서운 부분(꿈·죽음·전쟁·기근 등)들을 낳았다. 이러한 관념은 카오스를 지하 세계의 어둠으로 본 다른 고대적 관념과 결합되었다. 후대의 우주론에서 카오스는 일반적으로 만물의 본래 상태를 가리키는 개념이 되었다. 이 단어의 현대적 의미는 오비디우스에서 비롯되었는데, 그는 카오스를 본래의 무질서하고 정형이 없는 덩어리이며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그 덩어리로 부터 질서정연한 우주를 만들었다고 생각했다.

현대에 이르러 카오스의 이론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계의 동역학적 상태의 변화가 매우 불규칙적이어서 미래의 상태에 대한 실질적인 예측이 불가능한 운동에 관한 이론을 말한다.

카오스는 주사위를 계속 던졌을 때 얻는 숫자들의 나열과 같은 무작위성(randomness)과는 구별된다. 카오스는 외관상 무작위하게 보이지만 그것의 동역학을 지배하는 법칙이 존재하고, 따라서 주어진 어떤 초기 상태에 대해서 미래의 상태가 그 법칙에 의해 항상 유일하게 결정되는 결정론적인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브리태니커 전자사전 참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3차원의 현상 세계는 항상 끊임없는 대립과 갈등이 난무한다. 그래서 중생의 눈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울 것이다. 그러나 현재 벌어지고 있는 모든 혼란들은 중생의 미혹迷惑으로 부터 나온 것임을 알아야 한다. 중생의 삶은 무명無明을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상대적 갈등구조에서 벗어날 수 없다. 또한 이 무명의 속성은 '나'라고 하는 집착(我相)에 바탕을 둔 욕망慾望을 그 근원적 에너지로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세상의 많은 행복을 불태워버린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삼계三界는 불난 집과 같다(三界火宅)”고 비유한 것이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유정有情들은 행복하기를 바란다. 그러나 행복은 누구에게나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중생은 무지無知로 인하여 본래의 생명 법칙을 거역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다. 어리석은 이는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동쪽으로 간다고 하지만 실제로 서쪽으로 가고 있음을 알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자신의 어리석음은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우긴다. 그래서 세상에는 늘 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어느 날 수행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정진精進을 하게 되었다. 그들은 정진에 들어가기 전에 서로 '묵언默言'을 하기로 한 가지 약속을 하였다. 그들은 각자의 자리(좌복)에 앉아서 수행에 열중하였다. 그런데 날이 저물고 사방이

어둠으로 뒤덮을 무렵, 한 고참 수행자가 다른 신참 수행자에게 전등에 불을 켜 줄 것을 지시하였다. 그 신참 수행자는 왜 묵언 약속을 깨트렸느냐고 따졌다. 옆에 있던 다른 수행자가 모두들 조용히 하라고 충고하였다. 그때 이제 까지 아무런 말 없이 앉아 있던 고참 수행자는 '나 혼자만이 묵언 약속을 지켰다'며 크게 소리쳐 자랑하였다. 황금의 침묵은 사소한 시비是非로 인하여 날아가 버렸고 그 자리를 혼란이 주인처럼 차지하게 되었다.

중생의 마음에는 늘 어리석음이 주인노릇을 한다. 본래의 청정한 마음은 무지의 먹구름에 가리워져 그늘 깊숙이 물러나 자리하고 있다. 무지는 어두움을 근원으로 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늘 혼란과 고통이 그림자처럼 따라 다닌다. 어두움 속에서는 현상을 올바르게 볼 수 없으며 굴절된 시각으로 인하여 늘 착각을 하게 만든다. 망상妄想은 또 다른 망상을 낳고 그 결과 중생계는 늘 망상이 지배하는 왕국이 되어 버린다.

우리는 흔히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이라는 말을 하곤 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우리의 삶이 무명번뇌를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것이다. 미래뿐만 아니라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나간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모르는 마찬가지다. 중생의 삶은 모든 것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로 그저 순간순간 욕망의 꼬나풀에 얽매여 불나방처럼 혼돈의 중심으로 흘러가

고 있는 것이다. 파리가 꿀을 탐닉하다가 점점 욕심이 과하여 꿀 항아리에 빠져 죽듯이 어리석은 인간도 욕망이라는 꿀 항아리에 먹힘을 당하고 만다. 그들은 결코 욕망으로서 욕망을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소위 주색잡기酒色雜技라는 것도 파리에게 있어서 꿀처럼 인간을 파멸로 이끈다. 한 번 빠지면 인간의 이성理性의 힘으로서는 거기에서 헤어날 수 없다. 욕망은 이처럼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스스로 번뇌를 다스리는 힘(精進力)을 기르지 않으면 결코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이겨낼 수 없다. 욕망이 가지고 있는 '빠진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세상에는 혼란과 고통이 더 많이 생겨나게 된다. 만일 인간이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여 욕망을 통제하도록 그렇게 성질을 부여받았다면 세상에는 엄청난 고통과 혼란이 애초에 발생조차 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인간의 무지無知로부터 생겨난 것이다. 따라서 무명 번뇌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의지하는 삶의 근저根底라고 하겠다. 번뇌가 있는 한 누구라도 결코 진정한 행복은 기대할 수 없다. 사소한 욕망과 욕망이 충돌하면서 점점 나아가 인간과 인간, 사회와 사회, 국가간의 충돌이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혼란은 욕망을 먹고 자란다고 하겠다. 혼란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인간의 이기적 욕망이 자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이 생각대로 잘 되면 그는 인간이 갖고자 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기뻐한다. 욕망을 이루고자 탐욕이 생긴 사람이 만일 욕망을 이루지 못하게 되면 그는 화살에 맞은 사람처럼 괴로워하고 번민한다.

온갖 번뇌가 그를 이기고 위험과 재난이 그를 짓밟는다. 그러므로 괴로움이 그를 따른다. 그래서 사람은 항상 바른 생각을 지키고 모든 욕망을 회피해야 한다. 배에 스며든 물을 퍼내듯이. 그와 같은 욕망을 버리고 강을 건너 피안에 도달한 사람이 되라.

法頂 畝金, 『숫타니파타』 중에서

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는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실 동물들의 세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육강식弱肉強食'이라는 단순한 욕망의 원리에 의해서만 지배되는 것만은 아니다. 얼핏 보기에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모습들도 그 안에 들어가 자세하게 관찰해 나가다 보면 거기에는 놀랄만한 질서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먹이사슬 구조에 있어서 보다 상위에 있는 동물들은 살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위 구조의 동물들을 잡아먹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본능에 의한 생존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다. 그러한 먹이사슬의 구조 속에서 자연계가 스스로 유지되는 것이다. 만일 그러한 구조에 이상이 생기면 자연계는 심각한 영향을 받기도 한다. 즉 어떤 경우에는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에 의해 혼란이 야기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피라밋 구조로 형성된 먹이사슬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 인간의 영향력에 의해 인위적으로 왜곡되면 자연계 전체는 심대한 타격을 받기에 이른다.

암컷 사마귀는 짝짓기를 마친 다음 수컷을 잡아먹는다고 한다. 수컷 사마귀의 2세를 위한 기꺼운 희생이다. 두꺼비는 산란하기 위해 능구렁이 앞에서 '날 잡아먹어라'고 하듯이 자주 약을 올린다고 한다. 능구렁이는 두꺼비를 잡아먹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어느 순간에 두꺼비를 덥석 물어버린다고 한다. 알이 부화하여 나올 무렵이 되면 능구렁이의 마디마디가 다 터지면서 두꺼비 새끼가 나온다고 한다. 동물의 왕인 사자를 이기는 동물은 없지만 그 사자도 몸 안에 있는 작은 벌레인 기생충에 의해 무너지기도 한다. 때로는 들소를 사냥하다가 들소의 뒷발에 치인 상처로 인하여 세균 감염으로 죽어가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모든 현상은 자연의 원리에 따라 진행되어 가고 있다. 만일 동물계에 자연의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동물계를 포괄한 우주의 질서는 파괴될 것이다.

사실 자연의 질서를 가장 위협하는 것은 다름 아닌 인간의 욕망일 것이다. 최근 들어서 발생되고 있는 온갖 문제 - 오존층 파괴로 인한 문제, 환경오염 등 각종 오염 문제들,

복제에 따른 유전공학적인 문제 - 들은 모두 인간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들이다. 자연 생태계의 파괴뿐만 아니라 인간성의 상실이라는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파괴 문제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엄청난 혼란을 가져왔다. 파괴는 창조의 위대한 원동력이라고는 하지만 부정적인 차원의 대량 파괴가 자행되는 오늘날의 상황을 유추해 볼 때 인류의 파멸이라는 극한 상황으로 발전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는 것이다. 자연계의 변화 사이클은 생성-성장-변이-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해 생명을 거듭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의 구조가 어느 한 순간 인간의 욕망에 의해 심각하게 굴절되어 '인류 공멸'이라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이 두려운 것이다.

한 인간의 개인적인 혼란은 무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석존釋尊은 개별적 존재의 본질적인 혼란 양상에 대한 분석과 해결법을 4성제四聖諦라는 진리의 공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공식은 일체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간다는 고의 법칙(苦諦)이



다. 이것은 자칫 무지한 사람들이 불교를 비관적이며 염세주의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단서가 되기도 하지만 참된 의미는 그렇지 않다. 중생은 본래 욕망을 근원적 에너지로 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온갖 고통을 초감(招感)하게 된다. 흔히 백팔 번뇌니 팔만사천 번뇌니 하는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어 나타난 현상일 뿐이다. 그러나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운명적인 것도 아니며 고통 그 자체를 고정적인 실체로 바라본 것이 아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예리한 칼로 손을 베었는데 아프다는 자각을 느낄 수 없다면 그는 계속되는 출혈로 인하여 결국 죽게 될지도 모른다. 아픔을 느끼는 자각 증세가 있게 됨으로서 상처를 치료하여 살아남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고통의 진리도 마찬가지로 중생이 고통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영원히 그 고통으로 인하여 스스로 죽어가게 될 것이다. 우리가 고통을 고통으로서 바르게 인식할 때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알고 짓는 죄와 모르고 짓는 죄 가운데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무겁다고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모르고 짓는 죄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죄의식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그 죄로부터 벗어날 기약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무지(無知)야말로 인간 존재에 있어서 가장 큰 죄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고통에 대해 그 원인을 밝히는 진리(集諦)이다. 어떤 현상에

는 반드시 그에 따른 원인이 있기 마련이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다. 고통에 대한 원인은 여러 가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크게 보면 인간의 무지 속에 잠재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중생들의 삶은 애욕을 그 근본적 에너지로 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이다. 애욕이라는 욕망을 너무 지나치게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해결하려는데 쓰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회는 혼란이 더 가중된다. 욕망이라고 하는 에너지는 본래 중성적(中性的)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만일 이 에너지를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내어 모든 사람이 행복한 방향으로 쓴다면 우리가 사는 세계는 점점 아름다운 곳이 될 것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공식은 우리가 사는 현상 세계를 있는 그대로 관찰하여 분석한 것이다. 누군가 병이 생겼을 때 의사가 그 병의 상태와 원인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과정이라고 하겠다. 즉 이것은 고통과 혼란의 원인에 대한 관찰과 분석을 통해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으로서의 처방을 내리기 위한 전 단계인 것이다.

다음은 고통과 혼란을 멸하기 위한 방법과 그것이 완전히 소멸된 경지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먼저 혼란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를 말하는 진리(滅諦)는 절대적인 행복을 누리는데 단계라고 하겠다. 그 행복은 고통과 혼란을 극복한 상태에서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완전한 행복이다. 해

탈(解脫)이니 열반(涅槃)이니 하는 것도 다 같은 말이다.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행복할 수 없는 까닭은 불행과 그 원인을 올바르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여 행복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다. 동쪽으로 가려는 사람이 어리석어서 동남서북의 방향도 알지 못하고 이리저리 헤매이다가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는 것과 같은 의미이리라. 행복하고 질서 있는 삶을 원한다면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행동이 바른지를 살펴 볼 일이다.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는 행복은 영원히 무지개를 잡으려는 행동처럼 이지랑이와 같은 것임을 알지 못한다.

목적을 올바르게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에 도달하는 과정도 대단히 중요하다. 불교에서 제시하는 행복의 법칙(道諦)은 중도적 삶이다. 구체적으로는 여덟 가지의 바른 실천(八正道)이다. 병자가 병으로 부터 벗어나려면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병의 원인이 되었던 잘못된 행동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바른 행동을 통하여 과거에 익힌 나쁜 습관들이 점점 제자리를 찾으면서 행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누구나 생각을 바르게 하고 바르게 말하며 바르게 행동하면 반드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일체의 혼란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삶을 누리려고 한다면 그에 따른 원인과 결과를 잘 파악하여 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고 올바르게



게 실천함으로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 열반의 저 언덕으로 올라갈 수 있다. 질서 있는 자유, 고통에서 벗어난 해탈의 삶, 그것은 누구나 향유할 수 있다. 행복은 한정된 자원이 아니다. 희소가치가 있는 것도 아니다. 누구나 찾으면 찾는 만큼

누릴 수 있다. 그래도 세상의 행복은 줄어들지 않는다. 무한한 행복의 바다를 수영할 수 있는 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혼돈과 질서를 병립할 수는 없다. 어느 하나는 버려야 한다. 질서와 친구가 되려면 혼돈을 멀리해야 한다. 고통과 친구

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가까이 하며 그것을 숨쉬듯 살아간다. 우리 주위에는 행복의 그림자를 찾는 사람도 진정으로 행복의 실체를 붙잡은 대장부는 많지 않다.

이 세상에 재산 많은 사람들 어리석어 베풀 줄 모르고 그저 거두어 쌓아둘 줄만 아니 끝없는 탐욕 날로 늘어만 가네.

욕심 많은 임금 폭력 휘둘러 땅덩이 정복하고 바다까지 차지하니 바다 이쪽에서 만족할 줄 모르고 바다 저쪽까지 차지하려 허덕인다.

세상의 임금과 그 많은 사람들 탐욕 떠나기도 전에 죽음 찾아오네. 원래 탐욕이란 만족 없거늘 목숨 마친 뒤엔 거지 신세로 가는구나.

가족들이 머리 풀고 슬피 울면서 우리 식구 살려 달라 울부짖건만 삼베에 뽕뽕 묶인 채 밖으로 들러나와 쌓아놓은 장작 위에 불태워진다.

많은 재물 버리고 옷 한 벌로 태워지니 살아서 울고 웃던 일가친척들 장대에 찢리면서 불타는 그 사람에게 누구 하나 힘이 되어 돕지 못하네.

쌓은 재산 상속자가 차지하고 자신은 업 따라 혼자 가니 자식이나 아내, 재물이나 권력도 죽은 사람에게겐 무엇 하나 소용없어라.

재물로도 죽음 막지 못하고 황금도 늙어감 막지 못하니 목숨은 잠깐이요, 목숨은 덧없는 것이라고 진리에 눈뜬 이는 항상 말하였다네.

어진이나 어리석은 이, 모두 죽음 만나지만 어리석은 이 두려움에 떨며 놀라나 어진 이는 차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네.

지혜는 이승에서 열반에 이르게 하나니 재물인들 지혜에 비교할 수 있을 손가 열반의 즐거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 재물에 눈 어두워 악업만 쌓고 있네.

모든 탐욕은 타오르는 불길이요 황금은 무서운 칼날임을 알아야 하리라 나고 죽음에 따르는 고통과 당해야 할 지옥의 괴로움 보아야 하리.

도처에 깔려 있는 재앙 보고 스스로 내 자신 경책하여 탐욕, 분노, 사견, 윤회의 굴레 버리고 번뇌 끊어 승리의 길에 들어섰노라.

나는 거룩한 부처님의 가르침 받아 성실과 자비 성취하였나니 내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벗고 생사의 굴레 넘어 자유의 기쁨 얻었네.

『장로게(Thera-Gatha)』 중에서



## 소임을 살면서

성경性鏡 - 14회 졸업(서울 법련사 원주)

수 없이 오가는 많은 차량들, 회색 빛 높은 건물과 빌딩 주위로, 맞은편에는 경복궁이 있고, 길옆으로는 문화의 거리답게 각종 화랑·전시관·박물관 등이 단정하게 늘어서 있습니다.

이 곳은 수도 서울의 중심 한 가운데에 위치한 송광사 서울 분원 법련사입니다. 변화한 도심 한 복판에 자리한 포교당입니다. 송광사에서 4년 강원의 이력을 마친 후, 소임을 보기 위해 정든 조계산을 떠나 이곳 바쁘고 복잡한 시내 포교당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산사에서만 꽤 오래 생활한 탓인지 처음 한두 달은 이곳 생활이 잘 적응되질 않아 까닭 없이 갈팡질팡하고 공허하기만 했는데, 두 철이 지난 지금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 이젠 제법 수도승으로서의 위엄과 면모를 한층 더 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아마 수처작주의 경지를 체득했다기 보다는 적자생존의 원리에 쉽게 적응한 탓일 것입니다. 제가 이곳 생활이 제법 익숙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밀려오는 송광사에 대한 그리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인가 봅니다. 저녁예불을 드리기 전에 보조국사 감로탑에 참배하고 먼 산을 응시하던 일, 법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던 힘찬 법고소리, 감로암을 오르는 길에 푸른 대나무 숲의 정취, 울원의 아늑함, 탑전의 사리탑, 유난히 감나무가 많은 개울 건너의 화엄전, 연중무휴를 실감나게 하는 발우공양의 대명사 정혜사 큰방 등 그 모든 것이 생생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그리움 뒤에는 내가 왜 그때 강원생활을 조금 더 충실히 보내지 못했을까 하는 회한과 부끄러움이 밀려 와 스스로 자책해 보기도 합니다. 지나고 보면 늘 아쉬움이 남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강원에서 경전을 배우고 대중생활한 힘이 내 어딘가 좋은 자양분이 되어 지금 현재의 승려생활에 크나큰 보탬이 되고 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송광사를 떠나 이곳 도심사찰에서 소임을 본 지는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지만, 그동안 겪은 여러 경험과 일화 가운데 몇 가지를 후배스님들께 들려주고픈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염불의 필요성에 관한 일화입니다.



제가 강원에서 답전 약사전 부전소임 등을 맡은 화려한 경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염불숨씨는 형편없는 소음에 가까운 악성염불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 멋대로 혼자 하는 염불인 것입니다.

도반들이 염불에 관한 충고와 조언을 해줄 때면 으레 “괜찮아! 실제 부딪치면 뭐든 잘할 수 있어.” 하며 회피하곤 했는데, 이젠 정말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곳에 올라오기 무섭게 부전소임을 맡게 되었는데 막상 난감했습니다. 예불 때에는 신도님들이 얼마 안 되어 그나마 걱정이 덜 되었지만, 천도재를 지내거나 법회 때에는 신도님들이 많이 동참하기 때문에 더욱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대중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점이나 싫은 점은 매일같이 부딪치는 상황 속에서 참기 힘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승보살의 인욕으로 극복하고, 그래도 힘들 때에는 내 허물을 남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도반의 허물을 잘 감싸주고 탁마하여,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왠지 내가 집전을 맡고 부터는 신도님들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지고, 동참하던 신도님들도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해 보았지만, 염불 연습 밖에는 달리 뽐족한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시간 나는 대로 테이프를 들으며 열심히 노력한 결과 지금은 전보다 염불이 많이 좋아져 신도 분들이 적게 동참하든 많이 동참하든 그다지 신경 쓰지 않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스님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부전소임 볼 기회가 있게 되므로, 강원에 있는 동안 틈틈이 염불을 기본 정도는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시장보러 다니던 때의 부끄러운 일화입니다.

부전소임을 보면서 조금 후에 원주소임을 맡게 되었

습니다. 아시다시피 원주소임은 절 살림을 담당하는 소임입니다. 재에 쓸 각종 과일을 준비하고, 공양이나 반찬거리를 장만하는 모든 일이 원주스님의 몫이기 때문에, 소임을 보다보면 시장보러 가는 일은 필수인 것입니다. 이 곳에서는 청량리 근처의 경동시장으로 다니는데 차로 약 30여 분 정도 소요되는 거리입니다. 시장에 도착해서 이 가게 저 가게를 둘러가며 물건을 알아보고 구입하는 데에, 처음 한 동안은 왜 그리 낯설고 남들의 시선이 의식되는지 무척 힘들었습니다. 아마 내 자신이 스님이라는 신분을 지나치게 의식한 때문일 것입니다.

분명 승속의 구분은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치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진리의 고귀한 길을 가는 수행자이고, 저자거리의 보통 사람들은 세속적 욕망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때 묻고 혼탁한 중생으로 치부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에 무심코 물건을 사다가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야 했습니다. 시장을 보면서도 스님의 신분이기 때문에 말과 행동 하나하나 조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스님이라는 이유만으로 내 자신이 다른 사람들 보다 조금은 더 특별하다는 아상이 내 어딘가에 자리하고 있었음을 조금 늦게서야 알았던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잘못된 편견을 끊기 위해 새벽 종성에 나오는 진미래제도중생 자타일시성불도 즉 미래세가 다하도록 중생을 건져 나와 남이 함께 성불하도록 해야



한다는 경구를 습관처럼 되뇌여보곤 합니다.

셋째는 이 시대의 불교적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산 속의 사찰은 대중들이 함께 모여 정진하는 것만으로 승가 본분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겠지만 이 곳 도심 속 포교당들은 그 사정이 다릅니다. 자리自利인 수행적인 측면보다 이타利他의 중생교화의 특성이 강한 때문입니다. 사실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펴고 널리 교화하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의 특성에 따라 방안을 잘 활용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기복신앙 보다는 교리에 대한 이해와 선禪 수행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지만 다른 면으로 볼 때는 순수한 종교적인 믿음이 지나치게 퇴보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포교일선에서 활동하는 스님들은 잘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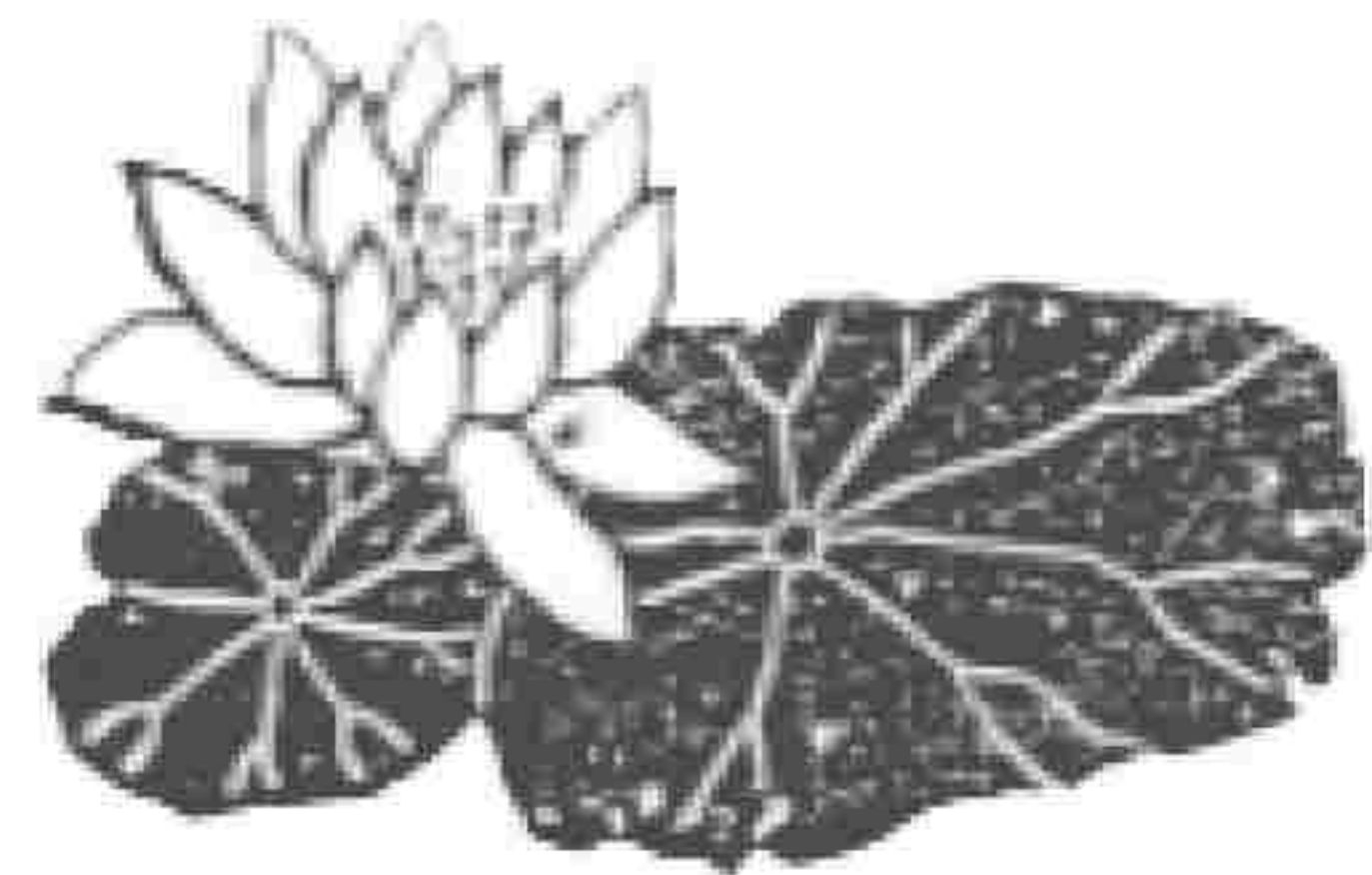
산 속에서 묵묵히 정진하는 것만이 이 시대의 불교적 사명을 다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 복잡한 도심 한 가운데 뛰어들어 시대에 맞는 방편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에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을 널리 전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후배스님들께 동문의 한 사람으로서 꼭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 불법을 만난 인연을 소중히 여기고 도반들의 허물을 보더라도 넉넉한 마음으로 잘 포용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인간관계는 평생에 걸쳐 어려운 일입니다.

대중생활에 있어 다른 사람의 장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점이나 싫은 점은 매일같이 부딪치는 상황 속에서 참기 힘든 것 중의 하나입니다. 그럴 때마다 대승보살의 인욕으로 극복하고, 그래도 힘들 때에는 내 허물을 남이 이해해 주길 바라는 것과 같이 도반의 허물을 잘 감싸주고 탁마하여, 서로에게 좋은 도반이 되어 주길 부탁드립니다.

방장스님 이하 여러 어른 스님들 그리고 선원과 강원

대중스님들께 다시금 고마움을 전하며, 지금 하안거 결제 철에 선방에서 열심히 정진중인 도반들께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기획연재

11世 祖師

자원국사慈圓國師 묘엄妙嚴





12世 祖師  
혜각국사慧覺國師 묘구妙軀





13世 祖師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 11세조사

### 자원국사慈圓國師 묘엄妙嚴

국사의 비문 또한 이미 없어진지 오래여서 국사의 행장行狀과 사력史歷을 상고詳考할 길이 없음이 유감이다.

국사의 정액幀額에, '제십일세第十一世 묘엄존자妙嚴尊者 증시자원국사贈諡慈圓國師' 라고 기록되어 있음을 보아 국사의 생존시에 묘엄존자妙嚴尊者라는 법호로서 왕사王師로 추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시멸하신 뒤 자원국사慈圓國師라는 시호를 나라에서 내리신 것도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수선사의 제10세 혜감국사에게 묘명존자妙明尊者라한 것을 감안하여 혹 국사께서 혜감국사와 사형사제 지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리가 가능하지만 확실치는 않다.

국사께서 조계산 수선사의 제11세 주지로 재임하신 시기는 충숙왕조忠肅王朝의 초기일 듯하다.

## 12세조사

### 혜각국사慧覺國師 묘구妙軀

국사 역시 비문이 오래 전에 인멸되어 일생의 사력史歷을 더듬을 길이 없다.

여지승각與地勝覺 가운데 선산군善山郡 불우조佛宇條에 '주룩사朱勒寺(지금의 수다사水多寺)는 랑산冷山の 서쪽에 있으니 고려 안진安震이 지은 승혜각僧慧覺 비명碑銘이 있다' 하는 기록이 있는데 그 비신碑身이 없어진 지 오래여서 국사의 행장을 알 길이 없다.

## 13세조사

### 각진국사覺眞國師 복구復丘

스님의 휘는 복구復丘, 자는 무언無言 호는 무언수無言 속성은 李氏이며 존비尊庇니 판밀직判密直 우상시右常侍 문한학사文翰學士의 벼슬을 지냈다.

고려 元宗 11년(1270) 9월 15일에 경남 고성군에서 태어났다. 어머니가 항상 대승불경大乘佛經을 독송하더니 일찍이 꿈에 한 거사居士가 관복冠服을 갖추고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미 왔노라' 하더니 그로 인하여 잉태하였다.

스님은 자질이 명량하여 진범塵凡에 섞이지 않더니 조금 즐거워지매 불승을 공경하여 동무들과 놀이를 하면서도 돌을 모아 탑을 쌓기도 하고 공양구를 차려 놓고 불공드리는 놀이를 즐겨하는 것이었다.

충렬왕忠烈王 3년, 스님의 나이 여덟 살 적에 백암산白巖山 부토사浮土寺(現 백양사白羊寺) 중창주重創主 중연선사中延禪師의 문도인 일린화상一麟和尚에게 나아가 포양哺養의 은을 받았다.

충렬왕忠烈王 5년 열 살이 되자 조계산 수선사의 원오국사圓悟國師의 슬하로 옮겨 머리를 깎고 구족계具足戒를 받았는데 백암산에서 조계산으로 왜 옮기게 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스님의 아버지가 원오국사에게 아들을 맡기면서 올린 시가 있으니,

물무미악종귀용物無美惡終歸用  
고이수렴착자다苦李誰 着子多  
장식구조천자소長息久朝天子所  
차아신부법왕가次兒新付法王家  
이충고시위신분移忠固是爲臣分  
할애기여출세하割愛其如出世何  
환소로옹유체념還笑老翁猶滯念  
유시혼몽묘천애有時魂夢杳天涯

이 시가 있음으로 보아 조계산으로 옮긴 것은 스님



의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님의 부모님 뜻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충렬왕忠烈王 12년에 원오국사가 입적하시기 전에 어린 복구復丘를 대선사大禪師 도영道英에게 교양의 수고를 유촉하셨다. 도영은 원오국사의 사제師弟로서 뒷날 수선사의 제8세 법주이신 자각국사이시다.

복구스님은 도영대선사에게 청익請益하여 조계산에 온지 전후 10년 만에 학업을 이루니 총림에서 스님을 추대하여 중수衆首가 되게 하였다.

충렬왕忠烈王 16년 가을, 스님의 나이 21세에 선선禪選에 나아가 상상과上上科를 우수히 마치고 이로부터 제방에 노닐며 참선에 전념하였다. 이때 스승이신 자각국사(도영)는 스님의 그릇이 이미 이뤄진 줄 아시고 문하의 학중學衆을 맡기려 하시니 스님은 고사固辭하여 여쭙기를

“자기의 법기法器가 찬 연후에야 비로소 남의 스승이 되는 것이 옳을 것 이온데 저로서는 아직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백암산으로 옮겨가서 동지 몇 사람과 함께 결사結社하고 십여성상十餘星霜을 주야로 참구하여 마침내 법그릇을 크게 이루었다.

이 무렵 강진康津 땅의 월남사月南寺에서 주맹主盟으로 청하니 스님은 곧 부임하여 20여년을 주지하면서 사방에서 몰려드는 수많은 납자를 제접提接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

이 무렵 스님은 강녕군江寧郡 홍수洪綬로 더불어 한 가지로 원을 발하여 각각 재물을 회사하여 문인 심백心白, 지부智孚 등으로 하여금 배편으로 송나라에 건너가서 대장경을 사오도록 하여 충혜왕忠惠王 2년(스님이 79세 때) 봄에 백암산 정토사淨土寺에서 제방의 고승석덕高僧碩德을 초대하고 전장법회轉藏法會를 건수虔修하여 이를 회향하였다.

충목왕忠穆王 4년 봄에 단시檀施의 재물을 기울여 문인 지목之牧 등에게 명하여 못 인연을 널리 교화함과 동시에 제방의 대덕 스님들을 초대하여 제2회의 전

장법회를 거행하였다.

이렇듯 큰스님께서서는 80세가 넘는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건강하신 법체로 오로지 교화教化와 섭중攝衆에 힘쓰심은 조계산의 과거 법주는 물론이고 온 나라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없는 대원력大願力이요 대불사大佛事였다.

큰스님은 춘추가 워낙 높으신 터라 대중을 거느리고 제접提接하는 데에는 건강상 많은 무리가 뒤따랐다. 그래서 수선사의 주석主席을 사퇴하고 조계산을 떠나 백암산白岩山 정토사淨土寺로 옮겼다. 정토사는 큰스님이 최초로 출가하신 출가본사出家本寺이다.

정토사에서는 큰스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온 대중이 큰스님을 맞을 준비에 몇날 며칠을 운력하기에 바빴다. 큰스님이 정토사에서 동안거 결제를 하게 되자 나라에서는 큰스님을 왕사王師로 진봉進封하고 법호를 더하니 가로되,

‘왕사 대조계종사 일인정령 뇌음변해 홍진광제 도 대선사 각엄존자(王師 大曹溪宗師 一印正令 雷音辯海 弘眞廣濟 都大禪師 覺儼尊者)’

큰스님을 왕사로 봉함과 동시에 영광군靈光郡 불갑사佛岬寺를 하산소下山所로 칙정勅定하고는 불갑사로 이주하기를 명하기도 했다.

큰스님은 칙명에 따라 백암산에서 다시 불갑사로 석장錫杖을 옮겼는데 문도들에게 이르기를,

“젊었을 적에 내가 이 산에 와서 머문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루는 꿈에 한 노옹이 나타나 예배하며 말하기를 ‘스님께서 장차 이 산에 머무실 것입니다.’ 하기에 매우 이상히 여겼는데 오늘에야 과연 증험하는 구나.”

하고는 송頌을 지으니,

군사오성불갑사君賜吳城佛岬寺  
인언선조사지환人言僊鳥已知還  
근천축국여천수勤薦祝國如天壽  
종차방기만길안從此邦基萬吉安”



임금께서 오성의 불갑사를 내리시니  
신선의 새는 내가 올 줄 이미 알았다고 말하네.  
나랏님 천수 누리시길 비옵나니.  
이로 쫓아 국토는 만고에 편안하리.

공민왕恭愍王이 즉위하자(1352) 어려운 시기임을  
감안하고 또한 자신의 덕이 모자람을 절감하여 큰 스  
님네 가운데 덕 높으신 스님을 가려 스승님으로 모시  
고 보좌補佐를 의뢰하려 하니 조정의 신하들이 일제히  
각업존자覺儼尊者를 추천奏薦하기를,

“상왕上王께서 이미 존승尊崇하사 그 덕을 호칭號稱  
하셨나이다.”

하니 왕께서 매우 기뻐하사 유사有司에게 명하여 각  
업존자를 다시 왕사王師로 책봉하였다.

큰스님은 이에 나이 이미 늙고 불갑사에서 개경開京  
까지 길이 먼 것을 내세워 재삼 사양하셨다. 그러나 왕  
께서 스님의 영정影幀을 그리도록 하여 큰스님을 대신  
하여 우리러 예배 하면서 익제益齊 이제현李齊賢으로  
하여금 상찬像贊을 짓게 하시매 익제는 마음을 가다듬  
어 필을 드니

국사건건國師乾乾 유덕여년有德與年  
왕명사상王命寫像 대침대건戴瞻戴虔  
시신리상是身離相 시법리전是法離詮  
즉도작찬卽圖作贊 거괴비연巨愧斐然

국사께서 부지런히 힘쓰사  
덕과 춘추가 높으시도다.  
임금께서 초상 그리라 명하사  
경건히 우리러 받드시네.  
큰스님 몸은 상을 여의시고  
뉘으신 법은 평전함을 여의었나니  
그림에 즉하여 찬탄하옵지만  
신하는 문채남을 부끄러워하시네.

임금께서는 큰스님의 일용품 등을 고루 갖추어 불  
갑사로 내려 보내시고 사사師事의 예로써 펴시는 것이  
였다.

큰스님은 국서國書를 받드시고 이에 이르시되,

“노승은 일찍이 전대前代의 오은誤恩을 입어서 외  
람되이 사위師位에 거居하였삽던 바 이제 또 중명重命  
을 옥되게 하오니 깊이 부끄러움이 있습니다. 그러  
나 다만 향화香火의 정근精勤으로써 거의 복국福國의  
미성微誠을 다하오리이다.” 하시고 그 임무에 충성을  
다하셨다.

큰스님은 나라의 은혜에 전장轉藏의 공덕으로써 보  
답하고자 하여 이듬해 봄에 백암산 정토사로 돌아가  
서 제산장로諸山長老 백 여명을 초집招集하여 3월 11  
일로 부터 20일에 이르기까지 불사를 크게 베풀어 낮  
에는 삼장을 읽고 밤에는 조교祖教를 말씀하시며 혹은  
참선參禪, 혹은 강경講經으로써 주야 6시로 법식法式  
을 거행하여 상은上恩의 약간을 보답하셨다.

공민왕恭愍王 4년 큰스님은 불갑사에서 정토사로  
옮기셨는데 6월에 이르러 미병微病을 보이시더니 7월  
27일에는 함서緘書로 국왕 재부宰府에게 하직을 아뢰  
시고 읍관邑官을 청하여 인신印信을 봉하게 하셨다.

큰스님은 삭발하시고 목욕하시고 새옷으로 갈아입  
으신 후 법고를 울려 대중을 모으게 하시고 법의를 수  
하사 소선상에 앉아 임종법문을 하시니,

즉심즉불卽心卽佛은 강서로江西老오 비심비불非心  
非佛은 물외옹物外翁이로다.

오서성중 鼠聲中에 나 홀로 가노니 열반 생사가  
본래공本來空이로다.

이 법문 가운데의 즉심즉불 운운은 강서江西 땅 마  
조도일馬祖道一선사가 즉심즉불 곧 ‘마음이 곧 부처  
다.’라고 설한 것을 일컬음이고 물외옹이라 스스로 지  
칭한 것은 정토사 산내 암자에 물외암物外岩이 있음으  
로서이다.



다시 말하면 마조스님은 곧 마음이 곧 부처라고 이르셨지만 나는 '마음도 아니요, 부처도 아니다.' 라고 이르노라 하신 법어이다.

또 '오서성중'은 박쥐와 쥐가 활동하는 야밤중을 가리킴이니 한밤중에 나 홀로 간다는 말씀이다. 이 법어가 큰 스님의 임종계臨終偈이니 계송을 읊기를 마치고 선상에 앉으신 그대로 엄연히 化化하셨다.

큰스님의 세수는 86이요 법랍은 76 하夏이며 이튿날 문인 등이 색신色身을 받들고 정토사의 서쪽 봉우리 아래에서 다비茶毘를 모신 후 유골을 수습하여 불갑사로 모시고 돌아가서 석탑을 세웠다.

12월에 임금께서 사신을 보내시어 문도에게 조위弔慰하시고 시호를 각진국사覺眞國師라 하시고 탑액을 자운慈雲이라 내리셨다.

돌아보건대 각진국사께서는 간묵청이簡默清雅하시고 단평직량端平直諒하시며 록정방미綠頂尫眉와 단진호치丹唇皓齒를 구족하시어 모습이 매우 쇠연하셨으며 또 입으로는 장부將否에 대하여 잠잠히 하시고 마음으로는 공경을 표하셨다.

또 국사께서는 사중寺中의 재물을 사사로이 쓰시지 않으셨으며 시적示寂하신 뒤에도 방장실方丈室에 한 물건도 남기신 적이 없었다.

스스로의 생활을 항상 근검절약으로 일관하시니 산중의 대중들 역시 이를 본받아 실행에 옮겼다.

국사의 문인 중에 뛰어난 석덕碩德으로는 선원사禪源社의 백화白華와 가지산迦智山의 마곡麻谷과 졸암연온拙庵衍溫 등이 있고 문도는 천여명이나 되었다.

또 국사의 내질인 행촌杏村 이시중李侍中은 당시의 이름난 재상이었으며 졸암拙庵스님은 국사의 생질이고 졸암스님의 제자인 구곡각운龜谷覺雲 선사는 졸암스님의 생질이다.

공민왕恭愍王 8년 문도 원규元珪 등이 주상에게 주달하여 비석 세우기를 청하매 주상께서 곧 이달리李撻裏에게 명銘을 짓게 하고 이제현李齊賢에게 비문을 짓도록 명하사 불갑사에 입석立石하였다.

국사의 문인은 아래와 같다.

- 白華
- 覺眞復丘 □□麻谷
- 拙庵衍溫 - 龜谷覺雲
- 之牧
- 心白
- 智孚
- 之珪 等 千餘人



##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운普潤 | 치문

‘지선 하향 하십시오.’  
‘차수 하십시오.’  
‘발끝을 모으십시오.’  
‘묵언默言 하십시오.’  
‘안행 하십시오.’

...

모두가 어색하고 순간순간 깜박  
잊어버려 잘 지켜지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고루하다는 생각에  
분심까지 일어납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폭풍처럼  
일어나는 번뇌 망상을 잠재우기  
위한 방편임을,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모든 지적과 지시가

아만심我慢心과

분별시비分別是非의 망상妄想,

그리고 지독히도 끈질긴

아상我相을 녹여 없애기 위한

것임을 알겠습니다.

‘상相을 내지 마십시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상相’ 이지요. 그 상이 몰록

없어져 버리면, 거기가 바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지점이겠지요.

‘하심下心이 수행修行의 시작이자

우리 수행의 전부일지 모릅니다.’

방부대기 중 지객知客스님께서

하신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송광사 강원 4년을

‘下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시예불, 발우공양, 간경 그리고

울력. 분, 초를 닦는 하루 하루가

지나갑니다. 삼시간에 일년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서서히 익어갑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스님들 너무 머트럽습니다.

참회하십시오.’

처음엔 생소하고 어색하게 들리던

말씀들이 귀에 익어갑니다. 지치고

힘들어 지대방에 쓰러져 누워있는

우리 자신들을 바라봅니다.

시체놀이라고 표현하시는

도반스님, 이게 아닌데 회의하시는

스님, 타他 강당講堂은 어떻고,

○○대학大學은 어떻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갑니다.

새벽이면 발우를 싸고 싶었다는

스님, 일년만 살고 가시겠다는

스님, 누구는 잘하고 못하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 치우네 안 치우네,

많은 시비是非의 말들이 어지러이

오고 갑니다.

이렇게 우리의 치문반緇門班

생활은 익어갑니다.

며칠 전 불조삼경佛祖三經 중의

하나인 위산경책噴山警策도 다

배웠습니다.

사십이장경四十二章經,

불유교경佛遺教經과 더불어

모두에게 간절하게 말씀하십니다.

‘시간이 없으니 부지런히

수행修行하라’ 고.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화당六和堂 치문반 지대방

도반道伴스님들, ‘초심初心





치문에서 무심無心 대교까지  
모두 함께 가십시다.  
한 말씀 중생 모두 공췌으로  
회향하여 주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나도 이제는

보순菩淳 | 사집

한 번의 죽비소리에 찬상을  
내어 가려고 황급히 일어나지  
않아도 될 때,  
나도 이제는...

사시공양 후 밀짚모자 눌러쓰고  
여유로이 홀로 산길을 걸을 때,  
사집반이 되었구나!

해우소에 오가면서도  
걸음걸음을  
관하는 내 모습에,  
나도 이제는...

백팔배를 하는 중에도  
험떡이지 않고  
호흡을 관하는 내 모습에,  
수행자가 되었구나!

## 짧은 강원 생활

보명普明 | 치문

일주문을 들어서 첫 발을 내디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두어 달이 획  
지나갔다.

꼭 와 보고 싶었던 송광사  
강원이었기에 기대 반 두려움  
반으로, 입방을 대기하면서 좋은  
도반道伴들을 만났다. 큰방에 발을  
들여 놓은 순간 그 설레임은  
차라리 두려움이었다.

‘저의 본사는 ○○사이고  
은사스님 범명은 윗자는 ○자  
아랫자는 ○자 스님이시며 저는  
○○입니다. 열심히 수행  
정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된 치문반 생활은  
너무 딱딱한 분위기에 모든 것이  
통제되어 있어서 마치 군 생활을  
연상케 하는 생각에 내 모든 것을  
빼앗긴 것 같았다.

문득 이것이 내가 생각하던  
강원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  
허탈감이 들 때도 있었다.  
또 많은 운력으로 체력이 떨어져  
도반道伴들을 배려하기 보다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려는 아상我相이  
불쑥 튀어나오기도 했다.

그렇게 여기저기서 부딪치고  
억누르고 또 참으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그러다보니 “옆을 돌아보지 말고  
생활해라.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자기 가치 기준으로 옳고  
그릇됨을 판단하지 말고, 그릇되면  
그릇된 대로 배울 것이 있고,  
옳으면 옳은 대로 배울 것이  
있으니 수행의 기회로 삼으라.”고  
하신 선배스님의 경책의 말씀을  
아직은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지만  
조금은 되새길 수 있을 것 같다.  
앞으로도 신심을 가지고  
도반스님들을 먼저 배려하고  
아상을 없애려고 더 힘차게  
노력하며 열심히 수행해야겠다.  
결국은 모든 것이 나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니, 내 마음 하나  
일어나지 않으면 걸림이 없는 것  
아닌가.

위산 山스님께서  
경책警策하시기를  
“육근六根이 이연怡然하면  
행주적묵行住寂默하고  
일심불생一心不生하면  
만법구식萬法俱息하리라.”  
“안이비설신의眼耳鼻舌身意가  
화합하여 편안하면 가고 옴과  
머무름이 고요하고,  
한 생각 일어나지 않으면 만 가지  
법이 모두 쉬리라.”하지 않았던가.  
모든 법우法友들이  
일심불생一心不生하여  
개공성불도皆共成佛道  
하여지이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 날아라! 독수리

염경念經 | 치문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 기념일  
입니다.  
7월 14일은 프랑스 대혁명 기념일  
입니다.  
7월 24일은 제가 송광사로  
머리 깎으러 온 날입니다.  
삼일 만에 부랴부랴 여지없이  
‘빹빹’ 밀어버린 머리를 손으로  
만져보며 그림자도 어색해서  
거울 한 번 다시 보던 때가 벌써  
1년 전前입니다.  
이런 저런 고비를 다 넘기며  
무사히 계를 받자마자 정신도  
못 차린 채 송광사 강원에 방부를  
들인지 벌써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제 한 몸 추스르기에 도 벅찼던  
봄 산철이 지나고, 지장전에서  
한 철 잘 나게 될 거라던 하안거도  
1/3이 지나갔습니다.  
아직도 울력에, 습의에 산 넘어  
산이지만, 이젠 웬만큼 적응도  
되고, 조금씩 여유도 생겨납니다.  
그리고 지장전을 지켜나갈  
‘아기 독수리’ 들도 서서히  
날개짓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고 80여 명의 대중이 몸  
부대끼며 살아가는 곳이어서  
하루도 조용히 지나가는 날이  
없습니다. 아주 사소한 사건에서

커다란 대형사건에 이르기까지  
가지가지 사건과 사고들이  
수시로 우리를 황당하게 하거나,  
또는 웃기거나 놀라게 하며 곁을  
지나갑니다.

이 사건 사고들 중에서 치문반  
스님들이 저지르는 사건 사고는  
대부분이 사소한 것들이고 대개는  
지장전에서 하루 한 시간 참회하는  
것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서 소멸이  
되고 미는 것들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독수리 스님.

그 중에서도 ‘지존’으로 불리는  
그 스님 본인에게는 눈물겨운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 스님이 지장전을 지켜가는  
이유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새벽 예불시 위의 없는 행동’에서  
시작해 ‘공양시 행익 미숙’을  
거쳐 ‘소임 미숙’과 ‘공사시간에  
보고 미숙’에 이르기까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만  
그래도 스님 본인은 끄떡없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는 도반스님들도 속이  
타지만 아마도 지적하는  
윗반스님들이 먼저 지칠 것  
같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  
그 스님은 나름대로 실수를  
줄이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저 또한 어느 순간에  
‘참회존자’로 불리고 있지 않기를  
바라며 어제와 똑같은 오늘의  
‘나’가 아니도록 열심히  
살아야겠습니다.



# 사집반이 된 지금 나의 모습

보원普願 | 사집

‘오여미오悟與未悟와  
몽여각夢與覺이 일여一如라.’

서장書狀에 나오는 말이다.  
아침부터 가부좌를 틀고 앉아  
있노라면 활동을 하지 않아도  
체력이 조금씩 떨어진다.  
게다가 날씨가 더워지면서 낮에  
졸음이 밀려오는 경우가 많아졌다.  
졸지 않기 위해 갖은 애를 다 써  
본다. 밥을 조금 줄여 보고, 운동도  
하고. 하지만 졸음이 오는 건  
여전하다.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내다 보니  
머리는 멍해지고 시력도 떨어져서  
안경을 써도 사물이 잘 안 보인다.  
눈은 충혈 되어 있고 변비에  
걸리기 십상이다.  
더 힘들게 하는 건 출가하기 전  
일들이 생각나는 것. 그러다 보면  
출가했던 마음을 다시 한번  
되짚어 간다.  
‘정말 수행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간식도 안 먹고 밥도 조금만, 잠도  
4시간 정도로 줄였다.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무기력  
해진다. 모든 것이 재미없어지고  
왠지 모르게 다가오는 두려움들...  
처음부터 강원에 올 생각은  
없었다. 행자 때 구암 노스님  
시봉을 하면서 참선을 배웠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공양시간만 되면 스님께서  
“그 놈 찾았냐?” 라고 물어보시곤  
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 얼굴을 붉히곤 한다. 지금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수계 후 곧바로 선방에 갈  
생각이었지만 은사스님 말씀에  
따라 강원에 왔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 사집반...

간화선에 대한 텍스트인  
‘서장書狀’ 을 배우고 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발우를 싸고  
선방으로 가고 싶은... 일명 ‘서장  
마’ 가 닥쳐오곤 한다.  
나름대로 용을 쓰고 있지만 어느  
사이엔가 화두고 뛰고 다 잃어버린  
나를 발견하곤 한다.  
접질렀다가 아직 다 완쾌되지 않은  
발목으로 걸가부좌를 트니 통증이  
심해서 걸어 다니기도 힘들다.  
어쩌다 가끔씩 화두가 잘 되는  
날은 기분이 상승된다. 하지만  
경계에 흔들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나를 발견하면 그냥 앉아서  
울기도 한다.  
‘막관공부莫管工夫,  
순일불순일純一不純一’ 하고  
‘공부가 되거나 되지 않거나  
상관하지 말고!’  
라는 대혜스님 말씀 따라 공부해갈  
뿐이다.

1. 일래日來에  
수연방광隨緣放曠하야  
여의자재부如意自在否아
2. 사위의중四威儀中에  
불위진로不爲塵勞의

- 소승부所勝否아
3. 오매이변寤寐二邊에  
득일여부得一如否아  
어잉구처於仍舊處에  
무주작부無走作否아.
  4. 어생사심於生死心이  
불상속부不相續否아  
단진범정但盡凡情이언정  
별무성해別無聖解이다.
1. 날마다 연을 따라 비워서  
뜻대로 자유자재 하는가?
  2. 행주좌와 4위의 가운데에  
번뇌가 더 수승하지는 않는가?
  3. 잠을 자고 잠을 깬 그 곳에 한결  
같은가? 예전에 있던 곳을 향해  
일부러 짓지는 아니한가?
  4. 생사심이 상속하지는 않는가?  
다만 범부의 정을 다할지언정 따로  
성인의 견해란 없음이니라.

대혜스님이 이참정 거사에게  
깨달음을 점검하는 잣대로 써주신  
편지이다. 오늘도 지대방에 앉아  
물끄러미 이 글을 생각한다. 난  
얼마만큼 와 있는가...  
쉬고 싶고, 먹고 싶고, 보면 놀고  
싶은 범부의 정을 다할 때까지...  
노력하고 노력해 갈 것이다.



# 치문 지대방

혜각慧覺 | 치문

많은 스님들이 모여 있는 곳.

휴식시간이면 방은 크지 않지만, 마음 넓은 스님들이 모여 차담도 나누고 휴식도 취하는 곳.

시간은 많지 않지만, 5분의 시간도 알차게 보내고, 시간의 귀중함을 느끼는 곳.

스님들로 가득 차지만, 스님들의 배는 항상 빈 것 같아 다각물茶角物을 찾으면서도 절제를 생각하게 만드는 곳.

치문반 스님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정해진 시간 이외에는 들어갈 수 없는 해태懈怠함이 발붙이지 못하는 곳.

여러 모습의 인연이 모여 있어 간혹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어지는 일이 있지만, 서로 간에 허물을 이해하고 탁마琢磨해주는 자비를 배우는 곳.

많은 스님들이 지내기에는 공간이 부족 하지만, 웃을 수 있고 내 주위를 둘러 볼 수 있게 하는 만족함을 배우게 하는 곳.

# 큰방을 떠나며

무량無量 | 사집

강원에 들어와서 가장 어렵다는 치문반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지금은 사집반 하안거를 보내고 있다. 생각해 보면 일년하고도 반이 지나는 동안 아주 많은 일들이 있었다.

지금은 주지소임을 맡으신 은사스님을 시봉하느라 시자실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 오기까지 큰방(지전)소임을 세 철이나 살면서 참 힘겨운 생활을 하지 않았나 싶다. 가을, 겨울, 봄으로 이어지는 세 철 동안의 큰방 소임은 꽤나 힘든 생활이었다. 그 중에서 보일러 관리는 아주 신경이 많이 쓰이고 예민한 문제였다.

60여 명의 대중이 큰방에서 자는 관계로 온도 관리가 대중 각자의 요구대로 맞추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온도에 대한 불평과 불만도 많다.

큰방 소임자는 보일러에 많은 신경을 써야하고 나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큰방에서 자면서 이불을 덮고 자본 날이 5일이 안되는 것 같다.

지난 가을에는 지전장(일명 큰방장)이었던 사집반 Y스님의 수고와 배려로 별 어려움이 없이 보냈으나, 겨울 동안거 부터는

보일러 관리가 치문반 소임으로 완전히 넘어와 치문반이 큰방의 온도를 모두 책임을 져야했다. 삼시공양에 맞추어 큰방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할 해야 하고, 간경시간에는 방이 따뜻해 졸음이 오는 것을 막아야 하고, 저녁 공사 전까지 큰방의 온도를 적당하게 유지해야 했고, 밤새 큰방의 온도가 내려가지 않게 해야만 했다.

다행히도 겨울철이라 날씨가 추운 관계로 밤새 보일러를 가동해야 했기에 별 무리가 없었다.

어느덧 한철이 지나고 봄이 되었다. 치문반의 입방이 늦은 관계로 사집반이 되었으나 소임은 치문반 동안거 때 소임을 계속 유지하면서 사집반을 시작하게 되었다.

문제는 지전장을 누가하느냐 인데, 봄 산철 반장이었던 N스님의 애원(?)과 반 도반스님들의 협박(?)에 항복하여 내가 지전장 소임을 맡게 되었다.

이유인 즉, 하안거 부터는 주지스님의 시자소임으로 고정되어 있으니 그 전에 대중 소임을 살아야 하고, 독살이 하기 전에 꼭 한 번 써먹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큰방 소임으로 인하여 지전장에 책임이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도반 스님들의 열렬한 지지와 후원에 힘입어 대중살림의 마지막 소임으로 큰방 소임을 또 살게 되었다. 따뜻한 봄이 되면 보일러 관리가 조금 쉬울 것을





예상 했고, 낮의 온도 관리는 별 문제 없이 진행 되는 것 같았다. 그러나 취침 시간의 온도 관리가 문제였다. 도량석 시작 소리에 맞추어서 큰방에서 죽비가 울리고 일어나서 가장 먼저 방안의 온도를 확인해 보았고, 처음 며칠은 별 무리 없이 가는 듯이 보였으나, 며칠 후에 사고가 생기고 말았다. 큰방 내의 취침 인원이 많다 보니 대중스님들의 체온으로 인하여 방안 공기가 덥혀지고, 정작 방바닥은 차가운데도 보일러 센서는 실내온도가 올라간 것으로 인식하여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 아주 난감한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처음에는 윗반 스님들의 배려로 참회 없이 무사히 지나가는 듯 했으나, 며칠 후 다시 이런 일이 발생 하였고, 상황이 심각해질 것 같은 분위기였다. 뭔가 대책이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 직접 온도 점검을 시작하기로 하고, 10시에 한번 들어와서 큰방을 한바퀴 순회하면서 온도점검, 12시에 다시 들어와서 온도점검, 다시 상황이 확실하지 않으면 2시에 다시 한번 들어와서 점검을 하기로 시간을 정하고, 지대방에서 잠을 자며 실행에 들어갔다. 이런 중(?)노동을 하면서 봄 산철 한 달 여 남짓을 보내게 되었다. 왜??!! 이런 방법 밖에 없는 것은 아닌데, 왜??!! 이런 방법을 고집해야만 하나 하는 번뇌만 남긴 채 아주 긴 봄 산철을 지내야만 했다.(동안거 기간에 보일러에 타이머를 달아서 온도 관리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바꾸어 보고자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소임을 마치고 말았다.) 그러나, 지금 하안거에는 타이머가 달려져 조금은 편안하게 큰방 소임자들이 온도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며 질투 반, 짜증 반, 부러움 반으로 한마디 해본다. "Woo~~~C 진작 좀 달지." 지금은 대중생활에서 벗어나 독살이(?)를 하고 있다. 혼자 있으니 장단점이 많다.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기도 하고, 책을 보는 시간도 마음대로 정해서 학습의 능률도 오르는 듯 하고, 그러나 혼자이므로 게을러지기도 하고, 나태해 지기도 해서 시자실의 창문을 활짝 개방해 놓았다. 사람이 지나가면 환히 안이 들여다 보이게, 그리하여 나 스스로 항상 경계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말이다. 시자실에서 생활하다 보니, 대중생활이 가끔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나의 대중생활은 큰방 소임이 전부였던 것 같다. 큰방 소임자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정근精勤

법성法性 | 치문

나무 영산불멸 학수쌍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왜 설산에 들어가 고행을 했을까.  
눈 덮인 나뭇가지 아래에  
이를 악문 한 수도승 무엇을  
생각하며 그 기나긴 고통을  
견뎠을까.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황금 빛 손가락. 황금 빛 얼굴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목소리를 더 내야 할까.  
자꾸 가사가 흘러내린다.  
아스라한 분노가 몸을 칭칭  
동여매고  
미끄러지듯 머리를 들어 올린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아! 젊은 쇠다르타  
정좌하고 저 눈 속을 깊숙이  
투시하고 있을...  
나는 지금 이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나?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귀 안에 맴도는 대중스님들의 정근  
소리.

무릎이 저러오고 뿌드득 뼈마디가  
어긋난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딱 생각을 하고 있구만,  
키득키득 저 스님은 먼저  
일어서네.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가사가 발에 짊혀 확 당겨진다.  
당황하여 가사를 정리하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설산에 정좌하고 있었던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지금은 어디에 있나? 어디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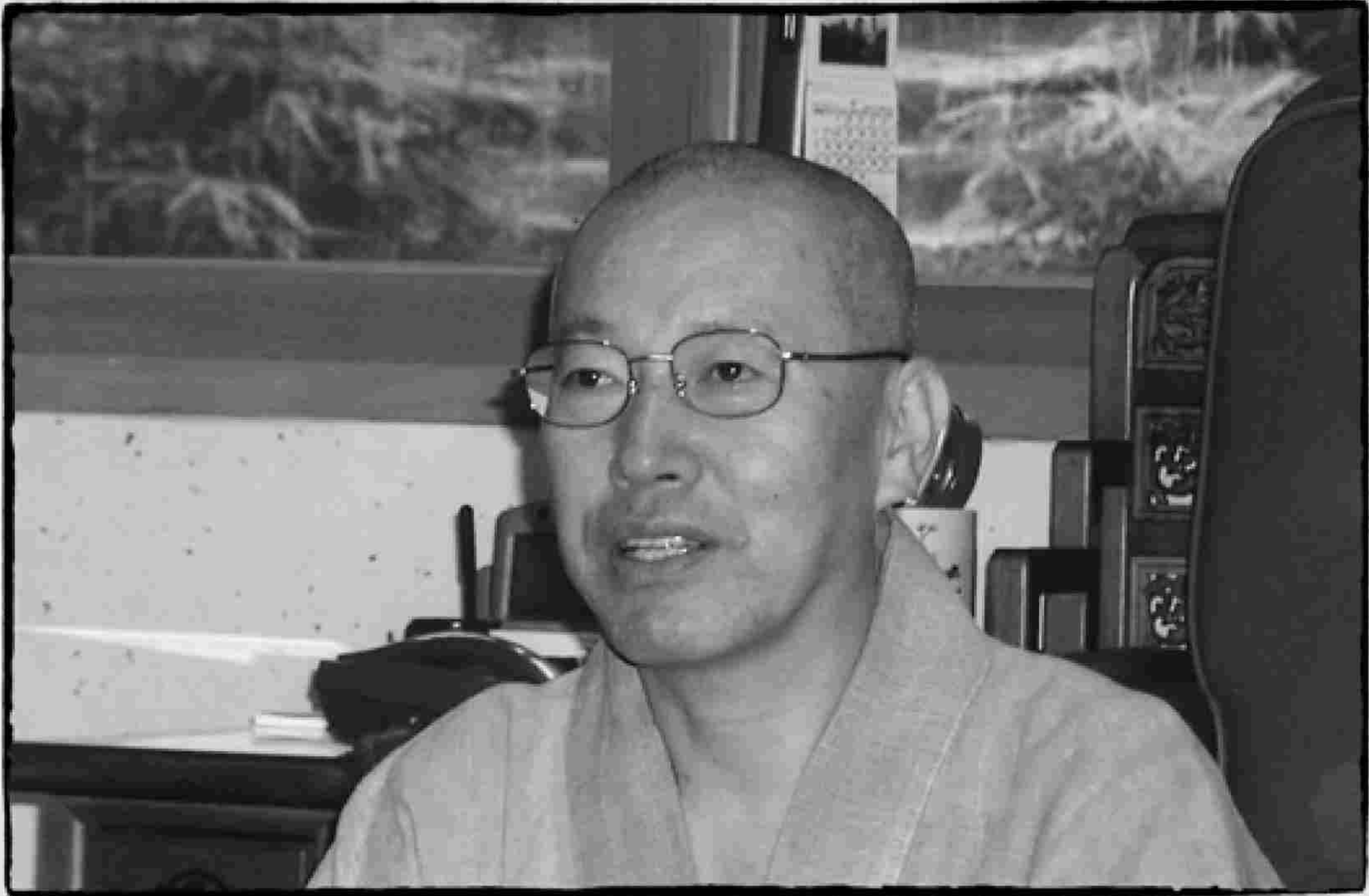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천상천하무여불  
시방세계역무비  
세간소유아진견  
일체무유여불자....





승가대학원장  
지안스님



굽이진 도로를 따라 한참을 오른 암자길...  
파릇한 잔디와 촉촉한 물기를 머금은 꽃잎들...  
정돈된 도량 앞마당에는 시원스레 흐르는 계곡물...  
잠시 멈춘 빗줄기에 포근하게 감싸 안은 감로같은 안개방울...  
천상의 도솔천을 읊긴 듯한 반야암은 그렇게 낮선 손님을 반긴다.



**요즘 하루 일과와 근황은 어떠신지요?**

예, 이번 주 방학하고 암자에 내려 왔어요. 평소에도 학기 중 제가 맡은 수업이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강의를 해요. 그날은 하루 2~3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다른 날은 암자에 와 있습니다. 지금은 방학하면서 대학원 스님들하고 함께 연구하는 분야도 있고 해서 암자에 내려와 있습니다.

**승가대학원의 설립 취지와 현재 활동 및 강사진 그리고 교과 학습과정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종단개혁하고 교육원이 설립 되고 부터, 전문 강원의 강사를 배출할 수 있는 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설립되었어요. 말하자면 승가 사범대학이라구 할 수 있지요.

교과과정은 3년 과정입니다. 내용은 강사 스님들이 지금 많이 가르치고 있는 사교과목을 주로 깊이 봅니다. 논소를 중심으로 깊이 더 연구하는 거죠. 수업방식은 주로 논강형식입니다.

교수진은 현재 인원이 모두 7명 밖에 안돼서 내가 사교를 주로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중관, 유식, 선문 염송 등 분야별로 유명한 논서를 보거나 특강을 해요. 이런 때는 제 방 중견스님이나 유명한 학자들을 초청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과제가 있습니다. 매주 각자가 내전과목 안에서 전공을 선정해서 연구한 것을 토론하고 이런 식으로 졸업 때까지 책을 한 권씩 번역하거나 엮어내야 됩니다. 이번에도 졸업 작품 가운

데 '동산양개어록' 번역을 시도한 스님이 있는데 아마 처음 번역하는 것일 거예요. 그 외에도 국내에서 처음 번역이 시도되는 게 몇 있습니다.

**강원스님들 가운데 승가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스님들에 대한 당부나 안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여기는 승납도 되어야 하구 자격이 좀 갖추어져야 합니다. 승납자격은 사미계를 포함해서 8년 이상이어야 하구요. 강원을 졸업하고는 울원에 2년 수료하거나 또는 학림이라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교육원에서 인가를 했어요. 화엄학림이라든지 능엄학림이 지금 2개 개설되어 있어요. 또는 동국대학교 석사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대학원에 올라 자격을 부여합니다. 그렇게 자격이 갖추어진 스님들을 면접해서 뽑아요. 지난번에도 15명이 지원해서 7명 선발되었어요. 시험을 치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건 교육원과 협의할 문제라서 아직은 서류전형입니다. 진학을 희망하시는 분은 물론 강원 재학 중에도 공부 열심히 해야겠지요.

**스님께서 출가하셨을 인연하고 기억에 남는 행자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십시오.**

처음에 고향 선배 소개로 공부나 좀 해볼까 하고 암자에 왔어요. 시절인연이 닿아서 그랬는지. 큰절에 내려와서 처음 구경하는 순간부터 절 분위기에 마음이 끌리더라고요. 12월 중순쯤 이에요. 도량에 스님 한 분이 지나가는데 그 모습이 너

무나 거룩하고 이상적인 수도자 같이 보여서 거의 우발적이랄까, 충동적으로 그 스님을 따라 갔어요. 종무소까지 따라가서는 “스님, 이 절에서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하고 물었어요. 그래가지고 행자실에서 같이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행자들을 따라서 법당에 가서 예불을 드렸어요. 그 때 대중 스님들이 새벽 일찍 토해내는 그 창불이 천상의 음악이랄까? 너무나 거룩한 어떤 사람의 영혼을 울리는 음성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때 나이가 만 스물세 살인가 되었는데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길이다.’ 결심했어요. 그렇게 출가를 결심했어요.

그렇게 해서 행자생활을 시작하고 갠두 소임을 봤는데 공양주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나이는 열여덟 정도였는데. 이 스님이 내가 국을 끓일 물을 준비해 놓으면 무조건 가져다 쓰고 다시 끓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은 넘어갔는데 너무 무리하게 심술을 부리니까 어느 날은 내가 따졌어요. 스님이 국 끓일 물을 다 써버리면 또 끓이려면 국이 늦어지지 않느냐고요. 그랬더니 이 스님이 행자가 건방지다고 화를 내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성질도 나구 나이도 있겠다 싶어서 그 스님을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이 갠두행자가 날 때렸다 고함치면서 큰방으로 달려가요. 그리고는 학인스님들이 우르르 저 놈 잡아라 하고 나와요. 그래 영겁결에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쫓겨 통도사를 떠나게 된 거죠. 그 때 원주스님이 나를 조금 유심히 봐두었나 봐요. 행자 때문에 학인 스님들이 소동이 나니까는 학인 스님들을 달래놓고는 택시를 타고 마을까지 잡으러 내려 왔어요. 그러면서 다른 절로 갈 것 같으면 가지 말고 나랑 같이 큰 절로 올라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주스님이 강원에 공양 같은 것을 많이 내어 놓고 그 입승을 설득을 하더라고요. 설득하고 공양주도 잘못된 것이 있으니깐 우리가 이제 적당선에서 참회를 주기로 하자고 이제 요

공양을 하고 모두 큰방에서 공양을 했어요. 노스님들이 학인들 잘못된 것 하나하나 공사를 해요. 내가 공양주를 석 달을 했는데 참 많이 불러 들어갔어요. 노스님들이 모범을 보이니깐 예불 한 번 빠지면 바로 참회예요. 삼직스님이 예불 빠졌다고 학인들 올리는 마지를 들고 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만큼 어떤 대중의 분위기가 엄격하고 법도가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때만 해도 좀 가난했어요. 우리 학인 시절만 해도 배가 고팠습니다. 암자로 다니면서 실제

고 매달 시험을 쳐요. 문제를 내어 가지고 답을 쓰는데 그래서 시험을 치면 그 성적을 아침공양 끝에 큰방에서 30점이다 40점이다 다 발표를 해요. 교무스님이 발표를 하고나면 나중에 어른스님들이 성적이 안나오면 그 자리에서 바로 경책을 해요. 성적이 좋지 못한 스님들을 보고 밥값도 못한다면서 밥값 내놓으라고 야단을 쳐요. 그리고 성적 따라서 장학금이 나와요. 그 때 일등하면 오백원, 이등 삼백원, 삼등 이백원 이렇게 해서 책도 사 보고 했어요. 그 당시는 오백원 주

노스님들이 모범을 보이니깐 예불 한 번 빠지면 바로 참회예요.

삼직스님이 예불 빠졌다고 학인들 올리는 마지를 들고 가는 것도 보았어요.

그만큼 어떤 대중의 분위기가 엄격하고 법도가 살아 있었어요.

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 큰방에 가서 동서남북으로 백팔 배를 하고 뒷방 노스님들께 가서 전부 참회를 했다고요. 그런 일화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강원에서 공부하시던 당시의 모습은 어떠하였는지요?**

그 당시는 단일계단이 아니었고 본사 단위로 수계를 했어요. 수계하고 나면 이제 후원 소임을 한 철 살리고 강원에 입방을 해요. 그래서 인재 강원에 들어가서 공부했는데 학인 스님들이 삼사십 명 가량 됐어요. 그 때는 노스님들이 많으셨는데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뒷방

무우를 뽑아 먹었어요. 소등 시간도 엄격히 통제했어요. 9시 5분이 되면 깜박하고 한 번 취침준비 신호를 줘요. 그렇게 해 놓고 10분 동안 발 씻고 취침준비를 해요. 그래서 9시 15분 아예 전기를 끊고는 새벽 예불시간에 딱 불 올려줘요. 그러면 몇 몇 스님들은 지대방 위 공루에 살짝 올라가서는 촛불을 켜 놓고 책을 봅니다. 어떤 경우는 12시, 어떤 경우는 밤새우기도 했어요.

공부방식은 사미율의 치문부터 공부하는데 그 날 배운 것을 외웁니다. 요즈음도 이런 외우는 공부 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월레고사라

면 사전을 한 권 사요. 그래서 지금도 반 별로 장학금이 나가고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정진도 신심있게 했어요. 단식기도도 하고 용맹정진 할 때에는 선방에 가서 같이 철야정진하고 그러고 기도 같은 것 하면 스물 네 시간 법당에서 안 나옵니다. 밥도 안 먹고 뭐 화장실도 안나가고 그런 분위기가 조금씩 희박해지더니 80년대 부터는 자꾸 해이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요즈음 학인 스님들한테 시절인연으로 볼 때 조금 수행의 분위기가 해이된 때에 출가한 것이 조금 안타깝다고 생각도 들어요. 가난했지만 대중의 화



합과 엄격한 법도 속에서 신심이 살아있던 때였으니까요.

스님은 통도사에서 출가하신 후 강원을 졸업하시고 중강을 거쳐 강주까지 역임하시는 등 그야말로 통도사 토박이십니다. 통도사에 대한 남다른 애정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예, 내가 월하 큰스님 빼놓고는 통도사서 제일 오래 있었습니다. 통도사 터가 책보기가 참 좋아요. 땅이 순하고 문필봉(文筆峯)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전해지는 설이 통도사에는 글이 안 끊어진다고 해요. 여담삼아 하는 얘긴데 실제로 통도사 스님 가운데 공부하는 스님이 많이 나와요. 지관스님 월운스님 통도사서 공부하셨고 승가대 총장 종범 스님도 여기서 공부하셨고 지금 은해사 승가대학원 1기들이 대부분 통도사 출신이고, 능엄학림이나 화엄학림도 거의 통도사 출신이 많이 공부를 했어요. 제방에서 경학하시는 분들이 묘하게도 다른 본사 스님들도 많겠지만 통도사 스님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이 절을 한번 나가려고 했는데 우리 은사 스님이 한 군데 그냥 앉아가지고 공부해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일본으로 유학가는 스님들도 있었는데 어떤 스님인가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어느 절 한 처소를 정해서 10년만 경전을 보면 유학 갔다 온 것 이상의 힘을 얻고 경안을 얻는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바도 있고 또 중 될 때부터 보궁이 있는 통도사 도량이 참 편하게 느껴졌어요. 어디가고 싶은

생각도 없고 속가에서 학교 다닐 때도 글 쓰는 취미가 있었지만 강사시절에도 경보고 글씨 몇 자 쓰고 나면 하루가 후딱 가는 거예요. 지금도 은해사서 일주일에 3일간 살지만 교육원장이신 무비스님이 나더러 은해사 오라해 놓고는 만나면 농담으로 통도사 지킴이가 어째 다른 곳에 왔느냐고 그래요.

스님은 한영스님-운허스님-월운스님의 강맥을 이으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 경학을 시작하신 동기와 선배 대강백 스님들과의 강맥 인연 등을 듣고 싶습니다. 나는 주로 어릴 때부터 책보는 취미가 있어서 경전을 보면 환희심이 일어나고 책을 보면 신심이 생기고 좋아요. 사실은 나는 30여 년을 강원에서 생활한 사람입니다. 중간에 마산 포교당에 가서 조금 있다가 온 적도 있지만요. 그래 이렇게 강원에서 열심히 하니깐 경반 때 중강을 하라고 해요. 졸업하기 전부터 치문반을 가르쳤어요. 요즈음은 강주라고 하지만 그때는 강사하고 중강이었거든요. 용상방에도 강사라고 써요 중강은 버금 중자(仲)를 써서 중강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졸업하면서 중강을 계속 맡다가 강사를 했어요. 그렇게 학인들과 일거수일투족을 한 4년 동안 같이 했습니다. 예불 한 번 공양 한 번 빠진 적도 없이 그렇게 했어요.

강맥은 사실 늦게 잇게 되었어요. 우리 때는 강사스님들이 오래 계시지도 않았고 해서 제가 어느 유명한 강사 밑에서 꾸준하게 배우지는 못했어요. 개인적으로 열심히

했지요. 제가 강원에 있으니까 은사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강사를 하려면 예전부터 전강이 되어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해요. 그때 통도사에 홍법스님이 운허스님한테 강맥을 받았는데 내가 강사 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우리 스님이 말씀이 있고부터 전강의 인연을 기다렸는데 사정상 전강도 안받은 채 강주를 했지요. 봉선사에 계시는 월운스님하고의 인연은 월운스님께서 운허스님의 적손이시고 평소에 제가 스님의 학덕을 존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통도사는 오래전부터 화엄산림이라고 법회를 동짓달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제방에 큰스님들 다 초청합니다. 무불스님은 지금 돌아가셨지만 관응스님 같은 분도 오시고 그렇게 해서 월운스님도 오셨어요. 스님이 오실 때마다 법문도 듣고 또 스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강주라고 격려도 해주시고 하셨지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경전에 대한 견해나 역경에 대한 것도 여쭙고 듣고 하면서 가끔 인사도 드리고 지내오다가 전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맥을 잇게 되었습니다.

요즘 출가연령과 학력이 높아지면서 서당식 교육의 강원 교과목에 대한 인식재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일부 강원에서는 동국대, 승가대의 교과과정을 도입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특강이라고 해서 강원마다



일부에서는 훈고학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고쳐야 한다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스님들이 원전을 못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합천 해인사에 고려대장경이 국보로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볼 스님들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잖아요. 대학원도 특강을 하는  
 때가 있지만 강원은 지금 명칭도  
 승가대학으로 바꿨지만 그래도 옛  
 날 이름 강원이 더 전통있는 이름  
 이지요. 강원교육에서 한문원전을  
 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커  
 리큘럼을 원천적으로 바꾸는 건 우  
 리는 찬성을 안 해요. 논강도 얼마  
 나 좋은 학습 방법이에요? 경전을  
 볼 때 서로 학인들끼리 자기의 견  
 해를 피력하면서 토론식으로 논하  
 는 논강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장점 좋은 전통은 보존해야지요.  
 일부에서는 훈고학적으로 공부하  
 는 것을 고쳐야 한다 하는데 그건  
 모르는 소리입니다. 스님들이 원전  
 을 못 본다면 어떻게 돼요. 합천 해  
 인사에 고려대장경이 국보로 보관  
 되어 있는데 그걸 볼 스님들이 없  
 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야 말로 큰일 나는 거지요. 강원에  
 서 지금 학년제로 하면 4년이잖아  
 요. 교육 4년간 열심히 보면 능통  
 하지는 못해도 대충 이해는 하거든  
 요. 그 바탕으로 조금만 더 하면 되  
 는 거예요.

또 강원이라는 것은 승려의 지식  
 교육기관이기에 앞서 수도집단이  
 고 수행공간이에요. 옛날 스님들은  
 강원을 학불장이라고 하고 선원은

선불장이라고까지 했어요. 수도가  
 풍 면에서 보면 공동생활하면서 새  
 벽에 지심귀명례 예불하고 일과대  
 로 사중 윤력 있으면 하고 전통 행  
 사도 하고 이렇게 전통적으로 절이  
 곧 승가가 유지·계승되어 가는 겁  
 니다. 절 집안에서 분수焚修 닦고  
 새벽예불 저녁예불 참석하고 그러  
 면서 마음을 밝게 쓰고 욕심 버리  
 고 사는 것입니다. 수행이라는 것  
 이 삼독 극복하는 건데 그렇게 사  
 는 것이 빛나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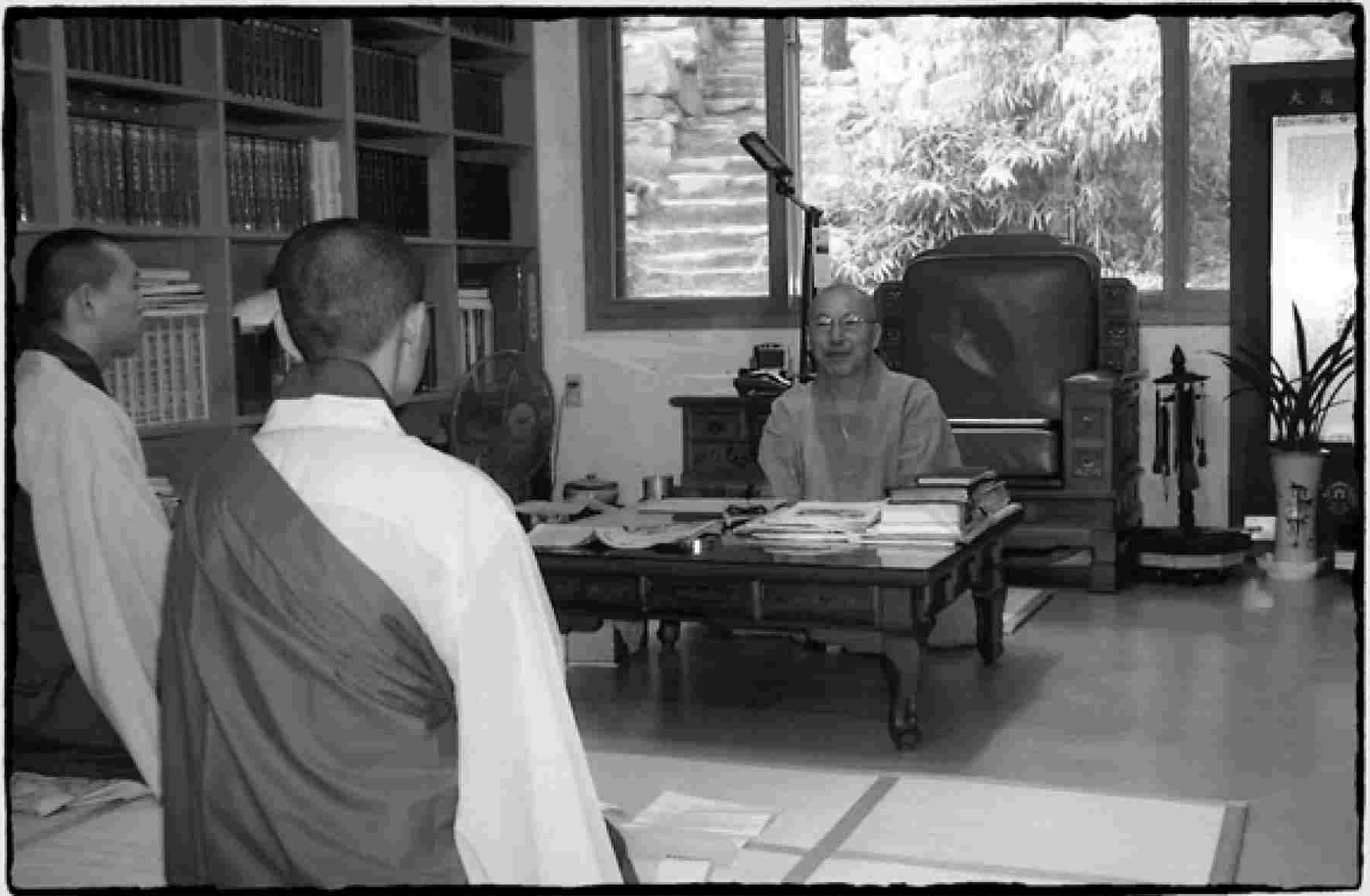
청매青梅선사의 십무익송+無  
 益頌에도 나오듯이 심불반조心不  
 返照 간경무익看經無益이라고 결  
 국은 자기 자성을 관하는 것이 본  
 분공부거든 참선도 자성을 보는 것  
 인데, 결국은 자기 마음을 관하는  
 것이 공부이지 그걸 도외시 하고  
 지식만 머리에 주입한다고 옳은 것  
 은 아니죠. 물론 현대사회의 복합  
 적 기능에 맞추어서 불교가 사회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지식 공부도  
 필요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  
 의 전통은 부처님 일대시교인 이력  
 과정을 잘 봐서 참선해서 견성성불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곳이에요.  
 그런 면에서 보면 오히려 너무 복  
 잡한 지식인들의 머리가 강원 교육  
 분위기에서 오히려 맑아지고 바

로 돼야지요.

요즘 사람들은 수도자가 무식하  
 면 안 된다고 말해요. 하지만 무식  
 하다는 것이 그사람의 인격을 매도  
 하는 말은 아니예요. 당연히 산중에  
 서 도 닦는 사람들이 세상물정에 어  
 느 정도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그  
 러나 마음이 항상 순수하고 소박하  
 면 되는 겁니다. 몰라도 돼요. 사실  
 우리 중질하는 게 뭐가 있어요. 어  
 떤 사람은 기도만 열심히 해도 남을  
 교화시키는 법력이 생기는 거예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신도님 그게 어떤 겁니까 우리는 절  
 에 살아서 뭔지 잘 몰라요. 그러면  
 무식하다고 하겠어요? 오히려 더  
 받들어 줍니다. 지식에 집착해서 실  
 상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걸 자기 인  
 격의 수양된 것인 양 여기는 것은  
 큰 병폐입니다. 물론 한국불교의 지  
 성화가 필요하지만 승가에서 우선  
 시 되어야 할 것은 도심이 바로 길  
 러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  
 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는 공부이  
 고 또 이것을 몸으로 실천하는 공부  
 이기 때문에 세속적인 기준에 맞추  
 어서 지식의 열세를 느끼고 자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즘 강원 교과과정에서 포교나 사회복**





지 등에 관한 외적 정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스님의 견해가 있으시다면

그거는 쉽게 극복 돼요. 강원마다 도서관 같은 시설을 확충하고 서적도 새로 구입하고 강원만의 현재의 분위기에서 책을 보면 돼요. 책이 다 가르쳐줘요. 그리고 요즘은 웬만하면 컴퓨터를 활용하잖아요. 인터넷에도 정보가 많아요. 우리 스님들이 산중에 있다고 지식에 굶주릴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자신의 신심과 원력의 문제예요. 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을 생각할 때 포교나 복지 같은 경우에 필요한 지식습득이 필요도 하지만은 강원에서도 가

능하다는 거예요. 요새 얼마나 많아요.

예를 들면 어학인 일본어 중국어도 독학으로 돼요. 책 사가지고 하니깐 웬만한 일본책도 볼 수 있어요. 영어도 하니깐 돼요. 여행하고 길가고 밥 사는 것도 큰 문제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건 개인의 특수한 경우라고 하지만은 누구나 특수한 거 아녜요 하면 되지요. 스님들이 환경을 탓하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열악하다고 하는데 천만에요 제일 좋죠. 어디가나 의식주는 해결되잖아요. 잠잘 자리 밥도 해결해 주지 입을 옷이 없으면 신도건 주지스님이든 누가 한 벌 해

줘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곳이 절이예요.

**요즈음 교육제도가 기초선원, 강원, 동국대, 승가대 등으로 기본교육이 나뉘면서 스님들의 교육내용도 분화되는 추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해는 돼요. 일차적으로 개혁종단 들어서고 교육원이 설립되면서 그래도 잘했다고 느끼는 점이기도 해요. 요전날 서울에 고시위원들 모임이 있었어요. 거기서 들었는데 요즘에는 스님들이 대부분 강원에 모인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교육적인 제도가 정착된 단계라 합디다. 강원에 안나오면 비구



계를 못 받으니까요. 그리고 고시 제도가 있잖아요. 처음 절에 들어와서 교육적인 이력을 쌓게 하도록 한 점에서는 이해가 되는데, 너무 현대식 제도로만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전에는 독강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유명한 강사 스님 밑에서 혼자 독강도 하고 그랬어요. 또는 진도를 못 따라가면 몇 명 남아서 다시 공부도 하고 그랬어요. 월운 스님도 그래요. 지금 봉선사 주지실에서 능엄학림 스님들이 칠판도 없이 옛날 서당식으로 강의 듣고 그

이라든지, 논리적인 언변이라든가 이런 것도 세련되겠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련은 되고 좀 똑똑해 보이기는 해도 신심이라든지 뭔가 중으로서의 수행자의 정신 이런 것은 강원이 나온 것 같아요. 강원 교육은 사실은 아주 특수한 교육이에요.

지금 한국불교, 사찰불교를 이루는 근간은 대중이에요. 학인스님들이 공양하고, 청소하고, 예불하고 사찰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런 측면에서 강원교육을 꼭 이수했으면 싶어요.

지금은 의식이 발달해서 그만큼 화두를 들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자를 휘둘러 보았자 오히려 역효과예요. 오히려 사기꾼으로 취급받아요. 그걸 연극인지 누가 알거예요. 내가 안 깨치면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간화선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화선 하기 이전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교양도 갖추고 또 부처님 경전도 봐야 해요.

사실 간화선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깨달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일초

일단 선을 논하기 전에 사람은

인간의 성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양이 갖추어져야 해요.

수양이 안되면 수도를 못해요. 깨달음이란게 뭐예요.

인간성의 최고의 성숙이잖아요.

래요. 그래도 공부하고자 하는 열의만 있으면 잘 돼요. 그런데 그런 좋은 학습방법이 현대 학교 교육식으로 바뀌고 있잖아요.

기초선원은 이름을 근본선원으로 바꾼다고 합니다. 이제는 출가 연령도 제한하고 하니까 공통적으로 강원교육을 일률적으로 이수하고 선방을 가도 되지 않나 싶어요. 경학의 내용이 다 도심을 익히기 위한 거잖아요.

또 지금은 동국대나 승가대도 스님들이 많아요. 아무래도 현대적인 캠퍼스 구조에서 여러 학문분야를 접해가면서 교육을 받으면 표현력

강원의 교육이 사교입선이라고 해서 선 수행의 기본적인 단계라고는 하지만 요즘 간화선에 대한 이론이 위빠사나 등 남방의 수행 이론에 비해 관념화 되어있지 않느냐고 하는데요.

일단 선을 논하기 전에 사람은 인간의 성품에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수양이 갖추어져야 해요. 수양이 안되면 수도를 못해요. 깨달음이란게 뭐예요. 인간성의 최고의 성숙이잖아요. 옛날에는 조사스님들의 방이나 할이 통했어요. 화두를 잘 참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매질이나 할을 하거나 이래서 충격요법으로 깨우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즉입여래지—超卽入如來地라는 말을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채택한거예요. 간화선이 우리나라와 중국 풍토에는 맞아요. 그래서 화두를 부정하고 싶지 않아요. 위빠사나는 기신론에도 흥미할 만한 구절이 있어요. 또 수식관, 오정심관이라고 초기불교에도 다양한 관법이 나와요. 처음 개인적으로는 험떡거리는데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의 전통 간화선법 가풍을 바꾼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어요.

현재 동화사에서 개최하는 화엄논강에서



의 논주로도 참석하고 계신데요. 대승경전의 경우 현실에서 곧바로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기 어려운 느낌을 받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경을 보아야 할지.

화엄경의 사상이 복잡하다고 하지만 결국은 보살행이거든요. 어떻게 원력을 크게 세워 이타행, 보살행을 하느냐 이겁니다. 문제는 공부를 하고도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이 없는 것이지 공부 자체에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단에서 스님들이 올라갈 수 있는 무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해줘야 돼요. 그것만 마련되면 신심이 나서 공부 더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스님들이 교수도 하고 교사도 하고 병원장도 할 수 있어요. 며칠 전 외국 신부님들이 여기 왔다 갔는데 신부가 병원장이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도 수도자래요.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구요.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지금처럼 중앙집권체제 보다는 연합체제로 해가지고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만들고 다른 불교복지시설 같은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지금 스님들이 몇 십 년 공부해서 학위 받아 갖고 와도 어디 학교에 들어 갈 곳이 없어요. 대만에 불광사 같은 곳 봐요. 대학이 몇 개나 돼요. 각국의 스님이 다 와서 불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또 큰 빌딩 안에 예식장, 법회장, 법당으로 쓰는 공간도 있어요. 우리도 정화 전에는 학교도 많고 방직공장도 있고 운수사업도 있었어요. 그

런데 싸우면서 다 팔아먹고 얼마나 많이 없어졌다고요. 원력 있는 스님이 나오고 종단도 인식을 바꾸고 하면서 예전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봐요.

**평소 수지독송 하시는 소의 경전이나 귀감으로 삼고 계시는 문구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경전으로는 화엄경을 좋아해요. 한국 불교가 선불교지만 화엄사상에 의거한 거예요. 또 일체유심조 사상은 불교의 근본 핵심입니다. 화엄경이 양이 좀 많잖아요. 그래도 학인스님들 뿐 아니라 선방수좌들도 한 번쯤은 다 보기를 권하고 싶어요.

화엄경에 대한 일화가 있어요. 서울대 철학교수를 하던 박종홍 박사가 있었어요. 이 분이 일본 가서 일본인 교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스승이 자네가 철학을 공부하려면 화엄경을 한 번 읽어 봐라 권해서 읽어 봤대요. 처음에는 양만 많고 말만 되풀이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더라요. 그래도 계속해서 몇 번 읽었대요. 그렇게 읽다 보니 뭔가 가슴에 확 와 닿는 게 있더라고요. 이 불교, 부처님의 진리를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장엄하게 묘사해 놓은 것에 점점 매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나중에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불교에 관한 책도 쓰고 했어요. 아주 지리멸렬한 감이 있지만 참고 읽어 보길 권합니다. 내 경우는 강주를 한 15년 하면서 화엄경을 열 몇 번 읽었어요. 읽을 때 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어록은 임제록이예요. 거기에 보면 '수처작주 隨處作主 입처개진 立處皆眞' 그거 내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다른 스님들도 많이 좋아하겠지만 임제록은 어록의 왕이거든요. 니시다 끼따로(西田幾多朗)라는 일본의 대철학자는 2차대전이 일어났을 때 이 세상 책 다 타버려 없어져도 좋지만 임제록만 타지 않으면 된다고 까지 말했습니다. 그래서 참 어디든지 스스로 곳에 따라 주인이 된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주인으로서 할 일을 찾아서 주체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수행자이면 좀 더 주체적으로 자기능력을 개발 역할을 다하면 내가 선 자리가 전부 진실로 통하는 거예요.

또 하나 사리불 존자의 말씀이 있어요. '나는 사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나는 죽는 것을 원하지도 아니한다. 품팔이가 품삯을 기다리듯이 나는 내게 올 인연을 기다릴 뿐이다.' 음미해 볼수록 좋은 말이에요. 사실 인생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모두가 기다리는 존재거든요. 이 시절 인연을 기다림을 아주 멋있게 표현한 말이에요.

**오랫동안 강주를 역임하시고 승가대학원에 재직 중이시면서 평생 교학에 매진 하셨는데 앞으로 원력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획이라면 대학원장직이 아직 일년 반 남았어요. 그때까지는 소임을 살아줘야 하고, 그 후로는 개인적으로 책을 몇 권 낼 생각이예요. 또 원력이라면 불교가 전반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일년에 몇 번씩 모여서 공부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또 연구할 과제가 있으면 같이 공동 연구도 한번 해보고 그런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일단 지금 대학원 3기 스님들을 배출하고 또 다시 4기 스님들을 모집해서 여건이 되면 대학원에 후배들과 같이 공부할 수 있게 연구모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도 책도 몇 권 번역하고

쥘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원 학인스님들에게 경책이나 당부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학인시절이 그래도 제일 어려운 시절이면서도 제일 보람있는 시절입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라 말하고 싶어요. 불편하고 어려운거 참고 견디라 이 말예요. 육바라밀에 인욕바라밀도 있지만 참고 견디는 정신이 사람의 인격을 성숙시켜 주거든요. 그래 이제 학인시절이 중노릇에 가장 보람 있는 때고 가장 중요한 시

기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기성세대 되고 나면 물론 선방에서 정진하고 큰스님도 되고 하는 그런 시절이 있겠지만 역시 학인시절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뭐든지 힘든걸 참고 견디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힘들 때는 자기를 버리라 이거예요. 나를 버리고 살아야 합니다. 나를 버리면 되거든요. 이 무아설이 불교의 특징이잖아요. 힘들고 중요한 시절이니 만큼 나를 버리고 참고 견디어 주기를 바랍니다.





## 사랑의 꾸짖음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어느 날 사리불이 부처님께 문안 드리러 여쭙었다.

“세존이시여, 만약 남의 죄를 들추고자 하면 어떤 법에 의지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남의 죄를 들추고자 하는 사람은 다섯 가지를 알아야 하느니라.

그 죄가 거짓이 아니고 사실이어야 하며,

그 때가 적절해야 하고,

법을 어기지 않고 보탬이 되는 것이어야 하며,

거칠거나 험하지 않고 부드러워야 하며,

미움에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들추어야 한다.

이러한 다섯 가지를 갖추면 남의 죄를 들출 수 있느니라.”

잡아함경 제18:497경:〈2-129중〉

Exhortation 〈A. N, III. p-144〉



응진전應眞殿 나한상羅漢像



# 여우와 지네

글·홍진 | 그림·연옥



한여름 오후 여우가 나무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지네 한 마리가 지나칩니다.

그 지네를 바라보면 여우는  
지네의 모습에 궁금증을 느낍니다.  
“지네야! 넌 어떻게 그렇게 많은  
다리로 한번도 넘어지지 않고  
잘 걸을 수 있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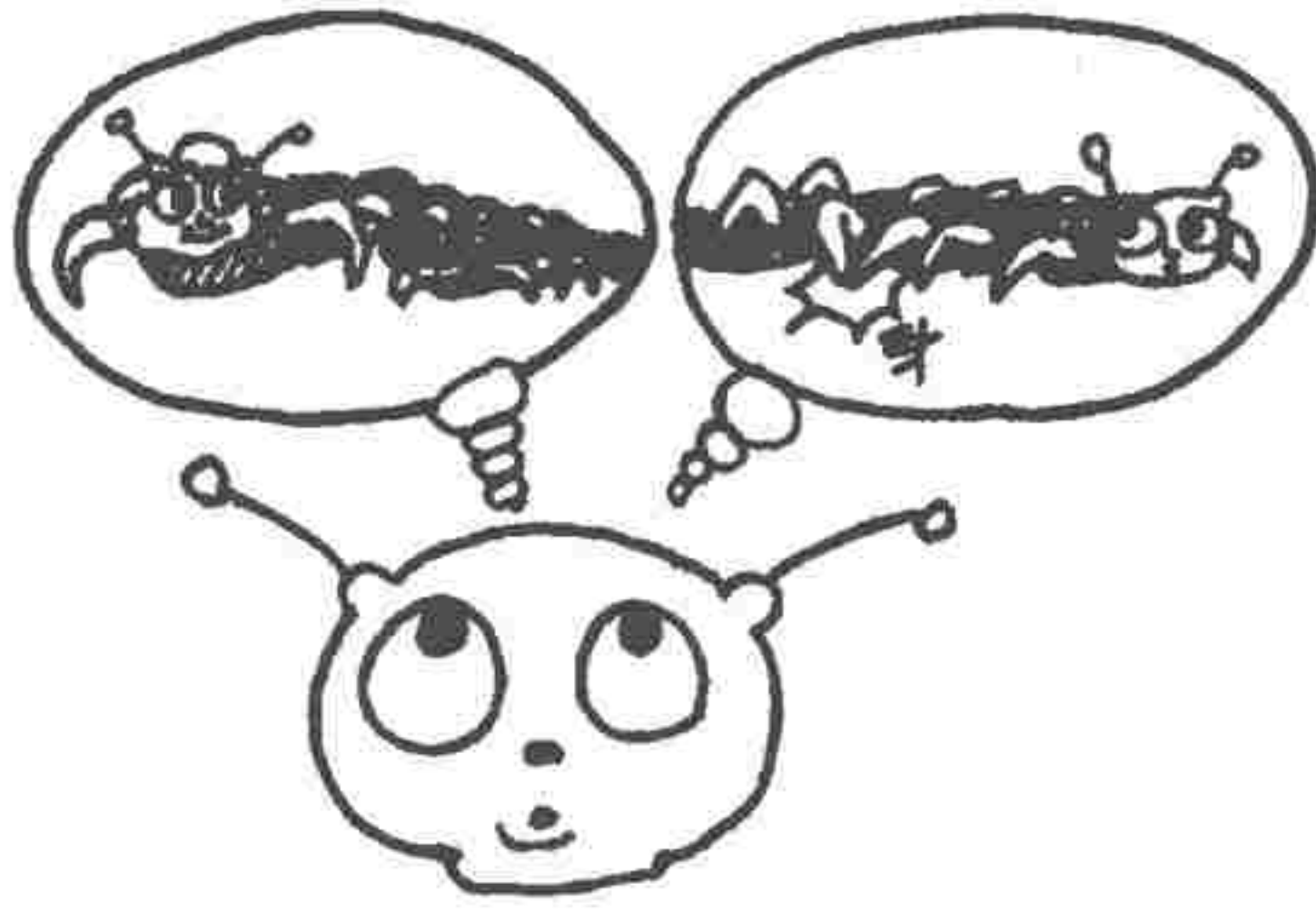


이에 지네는 본능적으로 걸어왔을 뿐  
한 번도 자신에게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곧 지내는 자신의 걸음걸이에 대해  
골똘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생각을 하고  
걷는 걸음은 너무 부자연스러워  
전처럼 제대로 걸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지나친 사고와 알음알이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장애합니다.



## 송광사 松廣寺

불각佛覺 | 치문

송광사 강원에 입방한지가 엇그제 같은데 정신없이 바쁜 생활 속에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조금 후면 하안거 반결 제일이 다가온다. 6~7년 전, 송광사에 도반스님을 만나러 잠시 들렀던 인연이 있었다. 차를 권하면서 송광사 강원에서 같이 공부하자던 스님의 말씀과 차향은 아직도 아련하다. 물론 지금 도반스님은 졸업하고 선방으로 가고 세월은 어느덧 많이 흘렀다. 모든 것이 시와 때가 있다더니 인연이란 게 따로 있는가 보다. 근기가 하열하고 사람이 부족하여 일찍이 공부를 마치지 못하고 늦게나마 경전을 보아야겠다는 생각에 지계가 청정하고 여법하며 공부를 많이 한다는 말을 듣고 송광사 강원에 입방원서를 내게 되었다. 물론 늦은 공부에 부족한 사람에게 방부를 허락한데 대해 대중스님들께 어떻게 감사드려야할 지 모르겠다. 지금까지 짧은 기한이었지만 역시 송광사 스님들의 수행모습은 삼시 예불에 충실하시고 틈나는 대로 율력과 공부를 함께 하는 모습이 훌륭하다.

송광사에 오게 된 계기는 어느 도인의 말씀 때문이었다. 그 분께서 송광사는 '대인이 보살이 되는 곳' 이라고 하시며, 또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는 도량' 이라 하시고는 송광사에 가서 공부하기를 권하셨다. 그동안 살아보니 그 말씀이 이해가 간다. 승보사찰이라 불리는 만큼 많은 국사와 도인이 나시고 또 그 정신이 흐르고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다.

특히 감명 깊은 부분은 보름마다 오는 삭목일 날 저녁예불시에 108배 참회를 드린 후 '신 정혜결사 결의문' 이란 것을 전 대중 스님이 낭독할 때이다. 처음에는 너무나 의외였고 놀라움이었다. 그 이후는 기쁨과 환희심도 느꼈다. 나 자신도 부족하여 부처님 전에 죄업만 짓고 살아가지만 요즈음 승가가 제 모습을 잃어감에 부처님께 부끄럽고, 힘든 세속 속에 살아가며 부처님과 스님을 의지하여 자신들의 영혼을 고통에서 구해주기를 기다리는 불자님들 시주님들께는 면목이 없는 이 흐린 시절에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밝히는 그런 순간 같아서 안도의 한숨이 나온다. 그와 더불어 나 자신도 더욱 더 열심히 정진하여 뜻에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다짐을 해 본다.

나이 드신 부모님께서 부처님 전으로 떠난 자식을 걱정하시고 기다리는 그 모습을 떠올리면서 덧붙여 어느 도인께서 해 주신 말씀이 생각난다. 어느 보살이 중생의 고통을 보고는 부처님께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드리니 응답하시길 "마음이 보이느냐?" 고 하셨다. 그러자 그 보살이 답하시길 "중생의 아픔과 고통이 저의 마음입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자 허공에서 다시 들려오신 말씀이 "장하도다. 장하도다." 라고 칭찬하셨단다. 이 말씀을 생각하니 불보살님과 조사께서는 저희와 항상 같이 하시고자하나 저희 중생들이 비우지 아니하여 통하지 못하는 가 싶다.

인생이 허망하다 하나 출가하여 도를 얻지 못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허망한 일일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젊음과 욕락을 버리고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외로운 고행 길에서 도를 구하고자 삭발하고 가사를 걸치고 불전에 몸을 바친 수행자의 모습일 것이다. 부처님과 보살님과 모든 성현이 출현하심은 고통 받는 세상의 떠도는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지라는 말씀을 되새겨 본다. 송광사와의 인연을 부처님과 대중스님들께 감사드린다. 이 곳 송광사에서 사철 푸른 소나무 같이 부처님을 향한 마음이 변치 않고 끝없는 청정수행으로 도를 성취하시기를... 더 나아가 고통 받는 중생을 구제하고, 꺼지지 않는 불법의 수호자, 원력 보살들께서 많이 출현하시기를 발원하여 봅니다. 스님들, 꼭 성불하시옵소서.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

## 깨어난 꿈의 강당

능인能忍 | 사집

나의 사찰과의 인연은 다른 도반들 보다 일찍 맺어졌다. 강원 입방 전에 사찰 생활을 오랫동안 했었고 그래서인지 강당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모델과 이상향을 가지고 송광사에 들어오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송광사에 들어와 생활 속에서 보니 나의 이상과는 많은 부분 괴리되어 있었다.

즉, 나의 잣대에서 항시 어긋나 있었다. 강당 운영에 효율성이 없어 보였고, 윤리적인 면도 부족해 보였으며 또한 무위도식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었던 부분도 있었다. 그래서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도반들 앞에서 직·간접적으로 이야기 해 보면 항시 오버하는 지나친 생각의 소유자로 힐책 당하곤 했다.

그렇게 치문반을 보내고 사집반에 들어오면서 봄 산철에 반장을 살게 되었다. 정해진 각본이랄까 여하튼 직·간접적인 이유로 투표에 의해 반장이 되고 보니 여간 고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나 자신의 성향이 여성적이고 부드러워서 집단을 대표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울 뿐더러 어떻게 해야 우리 송광사가 보다 더 효율성이 뛰어난 강당, 승가의 모습에 부합되는 강당이 될까 하는 고민이 생긴 것이다. 그래서 윗반 스님들과 도반스님들께 조언을 구했다.

그런데 그내용이 좀 의외였다. '소임자가 되어 뭔가 하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과 하심下心하라'는 것이었다.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하루하루 소임을 보면서 대중의 현실과는 어긋나는 나의 생각과 계획들이 뭔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러면서 고민하고 살펴본 결과, 이제까지의 비효율적인 대중의 운영방식의 이유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즉, 승가는 겉으로 보이는 답답한 모습 뒤에는 그래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다. 그 한 가지가 단조로운 생활이다.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러한 단조로움을 개인의 수행을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수행은 반복의 내적 심화이기 때문이다. 둘째로 승가의 조직이라고 해서 특별한 대중 심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마음에는 승(僧)·속(俗)이 따로 없다는 것이다. 셋째로 스님들의 특성이 두드러진 개성과 고집인데 많은 스님들을 한 집단으로 묶으려면 아주 단순한 끈으로 엮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묶는 힘이 강해지고 돌출 행동을 막을 수 있을 테니까 말이다.

이 밖에도 크고 작은 많은 깨우침들이 나에게 왜 승가의 모습이 이러한지 그리고 이 속에서 내가 개인이 해야 할 바는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나는 내가 잘났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과 묵묵히 살아가는 도반 스님들과 어른 스님들이 정말 선지식이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송광사의 답답함은 내게 '꿈의 강당'으로 변모한 것이다.



# 치문縉門

지월智月 | 치문

비가 조금씩 내리던 찌푸린 늦가을 오후...

구부정한 낯선 길을 따라 일주문을 오르던 때가 엇그제 같다. 어느덧 가을, 겨울, 봄을 지나고서 이젠 새 옷을 갈아입고, 부러운 맘으로 지켜만 봐왔던 강당 생활의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연일 잠과 씨름을 하며 뒷반 스님들의 시선으로 부터 조금은 벗어나고 싶지만 잠깐 숨 돌리고 나면 또 나에게 대한 지적소리가 들린다. 마치 수시로 사이렌 소리가 오고가는 것 같다. 누구나가 그렇듯이 실수도 하고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서툰 모습을 자주 보이는 듯해서 대중스님들께 미안하다. 그리고 의외로 낙천적인 내 모습이 놀랍기도 하다.

승가의 질서는 바깥 세상의 경험들과는 많은 부분들이 달라서 걸음마를 배우듯 신념체계에 완곡한 수술을 가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들이다. 나는 새로운 문화권에 진입했음을 자각한다. 언제나 그랬듯이 다시 시작한 1학년, 첫 안거... 굽이 굽은 안거기간들을 어느 세월에 거쳐나가나 싶지만 이왕지사 보다 절제되고 단박한 모습으로 태어나 모든 분들과 무사히 회향하고 싶다.

언젠가 종고루 앞을 지나다가 어머니 손을 잡고 온 꼬마 아이가 눈에 들어 왔다. 잠시 발걸음 멈추고 한 쪽 볼을 살짝 어루만지며 녀석과 눈길을 마주쳤다. 그 짧은 순간 속에서도 어색함 없이 사랑과 신뢰의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었으니 아마도, 어린아이여서 가능했으리...! 내가 약수를 한 바가지 떠서 먹자 그 꼬맹이가 이내 친구가 된 듯이 반말을 하며 “나도 물주라.” 한다. 물을 주고 나니 또 물을 달라고 한다. 아직은 물맛이 어떠한지도 말하기 서툰 어린 녀석이었지만 우리의 만남은 물 한 바가지가 매개가 되어 서로를 소통 시키고 있었다. 물 마시는 아이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있자니 귀엽고 앙증스러운 얼굴에 저절로 엷은 미소가 입가에 흐른다.

여유부릴 시간이 없어서 무심코 “아저씨는 바빠서 가야겠다.” 하고 입을 떼고서 일어났다.

순간, 나는 놀랐다. “아저씨라!” ‘스님’ 과 ‘아저씨’ 라는 선택의 순간에서 나는 아직 스스로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을 발견한 것이다. 나는 승복 입을 자신을 바라보았고, 누군가 내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닌지 하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 아이의 “아저씨, 어디가!” 하고 목덜미를 잡는 듯한 소리가 곧 뒷전에서 울려왔다.

‘치문縉門’ 이라!

첫 강당생활의 시작인 치문縉門을 유심히 바라보면서 마음 속으로 글자를 파자破字해 보았다.

〈문門에 들어서면 사ᄇ처럼 연결되어 내려 온 승단僧團의 맥脈을 따라 발전田위에 소우牛가 쟁기질 하는 모습〉을 그려 보았다.

아마도 그것은 나의 마음(田)위로 새롭게 단장된 밭고랑이며 앞으로의 날들은 그 텃밭을 기름지게 하려는 시간이라. 사이 좋게 지내고 집에 와서는 부모님께 효도하며 이웃과 사이 좋게 지내며 노래방에 가서는 열심히 춤추며 노래 부르고 여자친구 만날 때는 마음껏 멋을 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 잡상雜想

목우牧牛 | 사집

우리는 제각기 용龍을 한 마리씩 기르고 있다. 힘써 일을 추진할 때 ‘용 쓴다’고 한다. 즉 몸 속의 용龍이 힘을 쓰는 것이다. 용龍의 기운이 넘쳐 난리를 떨면 ‘용천龍天한다’고 하는데 이는 몸 속 용龍이 말 그대로 난리 범석을 펴는 것이다. 이처럼 사람마다 몸 속에는 각양각색의 용龍이 한 마리씩 존재한다. 제대로 된 놈은 용龍, 그러지 못한 놈은 가끔씩 사蛇로 변신하기도 한다.

그들이 모여 살면 어찌 될까?

용龍들이 상충하기도 하고 상응기도 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옛 조사스님들 말씀대로 용시龍蛇가 어우러져 살아가는 것이다. 장작 이야기를 해보자. 전기톱으로 곱게, 반듯반듯하게 잘라서 재어 놓으면 보기에 참 좋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아궁이 속에 넣고 불을 지피면 어지간히 애를 먹을 게 뻔하다. 반면에 도끼로 씨름하며 쪼갠 나무를 보면, 군데군데 튀어 나온 웅이하며, 너털너털 쪼개진 것, 반듯한 것 등이 섞여 있어서 불땀 좋게 타오른다.

승가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싶다. 문법팔난 聞法八難 중에 ‘생존북주生存北洲’라는 게 있다. ‘복이 너무 많아서 불법佛法을 듣지 못한다는 것’인데, 승僧이 모두 다 잘 다듬은 장작 같고 용龍 같다면 마치 북주인 北洲人과 다를 바 없을 것이리라.

오늘날 절집에서 먹물 옷이랍시고 걸치고는 사상四相 외에 중이라는 상相까지 가지고 있는 나 자신은, 혹여 거푸집 속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움마저 있다. 거푸집의 특성상 이를 거쳐 나가는 것은 무엇이나 똑같은 수밖에 없지 않은가? 나의 이런 염려가 승가의 팔미증유법八未曾有法을 오인한 것이기를 간절히 바란다.

즉, 온갖 넷물이 바다로 흘러들지만 나중에는 동일하게 짠맛이 나는 것처럼 승가는 해탈미解脫味라는 동일한 맛을 내는 것. 이 승가가 거푸집이 아니라 바다이길 간절히, 간절히 바란다.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나무 영산회상 불보살



# 지하철에서 만난 예수님

홍진弘盡 | 치문

오랜만에 지하철을 타고 시가지에 나가며 얼마 전 직접 찾아가 본 대구 지하철참사 현장을 기억하고 있었다. 벽에 손가락으로 쓴 글씨들, 마지막 전화 통화 내용들. ‘혼자 살아나와 죄송합니다.’, ‘신부님 지금 제가 죽어가고 있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엄마 미안해. 나 먼저 가서, 다음 세상에 예쁜 엄마 딸로 다시 태어날게.’ 가슴이 메어왔다. 이 갇혀진 공간 안에서 얼마나 두려웠을까? 지옥이 따로 있었으며 그 고통은 얼마나 잔인하였을까?

그러나 나는 그 억울한 희생자들과 더불어 사건을 야기한 중년남성까지도 기억해야 했다. 증오가 아닌 연민으로,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어이없이 앗아간 나쁜 사람이기 이전에 나를 비롯한 우리 사회가 얼마나 그러한 이들을 외면하고 철저히 무시해 왔는지를 스스로 반성하여야 했다.

“여러분, 공작을 아시지요, 그 공작이란 놈은 혼자 있을 때는 날개를 펴지 않지만 주위에 누군가가 나타나면 날개를 펴 화려함을 품 내죠. 인간들도 그렇습니다. 매일 오만함 속에 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순종하세요. 심판의 날이 옵니다.” 다른 쪽 칸에서 넘어 온 한 여성으로 인해 내 기억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지고 있었다.

밤새 기도한 랍비의 기도문이 돌 틈에서 이슬에 젖어드는 새벽의 통곡의 벽, 하루의 인적이 다다르지 않은 침묵 속의 예수님 무덤교회, 일출에 빛나는 황금모스크, 감람산 올리브나무에서 내려다보는 석양, 때 맞춰 사방의 스피커에서 일제히 울려 퍼지는 코란 낭독 소리, 나는 이 예루살렘의 풍경을 너무 사랑한다.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 연수를 받으며 지낸 적이 있다. 신학 교수님이 공간을 개방하여 그 곳에서 나눔의 삶을 체험하였다. 그 감람산 언덕의 식구로는 배낭족의 베테랑으로 알려진 이슬람교의 한 형과 개신교 선교사, 천주교 예비신부님, 교수님 그리고 나까지 다섯이었다. 우리는 이렇듯 다양하면서도 서로를 주장하거나 고집하지 않았다. 종교는 아집과 주장이 아니라 이해와 화합과 공존이었다.

교수님은 성경 원전을 공부하기 위해 유학 오셨고, 인도통 형은 사십 중반이지만 이십대에 짙어 진 배낭을 아직도 내려놓지 않고 있었다. 가끔씩 “이제 한국으로 여행갈 때도 되었지.” 하며 농을 하는 엄청난 역마살이며 비행기를 타지 않고 육로로만 다니는 배낭족의 자존심이다. 예비신부님은 늘 예수님 무덤교회의 새벽 적막 속의 기도를 좋아했고 종교인으로서의 평등한 사랑이 어떤 것임을 몸으로 실천했다. 늦게 나의 출가사실을 알게 된 그는 “연락이 안 되더라니, 어려운 결정했네, 나도 스님이잖아, 서양스님! 형은 한국스님! 근데, 엄청 고생한다던데, 이제 출발이니 갈 길이 아득하네.” “이 놈이!” 그가 이제는 사제품을 받아 정식신부가 되었다. 개신교 선교사 동생은 항상 나를 보면 “형! 머리 깎지? 난 형이 외골수 선방 수좌가 되었으면 좋겠어.” 그는 어떤 고정관념과 틀을 가지지 않았으며 선한 예수님의 백성이었고 태권도 강습으로 학비를 마련하는 된장냄새 물씬 나는 한국인이었다. 그의 여자친구는 애국가를 1절에서 4절까지 외우는 금발의 영국인이었고 한국을 빨리 가보고 싶다고 늘 말하던 그녀, 그런 그녀가 이후 한국을 다녀갔고 송광사 후원에서도 산나물을 다듬으며 여름 수련회 자원봉사를 했다.

‘모든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지식에도 메이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소유하지 말아야 하며, 모든 것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떤 것도 되지 않아야 한다. 모든 것에서 모든 것으로 가려면 모든 것을 떠나 모든 것에게로 가야 한다.' 그가 즐겨 외우던 잠언시집의 일부이다.

중동국가들을 돌아 다시 아스팔트의 숨 막히는 열기 속에서 머리와 숫자로만 사람을 만나는 생활로 돌아왔다. 물질을 취하기 위해 온갖 권모술수가 동원되는 철저한 적자생존適者生存의 사회, 높은 인구밀도와 자살률, 정신병 환자들, 이들은 홍콩의 그 화려한 야경의 이면이다. 우리는 왜 공존하지 못하는 것일까? 한 쪽에서는 지나치게 쌓아두고 다른 편에서는 결핍으로 쓰러지는, 법정스님의 법문내용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늘 궁핍을 느끼며 나눌 줄 모르고 쌓아두는 마음, 그 마음이 공허하고 빈곤한 것이지 물질자체가 아니다.' 라고. 인디언의 사냥법이 있다. 꼭 그들이 필요한 만큼만 목숨을 취하고 죽은 영혼을 위해 주문을 외어준다. 물질과 욕락은 소금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욱 갈증이 이는 것이다.

계절변화를 코끝으로 느낄 즈음 난 일상을 정리했다. 최종 목적지를 형이 있는 인도 다람살라로 정하고, 육로로 길을 잡았다. 형은 인도에서의 오랜 떠돌이 생활을 마감하고 정착하기 위해 한국 식당을 열어 놓고 있었다. 간판이 없어 어렵게 찾은 '아홉 언덕 산도깨비' 소위 무허가 한국 식당이었다. 낮잠을 자고 있던 그는 한 쪽 눈만 게슴츠레 뜨며 "어 왔어." 하며 천연스레 나를 맞이했다. "배고프지 얼른 씻고 내려와. 밥 먹자." 스님될 거라고 했더니 "인도여행하고 머리 깎는 사람들 많지. 머리 깎을 사람은 나이 육십이 되어도 깎는다더라." 내려오는 길에 우리만의 이슬람 인사법으로 인사했다. "다음 생생에서 다시 만나자."

얼굴에 따가운 시선이 와 닿는다. 맹신의 그녀가 내 앞에 섰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맹신의 성경 구절을 받아 외우며 히브리어의 한 부분도 덧붙였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מוֹמֹר לְרוּחַ לְרַצִּי לֹא-לֹאד יָמַי.) 야크베 야크샤 알레리 알렐루." 교수님이 늘 외우시던 구약시편의 일부여서 기억하였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대의 죄를 씻어줄 수 없고, 그대의 고통을 덜어줄 수도 없으며, 그대를 대신하여 깨쳐줄 수도 없으니, 오직 진리만이 그대를 해탈케 할 것입니다. 부디 마음속의 부처님 보아 성불하십시오. 그대가 바로 부처님입니다." 난 허리 깊이 숙여 합장 저두低頭했고, 지하철 안은 무심한 철로의 레일 소리 만이 흘렀다.

오늘도 예불을 올리며 옆쪽에서 가만히 눈물을 훔치고 있는 재가신도들을 보며 나태해진 마음을 다진다. 아직 거친 면들이 많고 가야할 길은 멀다.

난 희망한다. 다른 모든 종교가 사라지고 오직 불교만이 성한 곳이 아닌, 철저한 약육강식의 논리에 의해서 사자만이 존재하는 곳도 아니고, 편협한 시각의 사슴만이 존재하는 세상도 아닌, 사자와 사슴이, 나와 다른 모든 것들이 조화와 균형 속에 공존하는 곳, 불교마저도 종교라는 터울을 벗어버리는 진정한 불국토佛國土를...



## 상생죽필문想生竹筆文5

도해度海 | 대교

높고 평탄한 곳에 올라서서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 바다인지 구름인지를 헛갈리게 하는 곳. 우리들은 그 곳을 해운대라고 부른다. 아마 서 있는 위치는 지금의 달맞이 고개쯤 될까? 옛날에는 바닷물이 육지보다 훨씬 더 올라왔었다고 하니 지금의 땅들은 웬만큼 잠겼을 것이라!

'부시맨'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생각난다. 부시맨이 저주(?)의 콜라병을 없애기 위해 부족을 대표해서 여행을 떠난다. 결국 찾은 곳이 백척百尺의 절벽이다. 서 있는 발밑으로 끝없이 운해雲海가 펼쳐지고 그 절벽에서 비로소 콜라병을 밑으로 던져 없애버리는데 이 마지막 장면이 해운대의 풍경과 상응이 될런지??.....

해질녘!

이 곳을 배를 타고 들어오다 보면, 막 피기 시작하는 연꽃 봉오리 같이 보이는 산이 있었다. 게다가 바다에 비친 석양에 반사되어 그 산은 마침 온통 황금빛으로 물들여져 있는데 우리들은 그 산을 금연산金蓮山이라고 부른다.

본래 연꽃은 바닷물에서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엄청난 황금빛의 연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아주 큰 연못을 필요로 한다. 땅을 팔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부러 홍수를 내어 잠기게 할 수도 없고 그러나 공교롭게도 이 금연산金蓮山 옆에는 대연大淵이라는 동네가 있다. 대연大淵이 얼마나 컸던지 골짜기까지 생겼다. 못 골. 지금은 그곳에 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다. 이젠 땅을 팔 필요도 홍수를 낼 필요도 없다. 이것만으로 연꽃을 피우기는 충분하다.

연못과 바다. 웬지 부족한 듯하고 재미가 없다. 차츰차츰 넓어지는 세계를 펼치기 위해서는 무언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할 것 같다.

용龍이란 동물은 전설상의 영물靈物이다. 그 유래는 이렇다.

중국에는 황하黃河라는 강이 있다. 상류는 어느 다른 강들과 별반別般차이는 없지만 하류에 와서 물이 나가고 들 때는 비로소 그 위용을 드러낸다. 그 위용은 자연에 대한 감상은 아닌 것 같다. 집채만한 아니 빌딩 보다 높은 살살이 주위를 아랑곳하지 않고 다투듯 바다로 빠지고 다시 들어오고 하는 모습을 언젠가 TV에서 본 적이 있다. 얼마나 대단했으면 바다에서나 봄직한 그러한 파도나 물살이 강에서 일어날까?

중국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의 힘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을까?

자연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분명 바다 안에 그러한 물살을 쭈욱 삼켰다가 쭈욱 내뿜고 하는 초자연적이고 엄청난 그 무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용龍이라는 신령스럽고 엄청난 대상을 창조한다. 용포龍袍, 용안容顏, 황용黃龍, 용상龍象 등 그러한 용들이 노니는 호수라면 금연金蓮을 품고 있는 대연大淵을 충분히 안을 수가 있을 것이다. 바로 용호龍湖라는 동네이다. 항간에는 용호동은 그냥 좋기만 좋은 용과 호랑이가 사는



---

곳이라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지만 왠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그러면 금연金蓮에서 대연大淵으로 다시 용호龍湖, 해운海雲으로 차츰 넓어지는 이 광활한 세상을 굽어 살펴 주시는 분이 계신다.

석가세존釋迦世尊.

그 황금빛 연꽃 봉오리 속에 세존께서 계신다.

꽃망울을 아직 틔우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 대자대비 하옵신 세존께서 바라보시는 그러한 세상은 얼마나 평안할까?

그 평안함이 한량없음을 우리는 대大! 방方! 광廣!이라 하고 우린 그걸 줄여서 광안廣安이라고 부르고 그러한 세상에 광안리 앞바다가 향수해香水海처럼 펼쳐진다.

그러한 세상이라면 중생들도 백성들도 편안할 것이고,

그러한 세상이라면 바로 안락한 극락세계일 것이다.

부산에는 민락동民樂洞도 있고 안락동安樂洞도 있다.

금연金蓮이 활짝 펴서 그 속의 세존께서 나투시는 날.

바로 비로자나毘盧遮那 법신불法身佛의 광명이 대연大淵으로 용호龍湖로 해운대海雲臺로 부터 시작해서 이 지방법계에 비출 것이다. 이 세계가 요즈음 배우는 향수해의 화장세계일까?

아직 시절인연이 닿지 않아 봉오리를 피우지 않은 채 금연산金蓮山 한 쪽에 세존께서 머물러 계신다. 우리는 그 곳을 세존사世尊寺라고 부른다. 이 곳은 얼마 전 우리 은사스님께서 개원하신 절이다. 크크?

언제 이 황금빛 연꽃을 피워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더 일깨워 주실까?

이 이야기는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사正史가 아니고 어느 한 사람이 연기적緣起的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일 뿐. 한갓 동네 이름들도 단순히 그냥 쓰인 것이 아니라 서로서로 인연이 되어 그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들 인간들이랴?

두꺼비가 모처럼 나왔는데... 우짜지? 어제 내린 비로 날파리들은 나오지를 않았네!



---

# 너머, 송광사 너머

효산曉山 | 대교

## 1

인애원 범우님들이 송광사에 나들이 왔다. 맨드라미 같은 체크무늬의 모자를 쓰고 운동복이나 몸빼 차림의 외출복으로 왔다. 바람은 솔솔 불고 하늘은 높은 이상스레 시원한 여름의 나무그늘이다.

“아기 있어요.” 물론 아기는 없다. “아기 났어.” 나는 스님입니다. 물론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하는 얘기다. 저는 얘기 못나요. 그래도 몇 분 후면 “애기 봤어.” 참 어색하다. 그래도 웃음은 절대 안나온다. 애기 얘기 부르짖는 사연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 그 모든 것들이 이가 하나도 맞지 않고 말도 되지 않는다. 근데도 마음은 참 시원해져서 마치 들판에 가득 핀 개망초 꽃밭, 그 바람이다. 그 고개를 넘으면 내 익히 들어온 이상한 나라... 정말 이상한 나라다!

이 나라에서는 ‘애기’ 범우님과 팔짱을 끼고 마주 오는 스님께 같이 인사를 하여도 된다. 마음만 내킨다면 스님들께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조르면 그 자리에서 사주기도 한다. 꽃반지와 꽃목걸이를 만들어 스님의 목과 손가락에 걸어주어도 된다. 다른 스님들은 언약식이었다고 안타깝다고 그만 내려가라고 하였지만 이 나라에서는 한 남녀가 서로 꽃반지를 주고 받는 것은 아무 꺼리낄 것이 없는 일이다. 굳이 사랑이라고 갖다 붙이지 않아도 주고받는 그 순간이 아름답고 행복하였다. 그 분들이 사는 인애원으로 나를 비롯한 대교반 스님들이 보름마다 한 번씩 먹을 것을 마음껏 안고 범회를 간다. 그러면 그 분들은 우리들에게 우리와 같은 박수를 준다. 그리고 반갑다고 인애원 대문에서 부터 손을 흔들며 달려오는 소년도 있다. 그저 말 안하고 싱긋 웃기만 하는데도 한 일 년 지나니 그 웃음을 보기만 해도 나는 녹아버린다. 해가 뜬 얼음나라 같이 봄바람 부는 겨울들판과 같이... 하하.... 늘어놓자면 오늘도 배운 화엄경이다. 보여주려 줄이고 줄인다면 절 구경 마치고 탑전 마루에서 수박 먹으며 보던 하늘이다. ‘어찌 똑같은 하늘이 오늘은 이리 달라 보이냐, 저리 기분도 좋게 보이냐, 차말로 차말로...?’ 그런 물음표다.

굳이 사족을 단다면 인애원 범우님들의 송광사 나들이가 있는 다음 범회 때 내가 했던 인사말이다. “있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저희들 오면 그렇게 좋으라 박수를 치는 이유를 알았어요. 송광사에서 여러분 때문에 정말 기분 좋았어요. 정말 반기웠어요. 하늘도 더 푸르고 바람은 더욱 시원했어요.” ... 하하 박수였다. 그들도 고맙고 우리도 고마운 이유를 안 그 순간 모두 진심의 박수였다.

## 2

눈 감으면 흰하다. 밥 숟가락은 몇 개고 젓가락은 몇 짝이다. 어떤 곳은 참 보기 좋지만 다른 쪽은 그렇지 않다. 조금은 밝고 그 너머 조금은 어두운 그 길을 안다. 한 4년 같이 살다보니 그렇다. 굳이 정리되지 않은 어두운 서



---

랍속의 잡다한 허물들은 들춰볼 필요는 없다. 도둑놈이라 손가락질 할 것이다. 애구 애구 지 앞가림도 못하니 남의 허물이나 손대지... 쫓쫓.

이제 다른 길을 가야 한다니 어찌 이리 아득해지누...

애구 다각 힘들어라 투정부리고 나면 큰방스님들이 말없이 이부자리를 펴놓는 이치요.

3만원치 강냉이 반에 보시하고 큰소리치고 나니 말없이 익명의 스님이.... 참.... 아득해진다.

### 3

그렇게 밟던 윗반 스님들이 선방에 다시 왔다. 반갑다. 대웅보전 앞 뜰 저기 오신다.

그리도 밟던 그 스님. 내가 40도 숙이니 그 스님 90도 숙인다... 그래서 한 번 더 했다. 하하

### 4

송광사에서 달맞이꽃을 처음 보았다.

송광사에서 대숲의 바람소리 처음 들었다.

송광사에서 석류나무와 수선화, 도라지꽃과 더덕냄새, 오디와 간지럼나무와 상사초와 참나무와 물푸레나무와 멧돼지 발자국과 노루.... 생전 처음 보았다.

처음 본 그 친구들 다시 만나면 희미하게 송광사... 흐뭇하게도 떠올릴 것 같은 마음속에서 씩씩히 느껴지는 그 무엇. 아직도 무언가 말로도 끄집어 낼 수 없는 그 무엇. 번뇌인 줄은 익히도 4년 동안 절절히도 알았지만 정情有 달은 뿌리라 쉽게도 쉽게도 다시 손을 내밀어버린 그 무엇에 이름을 달 수 있기를... 그 무엇으로 인해 우리가 모두 분노했던 그 순간에 잊지 않을 이름을 달 수 있기를... 그 무엇으로 인해 내가 멀리하고 좋아하며 분별했던 그 순간에... 그 분별로 인해 상처받고 마음을 다시 닫은 모두에게... 잊지 않을 이름을 달 수 있기를... 번뇌라 이름해도 달아나지 않는다면 몸이라 이름 달고 부서져라 절이라도 해보기를... 그래도 그래도 다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라 사람이라 몸받은 번뇌의 덩어리라 그렇다고 한 천년 한 만년의 한恨 서린 눈으로 '이름' 불러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눈감지 않는 바다처럼 짓물러 눈물로 이룬 대양처럼 부릅떠보기를... 하하



# 전국승가학인연합 학술대회를 다녀와서

지난 7월 11일~12일 중앙승가대학교에서 전국승가학인연합(이하 전승련)의 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범불교적 학술토론회인 전승련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지상 중계한다.



전승련 학술대회를 마치고

## ■ 전승련 학술대회 개회

지루한 장마구름이 잠시 주춤한 사이로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다. 녹음이 짙어가는 7월의 김포학사에는 버스에서 내린 학인스님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장시간 이동으로 인한 피로가 역력하지만 본관에서 대회 접수를 마치고 대강당으로 모여 드는 각 지역 학인 스님들의 눈빛만은 살아 있다.

오후 1시 중앙승가대학교 대강당에는 전국 20여 개의 강원과 승가대학에서 모인 500여 명의 학인스님들

및 사부대중의 인파로 인하여 입추의 여지가 없었다. 오석스님(전승련 수석부의장, 해인사 강원)의 사회로 진행된 개회식에서는 식순에 따라 사부대중의 삼귀의례와 반야심경 봉독을 마치고 각산스님(전승련의장, 해인사 강원)의 개회선언 및 인사말을 시작으로 하여 종범큰스님(중앙승가대학교 총장)의 환영사와 총무원장 법장큰스님과 종회의장 지하큰스님의 치사와 격려사가 이어졌으며 손학규 경기도 지사의 축사와 사홍서원을 끝으로 식을 마쳤다.



이날 개회식에는 각계의 원로중진스님들 및 강주 강사 스님들의 대거 참석으로 인하여 어른 스님들의 학인스님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 그리고 학술대회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계의 저명한 학자와 교수 및 언론인을 비롯하여 손학규 경기도지사, 유정복 김포시장 등의 지역인사도 참석하여 전승련 학술대회를 명실상부한 범불교적 학술 토론회로서 자리매김하는 자리가 되었다.



무여 큰스님은 경전공부를 기초로 하여 불교적인 인격과 도덕을 탁마한 기초 위에 발보리심을 일으켜서 화두를 참구할 것을 강조하고 수행과 교화활동은 선수행의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야 정법에서 벗어나지 않음을 밝혔다. 정련 큰스님은 포교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를 바탕으로 사찰포교의 단계적 과정과 지역포교의 활성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학인스님들에게 시대변화에 맞는 새로운 불교적 리더십을 이끌어 갈 것을 피력했다.

비교적 자유스럽고 진지한 분위기에서 열린 공동주제발표를 통하여 원로중진스님들의 학인스님들에 대



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승가공동체를 이끌어갈 내일의 주역으로서의 기대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분과별 자유 주제 발표

대강당에서 자리를 옮겨 본관에서의 기념촬영을 마친 후 다음으로 진행된 분과별 주제발표 시간에는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장소를 지혜관으로 옮겨서 주제별 분과토론이 이루어졌다.

제1분과는 '승가교육에 나타난 한국불교'를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강원도의 교육이념과 교과 과정에 대한 검토, 아함경과 사분율을 중심으로 한 불설에 나타난 승가교육의 이념과 방향, 강원교육에 대한 학인의 인식과 기본교육의 개선 방향, 강원교과의 수행적 이해, 승가교육의 현대화와 체계화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가 있는 후 이어 승가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현 강원교육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질의응답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제2분과는 '강원교육과 수행환경'을 주제로 하여 수행공동체의 측면에서 바라본 전통 강원의 가치와 가능성, 수행환경의 문제와 교육체계에 관한 승가내의 다양한 견해와 입장, 설문을 통한 학인스님들의 대중 생활과 교과과정에 대한 의식, 부족한 계율 인식을 바탕으로 한 강원생활의 문제점 등을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불교의 사회참여'를 주제로 한 제3분과에서는 새만금 반대의 3보 1배로 승가와 사회참여에 대한 지평을 새롭게 마련한 수경스님의 환경과 민족화합을 위한





수행과 원력에 대한 발표를 필두로 불교에서 바라본 강대국 중심의 전쟁과 인권의 논리에 대한 허구성과 불교도의 인권에 대한 인식재고, 개인의 수행을 통한 사회참여와 사회개혁, 불합리한 학인의 지위 및 신분 에 대한 문제제기, 햇볕정책에 대한 이타행적인 고찰, 불교의 사회참여와 단체 운동에 대한 문제와 방향, 승려의 사회 참여에 대한 방법과 새로운 대안의 모색이라는 내용으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추미애 국회의원과 공종원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하여 재가 및 사회일원의 관심과 시각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날의 각 분과토론에서는 각 분야 중진 스님들의 사회를 중심으로 하여 일선 강원 및 교육기관의 강사스님과 교수진 그리고 각계에서 활동 중인 교수, 학자, 언론인,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인스님들이 참여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토론의 장이 마련되었으며, 그 뜨거운 열기는 더 이상 학인스님들이 단순한 피교육자가 아니라 승가교육의 주체자로서의 역량을 지니고 있음을 입증하는 좋은 계기였다.

특히 3시간이 넘게 진행된 제1분과 토론의 말미에서 종범스님(중앙승가대 총장)은 참석자들의 승가교육에 대한 깊은 열의를 치하하고 기본교육의 관점 안에서 강원과 승가교육을 바라볼 것과 지나친 논리와 사변 중심의 현대 교육에 경도되어 수행자로서의 신심과 원력을 도외시 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변화하는 현대 사회 속에서 바람직한 승가교육의 방향을 진지하게 모색하고 학인의 논문제출과 강주 강

사스님 등 저명학자와 현장의 수행 높은 스님을 초빙하여 생동감 있는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학술교류는 물론 학인의 향후 진로 선택과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에서 개최되는 전승련 학술대회는 오후의 분과별 주제발표를 끝으로 하여 그 열기가 정점에 달했다. 저녁 시간의 다과회에서는 참다운 승가학인공동체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각 강원 및 승가대 학인 스님들의 화합과 신뢰의 대화 마당이 펼쳐졌으며 다음 날 오전의 학술대회 총회와 폐회식을 일정으로 불기 2547년 전승련 학술대회는 회향의 막을 내렸다.

### ■ 전승련 의장과의 인터뷰

다음은 전승련 의장 각산스님(해인사강원 대교과)과의 인터뷰 내용이다.

작년의 전강련에 이어서는 두 번째이고 전강련의 승격 단체인 전승련으로는 첫 번째로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학술대회 개최의 취지와 목적에 대하여 한 말씀 해주십시오.

불교학술대회의 취지라면 이번 자료집 서두에 자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현재 승가학인스님들의 전통강원의 교육방식과 동국대, 중앙승가대를 비롯한 현대식 교육이 서로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인스님들의 교육에 있어서 수행환경에 대한 학인스님들의 의견과 종단의 시각의 차이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인들의 애로점이 전달되고 서로간의 의사소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적으로는 동국대, 중앙승가대, 전통강원의 의사소통과 정서교류 그리고 외부적으로 교육원을 중심으로 한 어른스님들과의 시각차를 서로 이해하고 정서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가장 큰 사업으로 상반기의 학술대회와 하반기의 체육대회 개최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학인스님들의 회비납부를 의무화 했는데요 앞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은 무엇입니까.

사업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내용은 전승련 정관에 나



타나 있습니다만 기존의 사업은 수행환경보호 등 학술대회와 학인대회를 중심으로 친선교류를 하는 것이 가장 큰 중심사업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일 첫 번째 순위가 수행환경의 보호와 불교가 침해를 받을 때, 두 번째가 교육환경의 개선, 세 번째가 학인스님의 신분 보장 및 대변, 마지막으로 학인대회 및 학술대회의 개최였습니다.

현재 전승련이 학인공통체로서의 위상을 가지고는 있지만 위에서 말씀하신 호법활동, 수행환경보호 등의 경우에는 전승련의 인원구성이 기본교육기관에 재학중인 스님들을 위주로 하고 있어서 활동에 대한 원천적인 애로사항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시각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절인연으로 보고 싶어

요. 학인스님들의 다양한 입장과 견해를 소통시키고 대중에게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데 피교육자의 신분으로서 대중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렴할 것인가 하는 점이 난제입니다. 현재로서는 대중의 의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시절 인연에 맡기자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활동하시는데 대한 학인스님들에 관한 당부와 부탁말씀 있으신지요.**

무엇보다도 학인스님들의 동참의식이 있어야 겠습니다. 동참의식이 너무 떨어집니다.

집행부가 노력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출가자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전승련을 학인기구로서 얼마만큼 애정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이끌어 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 출가出家

연옥鍊玉 | 치문

시간은 유유히 흐르고 흘러 어느덧 하안거의 반이다. 어떻게 왔는지도 모르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 출가라는 이름으로 세간을 버리고 일단 삭발하고 옷부터 갈아입었다. 처음엔 삭발한 내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일주일, 아니 거의 한 달을 거울을 보지 못했다. 어느 날 “행자님 두상이 좋네요.”라는 모 스님의 말을 듣고 그때야 비로소 슬그머니 거울을 들여다 볼 만큼 출가라는 것은 내게 전혀 다른 세상이었다.

10년 전인 것 같다. 서점에서 시간 때우기를 잘하던 나는 그 날도 시간이 어중간해서 서점에서 책을 고르는 척 하며 한 시간 정도 있었다. 그러다가 본 얇고, 보통 책보다 작은, 디자인도 좋지 않은 책 한 권. 청담스님의 『마음』이라는 책이었다. 아무 생각 없이 첫 장을 읽기 시작했다. 불교 문화권에 살면서 ‘인연’ ‘전생’ 등 많은 불교와 연관된 말을 쓰고, 또 절에도 놀러 다녔지만, 정작 불교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다.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읽어 내려가는데 서서히 그 내용에 젖어 들기 시작했다. 그 자리에서 책의 반을 보고는 결국 책을 사서 집에 돌아와서 몇 번을 읽었다. 지금까지 내가 의심해 오던 것들에 대한 답이 보이기 시작했다. 세상을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았고, 가슴 속이 후련했다. 마치 숨통이 트이는 듯 했다.

그리고는 출가에 대해 생각을 해 봤다. 결심을 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잠도 많고, 인내력도 부족하고, 배고픈 것도 못 참고, 그렇다고 공부를 썩 잘하던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수행자로서 갖추어야 할 것이라곤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부모님 제사는 누가 지내나?’ ‘대는 이어야 할 텐데’ 등등 별 생각이 다 들었다. 무엇보다도 걱정이 되는 것이 내가 진정 다시 환속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다. 그 ‘마음’ 하나 믿고 출가 하기란 그리 쉽지 않았다. 몇 날 며칠 몇 달을 고민했다. 그리고는 ‘단 하루라도 들어갔다 오자.’ 하며 결심을 단단히 잡아매었다. 하지만 인연이 닿질 못해 ‘출가’라는 것을 까맣게 잊은 채 9년이라는 바쁘디 바쁜 시간을 보냈다.

조계산을 덮고 있는 새까만 먹구름은 계속 비를 뿌려 댔다. 하늘에서 그냥 물을 쏟아 부는 것 같았다. 우산의 보호 영역에서 벗어난 발에서 부터 무릎까지는 비에 흠뻑 젖어 있었다. 그렇지 않아도 무거운 발걸음은 빗물에 젖어서 더더욱 떨어지질 않고 걸음걸음에 온갖 상념들이 하나씩 들고 일어났다. 집을 떠나 올 때는 그래도 씩씩하게 나왔건만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망념들은 견잡을 수가 없었다. 출가 전에 자주 들었던 정태춘의 ‘탁발승의 새벽노래’라는 노래가 떠올랐다. 그 노래를 속으로 뇌이며, 빗방울 사이로 청옥 같은 푸르른 산과 나무들을 보며, 속가의 인연과 상념들을 하나씩 떨어냈다.

드디어 일주문인가? 승僧과 속俗이 나뉘어지는 문이라던가? 이제 들어가면 일주문 밖으로 못나올 것만 같았다. 예전엔 그렇게도 쉽게 드나들던 절집의 일주문이 왜 그렇게도 들어가기



가 어려웠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항상 그랬다. 뭐든지 한 순간 눈 딱 감고 행동에 옮기면 그렇게 쉬운 것이 없는데 망설이는 시간이 너무 길었다.)

일주문을 들어서서 우화각 다리 위에 앉았다. 다리 밑으로 흐르는 물줄기는 거침이 없었다. 다리 위에 앉아 몇 시간 동안 마지막 정리를 했다. 흐르는 물 위에 속가의 모든 인연과 과거와 출가 전에 가졌던 꿈, 욕망 등등 모든 것들을 띄워 놓았다. 물 위에 떠서 물과 함께 저 아래 폭포 밑으로 산산이 부서지며 떨어졌다. 다시는 내 상념 속에,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기를 소원했다. 주위에 어둠이 쌓이고, 빛소리는 물소리에 섞여 들어갔다.

이튿날, 원주실 앞. '원주실'이란 글자만 닳도록 쳐다보며 망설이고 있었다. 용기가 나질 않았다. 객실과 마루를 오가며 앉았다 일어났다, 또 마당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마루에 걸터 앉았다.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행자님들 일이나 돕자, 일단은 그거 하고 나서 얘기하자.'라고 생각하고는 재에 올릴 과일을 날라다 주고는 다시 마루로 왔다. 그러나 마음 상태는 조금 전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생각만 더 났다.

원주실에서 젊고 잘 생기신 스님 한 분이 나왔다 들어가시는 것이 보였다. 나도 모르게 따라 들어가서는 삼배를 한다는 것이 젊으신 스님들은 삼배를 잘 받지 않으실 거란 생각에 삼배를 사양할거라 미리 짐작 하고는 넋죽 일배만 하고 꿇어앉았다. 그리고는

“저...추...출가.....”

하는데,

“출가하러 오셨나요?”

하시는 것이다.

“네.”

두근거리던 가슴이 내려앉으며 한 마디 제대로 대답했다.

“환희심을 내셨군요? 출가 하면 좋습니다.”

하시며 웃으셨다.

출가를 결심하던 때의 걱정, 비 오는 우화각에서의 장고長考, 원주실 앞에서의 망설임 등의 시간에 비해 너무도 짧은 시간에 출가의 문이 열렸다. 원주실을 나오니 무섭게 오던 비가 어느덧 맑게 개이고 햇볕이 젖은 땅 위에 다시 뜨겁게 내리 쬐고 있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하루하루 바쁘기만 했던 행자시절은 너무도 빨리 지나갔다. 이제 승복을 입고, 강당에서 하안거라는 첫 안거를 어른스님들 시봉하며, 운력, 습의, 공부하며 행자 때만 큼이나 바쁘게 보내고 있다. 도반스님들도 이제 제법 되고, 강당 생활도 익숙해지고 있다. 불교를 제대로 몰랐을 때 보았던 그 『마음』. 제대로 보지도 못한 마음자리 하나 챙기면 출가 잘했다고 할지 모르겠다.

한 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강당생활. 긴장을 놓는 순간 아차 실수하면 바로 참회로 이어진다. 이제 하안거 반이 남았다. 하루하루에 충실하다 보면 시간은 갈 것이다. 쓸모없다고 아무도 베어 가지도 않고 캐가지도 않은 나무가 산에 남아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모 스님은 행자 때부터 나만 보면 항상 말씀하셨다.(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속상하는 얘기다.)

나는 오늘 그렇게, 숲 속의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조용히 출가의 의미를 되짚어 본다.



# 메기의 추억

인법印法 | 사집

새 울음소리에 산山이 더욱 더 그윽한 이 밤. 이른 초여름날 저 하늘에 떠있는 별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과연 무엇일까? 반짝 반짝 빛을 내다가 여기 저기 숲 속 사이에서 춤추듯 너울너울 나에게 다가온다. 반딧불이다. 말없이 바라보고 있으니 불현듯 옛 추억이 뇌리를 스쳐간다.

어린시절 나는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 별들도 많고, 이쪽저쪽 뿡뿡대며 물어대는 모기도 많은 초여름날 밤. 아버지께서는 술기운이 곤드레만드레 취醉하시던 여름날 밤이면 꼭 한 가지 하시던 일이 있었다. 오래 전부터 입때 묻은 하모니카 하나를 꺼내 머리가 닿을 듯한 축 쳐진 모기장 아래서 담배 한 개비를 피우시고는 지그시 눈을 감으며 하모니카를 입에 무시던 모습... “~~♪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 같이 앉아서 놀던 곳 ~~♪” 메기의 추억이라는 노래를 한 곡조 연주하시면 저절로 나도 모르게 가냘픈 목소리로 정겹게 따라 불렀던 한 여름 밤의 모기장 콘서트! 여기 저기 귀찮게 뿡뿡대며 돌아다니는 모기며, 나방은 그날 밤 청請하지 않은 벼이 되어 주곤 했던 생각이 났다. 잠시 코끝이 찡해진다. 사집반에 올라와서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과 숲 속에서 반짝이는 반딧불을 볼 수 있는 여유만으로도 그 날 하루의 피곤함을 행복으로 돌릴 수 있어서 좋았다. 환경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바깥 세상보다 이렇듯 청정한 자연 속에서만 서식할 수 있는 반딧불을 보며, 아름다워 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먹물 옷 입고 사는 것을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담장 운력이며, 발치기 운력이며, 모기장 운력이며, 운력 많기로 소문난 송광사의 밤은 풀벌레 울음소리에 더욱 그윽해져 간다.

술에 곤드레만드레 취醉하신 채 하모니카를 연주하시던 아버지의 모습. 밍지 않은 모습으로 오랫동안 내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술이 취醉하셔도 밍지 않던 당신께, 이젠 머리 깎고 출가出家한 몸이니 어찌 세속적인 노래를 생각하라. 강원에 들어와서 노래처럼 부르던 선시禪詩 몇 구절이 생각난다. 한 곡조를 바치며...

죽밀하방류수과竹密何妨流水過며  
산고기애백운비山高豈碍白雲飛리요  
지파일지무공적只把一枝無孔笛하야  
위군취송태평가爲君吹送太平歌리라  
대나무 숲 아무리 뻑뻑하다 하여도 저 흘러가는 물을 어찌 방해할 것이며  
산이 아무리 높다한들 구름 날라 가는 것을 어찌 방해하리오.  
다만, 한 줄기 구멍 없는 마음의 피리를 가져서  
그대를 위해 태평가를 불러 보내리라.



詩가 있는 풍경

## 일일시호일日日是好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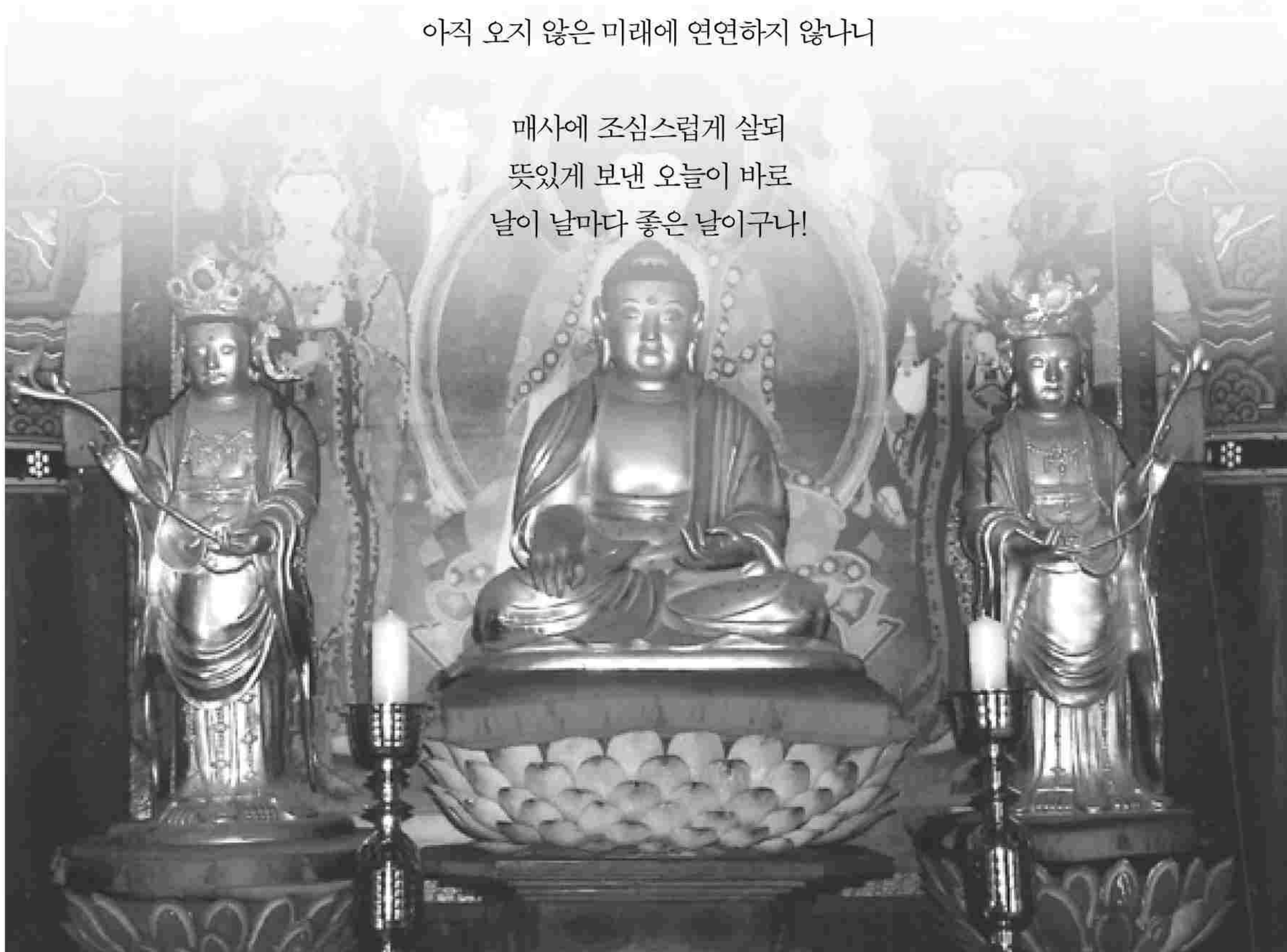
혜명慧明 | 치문

어제는 한갓 꿈이요  
내일은 환상일 뿐

뜻있게 보낸 하루는  
모든 어제가 행복한 꿈이요  
모든 내일이 희망과 기쁨이다.

지금 여기 있는 현재를 보는  
현명한 자는  
이미 지난 일을 따라 쫓지 않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연연하지 않나니

매사에 조심스럽게 살되  
뜻있게 보낸 오늘이 바로  
날이 날마다 좋은 날이구나!





## 한경閑景

적문寂聞 | 치문

먼 산 청송은 벽옥 빛 더해 가고  
흰 구름 무심히 흘러  
한가한 산새 서풍에 날개 싣고  
나는 묵묵히 걷는다.

다리 아래 계곡물 티없이 맑고  
청산은 잔물결에 흔들리고  
한적한 물고기 청산 백운을 노니고  
나는 묵묵히 바라본다.

본당 부처님 말없이 미소 짓고  
추녀 끝 풍경 객을 맞이하고  
낭랑한 염불소리 깊어만 가고  
나는 묵묵히 듣는다.



# 수행修行의 의미意味

선광禪光 | 치문

참기 힘든 것을 참아야 하는  
그 진정한 뜻을 몸으로 실천하고자  
무더위와 더불어  
날마다 힘든 수행을 하는 도반道伴이여!

한 톨의 벼가 싹이 나서  
자연自然의 모진 역경을 받으며  
내면의 자아自我를 발견한다.  
자연自然의 이치를 깨달으며  
엄숙히 고개 숙여  
자아自我의 결실을 맺는다.

이 곳에 작은 샘을 만들어 놓으니  
표주박에 시원한 감로수를 담아  
버들잎 한 장을 사알짝 동동 띄워놓고  
평퍼짐한 돌에 걸터앉아  
잠시나마 갈증을 축이면서  
가슴 속 깊숙이 넣어 둔 초심初心을 끄집어내서 펴보기를.



## 비행기 타지 않고 인도 가는 법(티벳, 네팔 육로 경유)

편집실에서는 송광사강원에 재학 중인 홍진스님의 귀중한 성지순례 체험담을 바탕으로 하여 육로를 통한 중국 및 인도·동남아시아의 불교유적 및 성지에 대한 여행 정보를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호에서는 중국 및 인도에 관한 도보여행 정보이다

불교의 최대 성지인 인도까지 비행기로 간편하게 갈 수도 있겠으나 발로 걸어서 하나하나 부딪치며 직접 체험하고 느끼며 우리와 다른 환경의 가장 평범한 사람들과 서로 희로애락의 담소를 나누며 하는 기쁨이 여행에서 더욱 더 부처님의 '삼계개고三界皆苦 아당안지我當安之'의 필연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는 남북분단 이후 대륙 기질을 잃어 육로로의 국경이동에 전혀 감각이 없어졌다. 이런 취지로 실제 여행한 경로를 바탕으로, 같은 여행을 체험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 글을 쓴다.

-홍진 합장

### 1. 중국 청도靑島까지 배로

- 비자 : 중국대사관, 영사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서울 지역 여행사에서 대행함.  
승선 당일 받는 선상비자도 가능.  
(최소 출항시간 2시간 30분 이전에 매표시에 신청해야 함.)
- 청도에 도착해 바로 기차역으로 가서 정주로 가는 기차표 예매.
- 당일표가 없는 경우는 다음 날 표를 예매하고 숙소를 정한 뒤 청도를 관광함.

### 2. 정주鄭州

- 내륙 교통의 중심지, 소림사, 개봉, 낙양, 황하유람구를 가장 쉽게 여행할 수 있는 중간 기착지임. 정주 자체는 특별한 것 없음. 정주역 광장에서 매일 오전 7시 30분 경에 아래 각 방향으로 당일 저렴한 패키지여행 있음. 어느 곳이나 정주역 앞에서 마이크로버스로 2시간 소요.
- 낙양洛陽 : 삼국지의 주 무대가 된 도시이며 당대의 유명한 시인 이백李白, 두보杜甫, 백거이白居易 등이 이곳을 중심으로 작품 활동 전개.
- 용문석굴龍門石窟 : 돈황 막고굴, 대동 운강석굴과 함께 중국 3대 석굴의 하나로 꼽힘.
- 백마사白馬寺 : 중국 최초의 절로 후한 시대인 68년에 세워짐.
- 개봉開封 : 용정호수, 상국사, 포청천
- 소림사少林寺 : 보리달마의 선禪의 발상지

### 3. 서안西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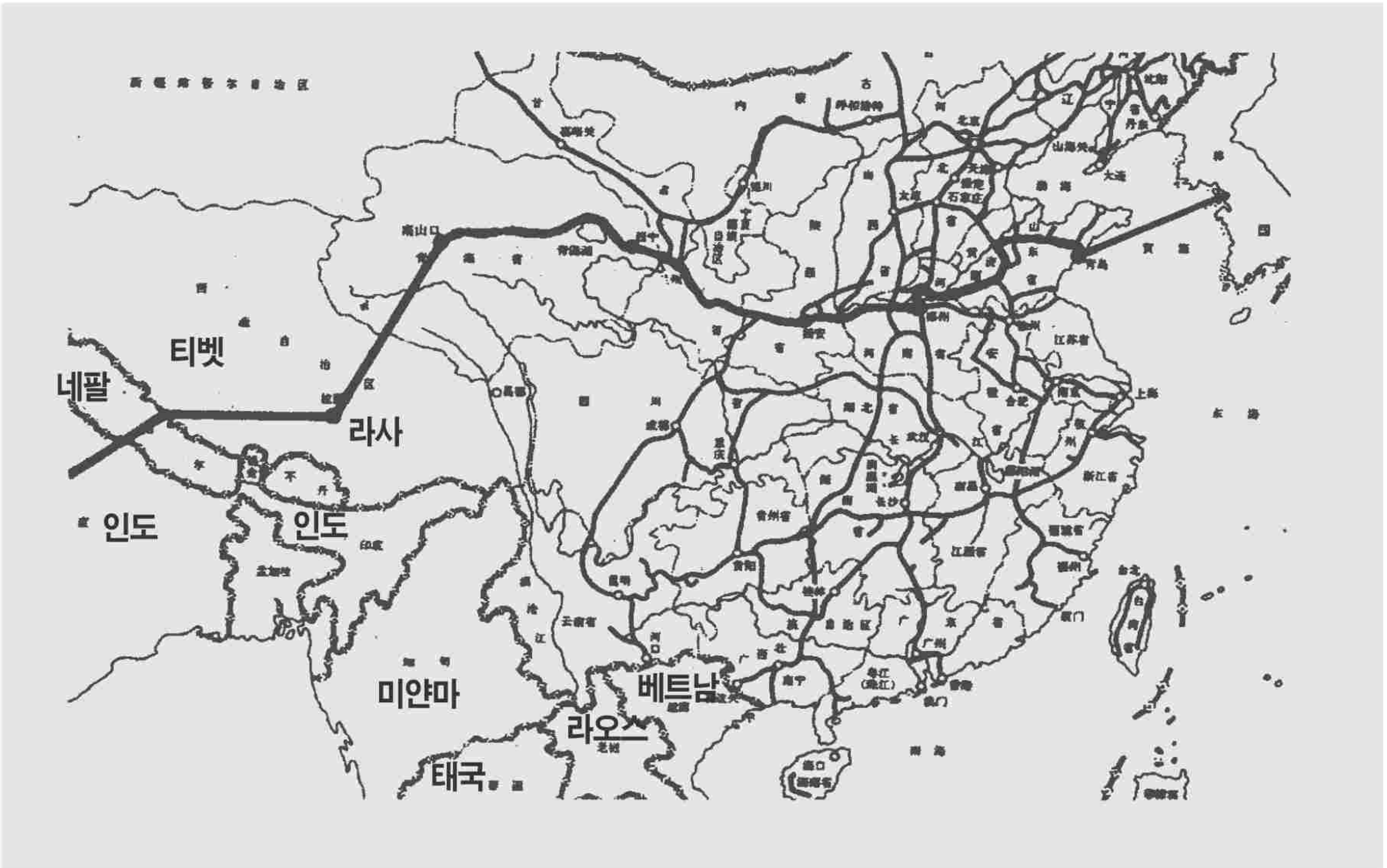
-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도시이며 현장스님, 의정스님, 진시황릉(병마용), 양귀비 유적으로 유명하다.



- 자은사慈恩寺 : 시 남쪽 4Km에 위치.
- (대안탑大 塔) : 당나라의 현장스님이 인도에서 가져 온 불경을 보관·번역하기 위해 652년에 세워진 곳, 인도여행과 관련된 유물이 전시되어 있음.
- 천복사薦福寺 : 서안성西安城 남문에서 3Km.
- (소안탑小 塔) : 인도여행을 하고 돌아 온 의정스님이 불경을 번역하던 곳.
- 숙소 : 해방반점解放飯店(카이팡 판디엔) 권장.

#### 4. 서녕西寧

- 서안에서 장거리버스로 이동. 이슬람교와 불교가 만나는 곳.
- 탑이사塔爾寺 : 서남쪽으로 25Km 황중현湟中縣 로사이魯沙爾에 있음. 1506년에 건립된 6대 라마사원의 하나로 라마교 황모파黃帽派의 창시자 종객파宗喀巴를 모신 절로 현재의 달라이 라마 14세도 이곳에서 한때 수학하였다.



#### 5. 라사

- 서녕에서 장거리 침대버스 이용. 2박 3일 소요. 해발 5천미터 이상을 지남.  
(고산병에 대비하여 유리 캡슐에 든 포도당액 및 약 구입)
- 포탈라궁 : 정부청사로 쓰였던 백궁과 사원으로 쓰였던 홍궁으로 나뉘어져 있음.
- 대조사(조강사원) : 오체투지하는 참배객들이 줄을 이음. 앞 광장에는 시장이 형성. 광장 끝에서 각 사찰로 출발하는 마이크로버스가 있음.
- 소조사 : 하루 종일 50여 명의 스님이 경을 읽는다. 옆에 앉아 명상하기에 좋음.



- 색랍사 : 6대 라마사찰의 하나로 뒷산 정상에서 일주일 2~3번 부정기적으로 오전 6시 30분 정도에 티벳 고유의 장례식인 조장鳥葬(천장天葬 - 시신을 갈라 포를 떠 살을 주먹밥처럼 뭉쳐 독수리에게 먹이는 장례)을 볼 수 있음.
- 일반적으로 티벳 내의 이동은 교통이 매우 불편하다. 공공버스가 다니는 지역도 한정되어 있다. 5명을 맞추어 같이 지프차를 운전사까지 포함하여 렌트하여 이동한다.
- 각 호텔 게시판에서 티벳 각 지역으로 가는 배낭족의 동행 모집 메모를 보고 합류하거나 자신이 직접 동행을 모집해 볼 것.
- 숙소 : 키이레호텔 권장(한국어 인터넷, 식당, 세탁 등의 편의시설)

## 6. 시가제

- 라사 시외버스 터미널(키이레호텔 옆)에서 오전 7시 출발, 6~8시간 소요.
- 타설훈포사 : 6대 사찰의 하나로 달라이 라마와 쌍벽을 이루는 판첸라마의 사원이다.
- 시가제 반점(시가제 호텔)에서 일주일 두 번 네팔 국경 쟁무(코다리)로 가는 버스 있음 : 본래 용도는 네팔 쪽에서 넘어오는 단체 여행객을 맞이하기 위해 라사에서 국경으로 돌아가는 버스임. 공공교통이 아니라 개인이 운행. 주 2회, 아침 6시 시가제호텔 출발. 국경까지 1박 2일(차주에게 직접 구입시 저렴, 호텔 경비원에게 구입시 수수료 요구)
- 시가제 호텔은 객실비가 비싸므로 주위의 다른 호텔 이용, 서양의 단체 여행객이 많음.  
(운이 있어 빈자리가 있으면 그들이 렌트한 쥘차나 버스에 끼여갈 수 있음)

## 7. 라제, 라체, 텅그리, 니알람, 쟁무

- 경로 도중에 히말라야 에베레스트를 볼 수 있음.
- 니알람에서 하룻밤 유숙 후 티벳 국경을 건넌.
- 버스 안에서 남은 중국 인민폐를 네팔 돈으로 환전.

## 8. 쟁무(중국 쪽 국경), 코다리(네팔 쪽 국경)

- 절벽을 거슬러 내려가는 코스로 히말라야의 만년설이 하류에서 녹아 청옥빛의 시내를 이루고 경치가 좋기 그지없음. 겨울에서 여름으로의 시간여행.
- 네팔 입국 Passport control 바로 전에 네팔 비자 발급소가 있음.
- 주의 : 국경 통과 시, 네팔 꼬마들이 와서 짐을 들어 주겠다고 할때 절대 건네주지 말 것. 짐을 들고 달아나 버림.
- 중국 국경과 네팔 국경 간은 산길로 난 지름길로 산책삼아 걸어내려 갈 것을 권유 3Km 정도.  
(밀도 높은 진한 공기를 숨쉴 수 있는 자유를 만끽.)
- 국경 간의 택시가 있으나 비포장도로는 물자를 실어 나르는 트럭으로 항상 정체되어 있음.

## 9. 카트만두

- 카트만두 인도 대사관에서 인도 비자 발급(일주일 소요).
- 당일 발급되는 경유 비자(15일 유효)는 개인 발급 불가 - 카트만두의 여행사 경유 발급.

## 10. 룸비니

- 룸비니 대성 석가사에서 머뭄.



## 11. 인도

- 팁 : 인천과 청도 간의 배에서 보따리 장사에게 화물 Tag 떼어주고 배값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음.
- 중국 여행은 철도가 닿는 곳이라면 어디나 기차의 딱딱한 침대칸(잉쭈오)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그러나 원하는 날짜의 표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가면 표가 있는 버스를 이용하는 편이 현명하다.
- 중국 내에서 장시간 기차 이용 시 역전의 상가에서 컵라면(팡피엔미엔), 광천수, 과일, 팔보죽(빠빠오쭈우), 기타 음식물 사들 것 - 기차 안은 비쌌.
- 각 도시의 호텔에서 자전거를싼 가격에 렌트해 줌. 도시를 천천히 돌아보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음.
- 외국인이 티벳으로의 출입은 사전에 티벳 여행 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함.(허가증 발급료는 비행기 요금에 상당) 그러나 실제로는 장거리 버스로 이동 가능.(동양인은 외모상 잘 구별이 가지 않으므로 무사히 검문소 통과)
- 티벳 자치구 안에서도 드문드문 검문을 받으나 여권을 보여주면 됨.(여행허가증 제시요구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나, 혹 제시요구를 받더라도 단체 여행에 참가해 들어와서 단체에서 떨어져 나와 개인여행 중이라 허가증은 가이드가 가지고 가버려 없다고 하면 됨.)
- 다른 경로 : 실크로드를 먼저 돌아보고 돈황敦煌(똤후앙)에서 격이목格爾木(꺼얼무 - 티벳 경계선에 인접한 도시)로 들어와 꺼얼무에서 랍살拉薩(라사)까지 차편을 이용할 수도 있으나, 꺼얼무에서는 외국인 티가 조금이라도 나면 승차권 구입이 불가함. 그러므로 조금 떨어진 란주蘭州나 서녕西寧에서 장거리 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음.

### ■ 인도에서 육로로 중국으로 되돌아오는 법

- 북인도 여행 후 파키스탄, 카슈가루를 통해 중국으로 입국, 이슬람 지역으로 실크로드를 거꾸로 거슬러 오는 경로로 여름에 특히 운치가 있음.

#### • 객십喀什(카스)

#### • 오노목제烏魯木齊(우루무치)

천산天山 - 중국의 록키산이라 일컬어짐. 싼 가격에 초원에서 말馬을 마음껏 달릴 수 있음.

#### • 토로번吐魯蕃(투루판)

중국에서 해발 고도가 가장 낮고 가장 더운 도시로 청포도가 유명.

고창고성高昌故城 : 현장삼장玄奘三藏이 인왕경仁王經을 강의한 곳. 서유기로 친숙한 삼장법사가 불교 경전을 구하러 인도에 가는 도중 이곳에 들러 국왕의 간청으로 인왕경을 강의 함.

#### • 돈황敦煌(똤황)

신라 혜초스님의 '왕오천축국전' 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실크로드의 관문.

모래사막과 막고굴로 유명.

실크로드 음악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배경이 된 도시로 실크로드 여행 경로 중의 하이라이트임.

류원柳園, 안서安西, 주천酒泉 중 한 군데에서 버스를 한 번 갈아 탐.

막고굴莫高窟 : 중국 3대 석굴의 하나. 수나라 때인 4세기 부터 약 천년에 걸쳐 만들어진 천여 개의 석굴로 천불동千佛洞이라고도 불림.



명사산鳴沙山 : 동서 40Km, 남북 20Km의 모래사막의 산이다. 북쪽 기슭의 듀에야추안 오아시스 호수를 끼고 바라보는 일몰은 실크로드 여행의 정수精髓이다.

가옥관嘉 關 : 만리장성이 서쪽으로 끝나는 곳, 북경 만리장성(팔달령)에 비해 인적이 거의 없고 인공적이지 않아 훨씬 운치가 있음.

이후의 여정은 기호에 따라 중국을 동쪽으로 이동, 다시 청도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도착.





# 수능엄경首楞嚴經 가운데 이십오원통二十五圓通 수행방편에 대해서

대정大定 | 사교

## 1. 서론

「대불정여래밀인수증요의제보살만행수능엄경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을 줄여 「수능엄경」 또는 「능엄경」이라 부르며 제목이 말하듯이 불교의 대소현밀大小顯密 모두 갖추고 있는 최고의 대장경으로 불리며, 중인도 「나란타사대도량경那蘭陀寺大道場經」 중에서 젊은 승려를 가르치기 위한 교재로 편찬했을 것이라고도 한다.<sup>1)</sup>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강원의 사교 이력과목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많은 수행방편을 설하고 있어 수행자에게 중요한 지침서이기도 하다. 이 글에서는 이십오원통二十五圓通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십오원통은 부처님께서 대보살과 대아라한들에게 최초로 말씀하여 십팔계를 깨달을 적에 어떤 원통을 얻었으며, 어떤 방편으로 삼매에 들었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답한 내용이다.

이십오원통의 사전적 의미는, 25종의 방편으로 원통을 증득한 것, 제법진여諸法眞如의 묘경妙境을 원만하게 통달하고, 원통무애한 심경心境 이르러 수능엄首楞嚴 선정을 얻은 것, 이 방법에 대하여 스물다섯 분의 대보살과 대아라한들께서 각각 증득한 것을 설한 법문이다.<sup>2)</sup>

참고로 이 글에서 스물다섯 분의 보살명호는 한글대장경 중 <수능엄경외>에서 사용한 표기를 따랐다.

## 2. 본론

이 이십오원통은 중생의 근기에 따른 수행법을 잘 설명한 수행법으로써 무엇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십오원통 중 25라는 숫자는 18계界(6근, 6식, 6경)와 7대大를 합한 숫자이며 어떤 인연으로 수행하고, 어떤 경계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어떤 대상이 가장 수승한 경계인지를 설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교진나 등 5비구는 성인聲因으로 깨달았으며, 우바니사타는 색인色因으로, 향업동자는 향인香因으로, 약왕·약상 두 보살은 미인味因으로, 발타바라는 촉인觸因으로, 마하가섭과 자금광비구니는 법인法因으로, 아나올다는 안근眼根으로, 주리반특가는 비근鼻根으로, 교범발제는 설근舌根으로, 필륜가바차는 신근身根으로, 수보리는 의근意根으로, 사리불은 안식眼識으로, 보현보살은 이식耳識으로, 손타라난타는 비식鼻息으로, 부루나미다라니지는 설식舌識으로, 우바리는 신식身識으로, 대목건련은 의식意識으로, 오추슬마는 화성火性으로, 지지보살은 지성地性으로, 월광동자는 수성水性으로, 유리광법왕자는 풍성風性으로, 허공장보살은 공성空性으로, 미륵보살은 식성識性으로, 대세지보살은 정념淨念으로, 관세음보살은 이근耳根으로 깨달음을 얻음을 말한다.

1) 운허, 한글대장경 수능엄경외, 동국역경원 p.7, 2002

2) 길상, 불교대사전, 흥법원, 2001.3



이십오원통二十五圓通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번호	菩薩/阿羅漢 名號	印可名(授記)	원통대상	분류	三摩地 方便
1	교진나 陣那와 오비구五比丘	阿若多 /	聲因	六境	妙音密圓
2	우파니사타優波尼沙陀	尼沙陀	色相因		妙色密圓
3	향엄동자香嚴童子	香嚴	香嚴因		妙香密圓
4	약왕 / 약상 藥王藥上二法王子	藥王 / 藥上	味因		因味覺明 位登菩薩
5	발타바라跋陀婆羅	跋陀婆羅	觸因		妙觸宣明
6	마하가섭摩訶迦葉과 자금광비구니 紫金光比丘尼	頭陀爲最 /	法因		空法
7	아나울다阿那律陀		眼根	五根	旋見循元
8	주리반특가周利槃特迦	成無學	鼻根		返息循空
9	교범발제 梵鉢提	登無學道	觀味		還味旋知
10	필름가바차畢陵伽婆蹉	發明無學	身根		純覺遺身
11	수보리須菩提	成無學, 解脫性空 我爲無上 (解空第一)	意根		旋法歸無
12	사리불舍利弗		眼識	六識	心見發光 光極知見
13	보현보살普賢菩薩		耳識		心聞發明 分別自在
14	손타라난타孫陀羅難陀	當得菩提	鼻識		息久發明 明圓滅漏
15	부루나미다라니자 富樓那彌多羅尼子	說法無上	舌識		降伏魔冤 消滅諸漏
16	우바리優波離	持戒修身 衆推無上	身識		執身 身得自在 次第執心 心得通達 然後身心 一切通利
17	대목건련大目 連	神通發明 推爲無上	意識		心光發宣 如澄濁流 久成清瑩
18	오추슬마烏芻瑟摩		火大	七大 地水火風空見識	生大寶焰 登無上覺
19	지지보살持地菩薩	當平心地 則世界地 一切皆平	地大		諦觀身界二塵 等無差別 本如來藏虛妄發塵 塵消智圓 成無上道
20	월광동자月光童子	童眞	水大		水性一味流通 得無生忍 圓滿菩提
21	유리광법왕자 瑠璃光法王子		風大		觀察風力無依 悟菩提心入三摩地 合十方佛 傳一妙心
22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		空大		觀察虛空無邊 入三摩地 妙力圓明
23	미륵보살彌勒菩薩	次補佛	識大		諦觀十方唯識 識心圓明 入圓成實 遠離依他及遍計執 得無生忍
24	대세지법왕자大勢至法王子		念佛三昧		都攝六根 淨念相繼 得三摩地
25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	觀世音	耳根	耳門 圓照三昧 緣心自在 因入流相 得三摩地 成就菩提	

참조 : 1) 표 내용의 보살님 명호차레는 <능엄경 계환해楞嚴經 戒環解>원문을 따랐다.

2) 보살님의 한글명호는 한글대장경, 원문은 <능엄경 계환해>를 기준으로 했다.

3) 보살님의 인가명 또는 수기명은 <능엄경 계환해>만을 참조로 했기 때문에 원문에 없는 경우 쓰지 않았고, 삼마지 방편역시 지면상 원문만 실었다.



### 3. 결론

이 이십오원통 가운데 특이한 점은 각각의 수행법이 우열도 없고 앞뒤의 차별도 없다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난에게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문수사리법왕자에게 어떤 수행이 그의 근기에 적당하며, 부처님 멸도 후 시방세계 중생들이 보살도에 들어 최상의 도를 구하려면 어떤 수행이 수승한 지 물어보셨다는 점이다. 물론 문수사리법왕자는 부처님의 위신을 받들어 계승으로 답하되 각각의 수행법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한 후, 이근耳根으로 수행하는 것이 다른 것보다 뛰어나며, “그 밖의 여러 가지 방편들은 모두 다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일에 당하여 진로塵勞를 버리게 함이요, 그 항상 닦아 배울 법이 되거나 얕고 깊은 근기들에게 일러줄 법이 아니옵니 다”<sup>3)</sup>라고 하셨다.

또한 문단 배치에서도 차별을 두어 이근원통을 제외한 방편은 권5에서 설한 반면에 이근원통은 권6에서 별도로 설하면서 이근을 통한 문수수聞思修 방편과 환幻과 같은 문훈문수聞熏聞修 금강삼매金剛三昧를 통한 삼십이응신三十二應身, 그리고 열네 가지의 무외공덕無畏功德과 함께 이근원통을 닦은 관세음보살의 명호만 지녀도 육십이의 항하사와 같은 여러 법왕자를 함께 부른 것과 같은 복덕이 있다고 하였다.<sup>4)</sup>

그리고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원통을 물으심에 관세음보살께서는 이문耳門을 원만히 관조하는 삼매로부터 반연하는 마음이 자유자재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에 드는 수행(인입류상因入流相)을 통해 삼매를 얻고 깨달음을 성취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답하셨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 하다 하겠다.

### 〈부록〉

능엄경을 공부하는 이를 위해 여러 스님의 도움을 받아 능엄경 관련 논문 또는 참고서 목록을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古書目錄】

- 1.楞嚴經私記 (朝鮮 有一)
- 2.楞嚴經私記 (朝鮮 義沾)
- 3.楞嚴經新科 (高麗 普幻)
- 4.首楞嚴經環解刪補記 二卷(高麗 普幻, 佛全 6冊)  
※ 佛全(韓國佛教全書) : 6冊  
大正藏(大正新修大藏經) : 19·39卷  
續藏經 : 16·17·18·19·20·21·22·23·24·25·88·89·90·91·95卷  
大日本 續藏經 : 14·15·16卷  
※ 達天 通理(淸)의 指掌疏 : 글자마다 어려운 부분을 모두 해석

### 【單行本目錄】

1. 諺解本「楞嚴經」(세조왕조 국역장경, 경서원)
2. 懸吐「楞嚴經」I II III (탄허스님, 교림)
- 3.楞嚴經 略解 上卷 (伽山智冠 스님, 해인사강원, 1994)

3) 원조각성 번역·강해楞嚴經正解(下), p.231~232, 현음사, 2002

4) 一歸스님, 譯註 首楞嚴經, p.398, 불일출판사, 1999



4. 佛敎의 哲理와 修行의 完成 (운허스님, 동국역경원, 1974)
5. 楞嚴經講話 I,II,III (운허스님, 동국역경원, 1993)
6. 首楞嚴經註解 (이운허스님, 동국대역경원, 1975)
7. 楞嚴經 (김두재, 민족사, 1994)
8. 譯註 首楞嚴經 (一歸스님 譯註, 불일출판사, 1999)
9. 楞嚴蛇足 (圓山스님, 통도사강원, 1992)
10. 正本 首楞嚴經環解刪補記 (대영문화사)
11. 楞嚴經 譯解 (홍창석, 불교통신대학)
12. 註解 首楞嚴經研讀 (한길로, 보련각, 1982)
13. 楞嚴經 研究 (김진열,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14. 都序/四教科 圖集 (峻秀스님, 승가대학원)
15. 楞嚴經 表解 (中華民國 白聖大師, 臺灣 南普陀佛學院)
16. 首楞嚴經 94 (운허, 수선출판사)
17. 한글대장경 首楞嚴經 外 (월운, 동국역경원, 1995)
18. 능엄경 1,2 (오진탁, 시공사, 2000)
19. 楞嚴經 (巨芾스님, 수덕사승가대학, 2000)

### 【論文目錄】

1. 普幻의 「楞嚴經」理解 - 「首楞嚴經環解刪補記」를 중심으로 -  
(월운스님, 가산 이지관스님 화갑기념논총 上 한국불교문화사상사)
2. 14世紀 高麗思想界의 楞嚴經 盛行과 그 思想的 性格 (조명제, 가산학보 제5호)
3. 楞嚴經을 통해서 살펴본 五濁 (중현스님, 동학사 승가대학)
4. 楞嚴經의 構造와 內容 (김진열, 능엄경 연구)
5. 楞嚴經 思想의 理解 - 사과·칠대에서의 여래장을 중심으로-(일혜스님, 수다라 제10호)
6. 楞嚴經의 七處徵心 (은광스님, 수다라 제11호)
7. 楞嚴法古提綱 (무애스님, 수다라 제11호)
8. 佛敎에 있어서 胎兒의 成長過程과 生命觀  
(보광스님, 송월주스님 화갑기념논총-보살사상)
9. 楞嚴經에 나타난 唯識思想 (지우스님, 수다라 제6호)
10. 대불정여래밀인수증류의제보상만행수능엄경분과 (해인사 강원)
11. 楞嚴經에 나타난 耳根圓通의 修行門 (보일스님, 「동학」지 통권 제59호-1999·7...)
12. 楞嚴經에 對한 小考 (진화스님, 수다라 제3호)
13. 楞嚴經에 對한 考察 (지형스님, 수다라 제4호)
14. 修行過程에서의 神呪의 公能 (지인스님, 수다라 제4호)
15. 楞嚴經에 나타난 修行方便 (성일·경성스님, 수다라 제2호)
16. 「楞嚴五十辨魔事에 관한 研究」(심연태, 불교통신대학 불교학논문집-이화문화사 1985)
17. 「楞嚴呪解義」(정태혁, 불교학보 제20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83)
18. 首楞嚴三昧와 楞嚴呪의 不異性 小考 (정태혁, 불교학보 제23집-동국대 불교문화연구소)
19. 楞嚴經의 韓國流通에 對한 研究 (崔成烈)
20. 高麗後期 戒環解의 盛行과 思想史的 意義 (蔡尙植)
21. 敦煌本『楞嚴經』研究 (法慧, 大正大學校大學院, 2003)

### 【기타 자료】

1. 「東鶴」지 連載 <쉽게 읽는 楞嚴經> (동학사 강원, 1997,1998,1999,2000)
2. 韓國佛敎 所依經典 研究 (이지관, 경서원, 1969)
3. 諸敎行相 (통도사 강원)



# 몽산법어蒙山法語(영역) 2

해안海眼 | 사교

蒙山和尚示覺圓上人

몽산화상蒙山和尚이 각원상인覺圓上인에게 보인다.

Master Mongsahn Instructs Venerable Gak Won.

원문)1. 參禪은 須透祖師關이요 妙悟는 要窮心路絶이니 祖關을 不透하고 心路가 不絶하면 盡是依<sup>1)</sup>草附木精靈이리라.

한역) 참선은 모름지기 조사관을 꿰뚫어야 하는 것이요, 묘하게 깨치는 것은 마음 길이 끊어져야 하나니, 조사관을 뚫지 못하고 마음길이 끊어지지 못하면 모두 풀에 의지하고 나무에 붙은 도깨비일 따름이리라.

영역) In investigating meditation, you must penetrate the Gate of the Patriarchs, to achieve enlightenment, you must cut off the road of the mind. If the Gate of the Patriarchs is not penetrated, and the road of the mind not severed, you are no more than a spirit living in the grasses or trees.

2. 僧 問趙州호대 狗子도 還有佛性也無니까 州가 云호대 無라하니 只者箇無字가 是宗門의 一關이니 有心으로도 透不得하며 無心으로도 透不得하리라.

승僧이 조주께 묻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니, 조주가 이르되 “무無”라 하니, 다못 이 무자無字는 종문宗門중의 한 관문關門이니 유심有心으로 뚫을 수가 없고 무심無心으로도 뚫을 수가 없으리라.

---

1) 의초부목依草附木: ① 여우나 너구리(狐狸)의 종류가 초목에 의지하여 변화하듯이 수행하는 이가 언어·문자에 구애되어 진여眞如의 본성本性에 바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 비유. ② 사람이 죽어 다음 생을 받지 못하고 중간에 영혼이 큰 나무나 풀 그늘에 머무르듯이, 수행하는 이가 이 몸에 일어나는 일분 번뇌를 끊었으나, 아직 범성凡聖·미오迷悟의 차별적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진실로 깨달은 경계에 들지 못함에 비유.



A monk asked Joju “Does even a dog have Buddha nature?” Joju replied “Mu!” (No). This word Mu is the one gate of this sect. It cannot be penetrated with mind or no-mind.

3. 惺惺靈利는 直下掀翻해야 捉敗趙州하거든 還我話頭來하라 若有一毫未하면 且居門外니라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이 바로 뒤집어 조주를 옴아 잡거든 내게 화두를 도로 가져오라. 만약 털끝만큼이라도 있으면 문밖에 있느니라.

If you are sharp and clear, you will turn the tables, and defeat Joju on the spot. Bring your hwadu back to me, but if there's as much as a hair's breadth remaining, you're still outside the Gate.

4. 覺圓上座는 覺也未아 妙覺이 圓明할진대 當識趙州是何面目호리라 道箇無字意는 作 生고 蠢動含靈이 皆有佛性이어늘 趙州는 因甚道無오 畢竟에 者箇無字가 落在甚處오

각원상좌는 깨달았느냐, 못 깨달았느냐? 묘한 깨달음이 원만히 밝을진대 마땅히 조주는 이 무슨 면목인가를 알아야 하리라. 이 무자無字를 이룬 뜻은 무엇인고? “꿈적거리는 것이 다 불성이 있다.”고 했는데 조주는 어째서 “무無”라고 했는고? 필경에 이 무자無字의 뜻이 어디에 있는고?

Venerable Gak Won, have you awakened? If you wish for complete and clear enlightenment, you must know Joju's original face. What was the reason he said Mu? All sentient beings are endowed with the Buddha nature, so why did he say Mu? What is the meaning behind this word Mu?

5. 本覺이 未明커든 一一有疑호리니 大疑하면 則有大悟하리라 ° 不得將心待悟하며 又不得以意求悟하며 不得作有無會하며 不得作虛無會하며 不得作鐵<sup>2)</sup>掃帚用하며 不得作繫<sup>3)</sup>驢橛用이리

본각本覺을 밝히지 못했으면 낱낱이 의심이 있으리니, 크게 의심하면 곧 큰 깨달음이 있으리라. 문득 마음을 가져 깨달음을 기다리지 말며, 또 뜻으로써 깨달음을 구하지 말며 ‘유有다, 무無다’ 하는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비어 없다’는 알음알이를 짓지 말며, ‘쇠로 만든 비’라는 생각을 하지 말며, ‘나귀 매는 말뚝’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지니라.

If you have not clarified (the place of) original awareness, everything will become doubt,

---

2) 철소추鐵掃帚: 쇠로 만든 비. 화두를 모든 생각·분별·견해 등을 쓸어내 버리는 비에 비유한 것.

3) 계려궤繫驢橛: 나귀를 매는 말뚝. 화두를 마치 나귀에 말뚝을 붙들어 매듯이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는 방편으로 삼는 것에 비유.



and if there is great doubt, then there will be great enlightenment. However don't wait consciously for enlightenment, and don't seek after enlightenment. Don't think in terms of yes and no, or of nothingness. Don't think of the hwadu as a steel broom or as a post to tether a goat.

6. 宗教疑團이 日盛케하야 於二六時中四威儀內에 單單提箇無字하야 密密廻光自看호리라 看來看去하며 疑來疑去하야 百無滋味時에 有些滋味하리니 • 不可生煩惱니라

의단으로 하여금 나날이 치성케 하야 이룩시중과 사위의내에 다만다만 이무자를 잡드려서 밀밀히 심광心光을 돌이켜 스스로 불지니라. 보아 오고 보아 가며 의심해 오고 의심해 가서 도무지 자미滋味없는 때에 조금 자미가 있으리니 문득 번뇌심을 내지 말지니라.

As you were taught, nourish the ball of doubt daily, and twenty four hours a day, in the four postures only keep this word Mu. Subtly turn the light of your mind around and investigate yourself. Watch and watch, doubt and doubt, and when the doubt is tasteless, if the slightest taste should arise, don't give rise to the defilements.

7. 疑得重하면 話頭를 不提하여도 自然現前하리니 • 不得懼喜니라 濃淡을 任他하고 直如老鼠咬棺材하야 只管提箇無字看호리라

의심이 깊어지면 화두를 들지 아니해도 자연히 현전하리니, 문득 환희심을 내지 말지니라. 잘되든 안 되든 내버려 두고 바로 늙은 쥐가 관재棺材를 쓸 듯 다만 무자無字를 거각하여 보아라.

As the doubt deepens, even though you don't arouse the hwadu, it will naturally appear before you. However you must not give rise to joy. Put aside thoughts of whether practice is going well or badly, just be like an old rat gnawing on a coffin, only arouse and investigate this word Mu.

8. 若於坐中에 得妙定力資하야든 正好提니 但不用着力이 爲妙하리라 若着力提하면 則解散定境하리라.

만약 앓은 가운데 미묘한 정력定力 도움을 얻거든 바로 잘 잡드릴지니, 다만 억지로 용을 쓰지 않는 것이 묘함이 되니라. 만약 용을 써서 화두를 들게 되면 정정의 경계가 흩어지리라.

If while you are sitting, you acquire the assistance of wondrous samadhi strength, you should keep the hwadu correctly and skillfully. Avoiding using force in keeping the hwadu is the key, if you strain to keep the hwadu, the state of concentration will become scattered



9. 能善用心하여 忽然入得定時에 ° 不可貪定하고 而忘話頭이니라 若忘° 話頭하면 則落空去하여 無有妙悟하리라 起定時에도 亦要保護定力호리니 於動靜中에 一如하여 昏沈과 掉擧가 悉絶하여도 亦莫生 懼喜心이이다

능히 마음을 잘 써서 홀연히 정定에 들게 될 때에는 정을 탐하여 화두를 잊지 말지니라. 만약 화두를 잊어버리면 공空에 떨어져서 묘하게 깨치지 못하리라. 정에서 일어날 때에도 또한 정력을 보호할지니, 움직이거나 가만히 있거나 한결같이 혼침과 잡념이 다 끊어져도 또한 기쁜 마음을 내지 말지이다.

If you use your mind skillfully, you will suddenly enter samadhi. At this time however, you must not give rise to greed for deeper concentration and forget the hwadu. if you forget the hwadu, you will fall into emptiness and not able to awaken. When you get up from meditation, you must protect your samadhi, and maintain oneness in movement and in stillness. Even if dullness and scattering are completely cut off, do not give rise to joy.

10. 忽然因<sup>4)</sup> 地一聲에 透過趙州關已하여 一下<sup>5)</sup> 語諦<sup>6)</sup> 當하여 箭<sup>7)</sup> 箭 鋒하면 勘破趙州의 得人憎處하여 法法을 圓通하여 差<sup>8)</sup> 別機緣을 一一明了하리니 正要求悟<sup>9)</sup> 後生涯호리라.

문득 “아!” 한 소리에 조주의 관문을 투과透過하여 이르는 말마다 바로 맞아서 화살과 화살의 축이 맞부딪치듯 하면, 조주의 사람에게 미움 받은 곳을 감파勘破하여 법마다 원만히 통달하여 차별된 기연機緣을 낱낱이 밝게 요달 할 것이니, 정히 반드시 깨달은 뒤의 생애를 구하여야 하리라.

Suddenly, aha! You have penetrated Joju's Gate, and clearly perceive all the ancient kongans. Like the clashing of arrowheads braced in combat (when you go to meet the master), you grasp the spot where Joju incurred the hatred of men, all dharmas are completely penetrated, and all differences, potentials and conditions will be vividly clear. You must at this time skillfully pursue the work of cultivation after enlightenment.

4) “와” “ㄸ” : 배를 끄는 소리. 힘을 쓸 때에 크게 내는 소리. 물건을 잃었다가 갑자기 찾았을 때에 얼떨결에 내는 소리. 저절로 나오는 소리. 와지일성<sup>4)</sup> 地一聲·와지 일하<sup>4)</sup> 地一下 등이 그것.

5) 하어下語 : 고칙공안古則公案 또는 송고<sup>5)</sup> 頌古·수시<sup>5)</sup> 垂示·상당<sup>5)</sup> 上堂 등의 법어에 대해서 자기의 견해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르는 말.

6) 체당<sup>6)</sup> 諦當 : 사물의 도리를 밝게 안다는 뜻.

7) 전전주봉<sup>7)</sup> 箭箭 ~ > : 전봉상주<sup>7)</sup> 箭相 ~라고도 하는데 화살과 화살이 서로 맞부딪치는 것과 같다는 말. 스승과 제자와의 의기<sup>7)</sup> 意氣가 딱 맞아 조금도 틈이 없는 것. 또는 물음과 대답이 척척 들어맞는다는 말.

8) 차별기연<sup>8)</sup> 差別機緣 : ①중생이 발심하여 구경의 깨달음에 이를 때까지 모든 불·보살이 그 근기<sup>8)</sup> 根機와 단계에 따라 가지 가지 방편을 써서 중생에게 작용하는 것. ②선종에서는 종사가 학자의 근기와 인연에 따라 베푸는 수단으로, 고금<sup>8)</sup> 古今 불조의 언교<sup>8)</sup> 言教·기연<sup>8)</sup> 機緣·공안 등을 말함.

9) 오후생애<sup>9)</sup> 悟後生涯 : 깨달은 뒤에 선지식을 찾아 인가를 받고, 다시 숲속이나 토굴에 들어가 다생<sup>9)</sup> 多生의 습기<sup>9)</sup> 習氣를 제하고 도<sup>9)</sup> 道의 역량을 키우는 보임<sup>9)</sup> 保任 공부.



11. 若不然하면 如何得成法器하리오 宜觀先聖標格이언정 切忌杜撰<sup>10)</sup>이니 會 아

만약 그렇지 못하면 어찌 법 그릇을 이루리오? 마땅히 옛 성인들의 본보기를 잘 살필지언정 결코 두찬杜撰을 말지니라. 알겠느냐?

If you are not like this, how can you become a vessel of the Dharma? Closely observe the model of the ancient sages, and avoid inconsistencies. Do you understand.

※해안스님의 몽산법어(영역) 원문은 선학간행회 역 <몽산법어, 용화선원, 1978>에서 발췌하였습니다.

---

10) 두찬杜撰: 원래 두가杜家의 찬집撰集이라는 뜻으로 저술에 전거典據·출처出處가 확실치 않은 문자를 쓰거나 오류가 많아 그 내용이 실다옴지 못한 글을 이룸.



화보로 보는 강원소식

- ▶ 강원, 율원스님들이 그 동안 흘리신 땀방울이 졸업식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 다른 분발과 출발을 위해 장학금 전달식도 있었습니다.
- ▶ 승가의 화합과 수행자의 참 자유, 수행자가 가야할 길 등에 대한 틱낫한스님의 강연이 있었습니다.
- ▶ 진흙 속에 두 발을 걷고 한 마음 한 마음 연꽃을 심었습니다. 더위 속에 한 송이, 한 송이 봉오리로 피어날 날을 숨죽여 기다립니다.
- ▶ 지난해 겨울 시작된 해청당 보수공사의 막바지 기와운력이 있었습니다.
- ▶ 제783회 불일보조국사 종재, 보살계 수계산림, 삼대증명화상 탕화 점안, 가사불사 회향 등의 삼월불사를 석가모니불 정근으로 출가, 재가신도들이 하나가 되어 간절히 불국토를 기원했습니다.
- ▶ 시원스레 쭉쭉 뻗은 대나무를 키 높이로 잘라 엮으니 어느새 하나의 천연 작품이 되었습니다.
- ▶ 전 방장스님이신 일각 대선사 추모제가 대웅보전에서 모든 대중들의 엄숙함 속에서 거행되었습니다.
- ▶ 승가가 하나로 엮혀져 서로를 키우듯, 땅 속 감자도 서로 엮혀 살찐 황토 빛 몸을 수줍게 들어내었습니다.
- ▶ 오랜 동안 불교의식을 연구해 온 정각스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라니의 명쾌한 해석은 물음표로 막힌 가슴을 후련하게 했습니다.
- ▶ 학인스님들이 반결재 산행으로 대흥사, 미황사의 고개 길을 넘으며, 오래간만에 깊이 한 호흡하였습니다.
- ▶ 대교반 스님들의 생활공간인 해청당 큰방에 새롭게 부처님을 모셨습니다.



2003년 2월 9일 지장기도 입제



2월 14일 강원, 율원 졸업식 및 장학금 수여식



3월 23일 틱낫한스님 특강





4월 5일  
연꽃심기



4월 9일 해청당 기와운력



4월 27~28일 삼월 불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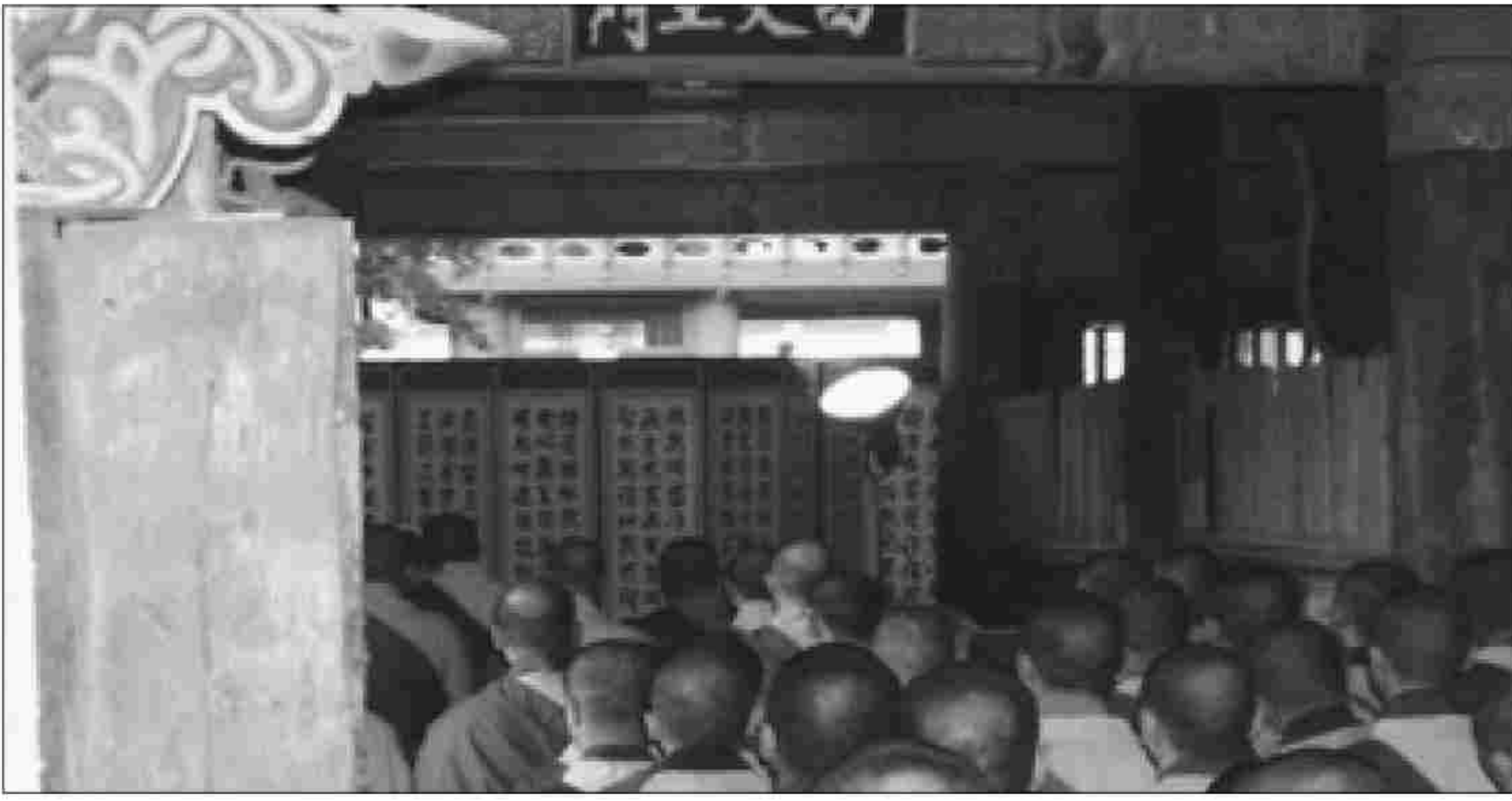


5월 15일 계미년 하안거 결재 법문



5월 22일 대나무 울타리 운력





6월 5일  
사천왕재



6월 7일 일각대선사 추모제



6월 9일 발치기 운력



6월 21일  
쌍계사 학인과 친선 축구운력



6월 29일 감자 운력



7월 2~3일 정각스님 특강(불교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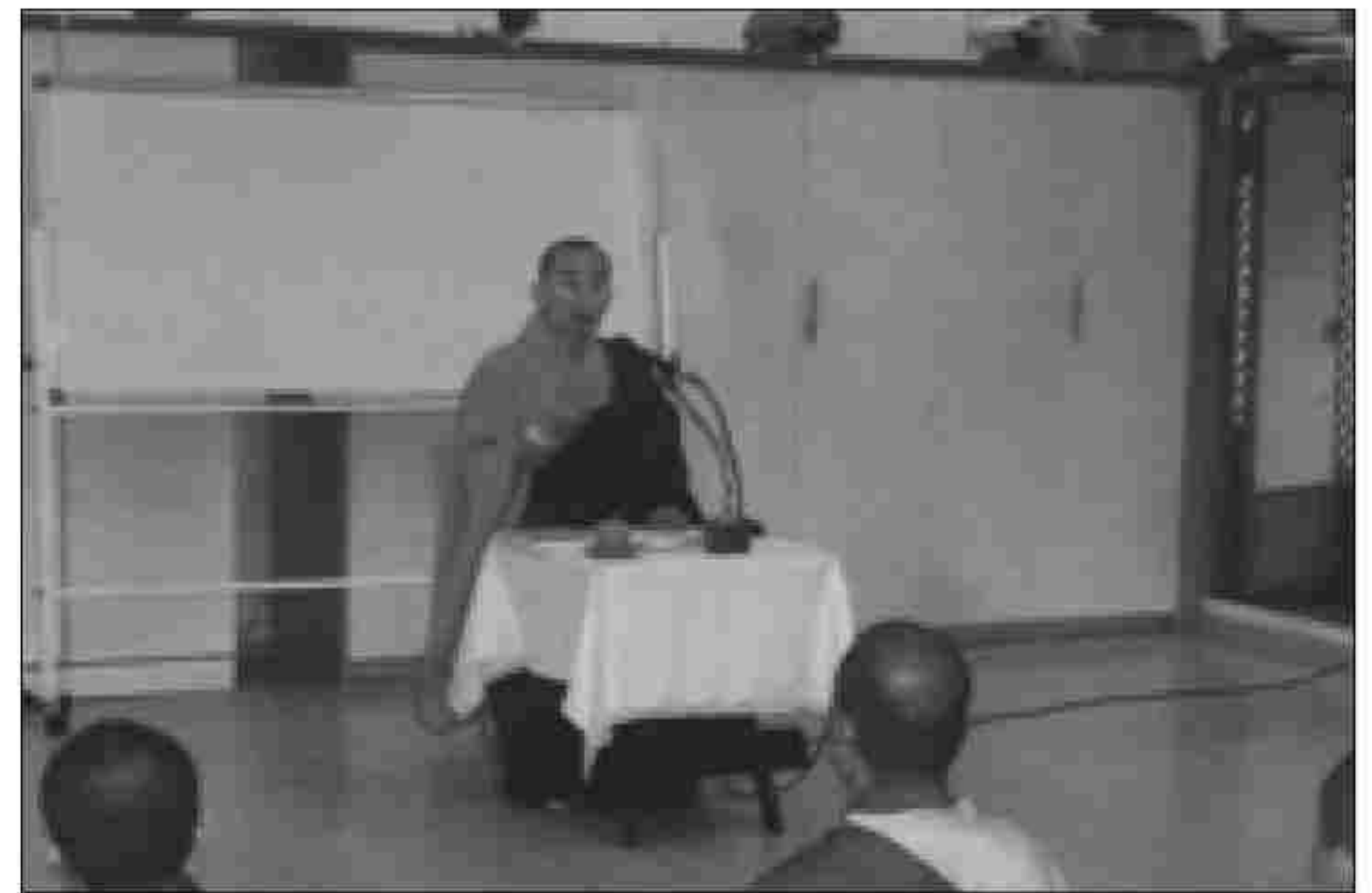




7월 5일  
반결재 원족산행



7월 11일~ 12일 전승련 승가학술대회



7월 25일 원경스님 특강(간화선)



7월 27일  
해청당 부처님 점안식



8월 1일~3일 송광사 어린이여름불교학교



---

## 소년소녀가장 후원 안내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더러움에 물들지 않듯, 가난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해맑은 웃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어린 가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고마운 마음들이 살아 숨쉬고 있고, 이 세상은 함께 부둥켜안고  
살 가치가 있음을 그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들이 모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송광사 강원에서는  
꾸뚝하게 살아가는 소년소녀가장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뜻있는 분들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립니다.

우체국 온라인: 503490-01-001097 예금주: 소년소녀(황소연)  
농협 온라인: 810-02-120594 예금주: 박채균  
연락처: (우) 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강원 혜광스님 061)755-5302

---

## 강의(특강) 테잎 보급

송광사에서는 특별 강의 테잎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습니다.  
강사 스님들의 명강의를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 카세트 테잎

지운스님 · 법화경 1~2 33개 | 50,000원  
정연스님 · 인도철학 18개 | 25,000원  
정화스님 · 유식 30송 11개 | 25,000원  
정화스님 · 중론中論 23개 | 30,000원  
혜거스님 · 도덕경 16개 | 23,000원  
고우스님 · 선요禪要 25개 | 30,000원

구입처: 송광사 강원 지장 ☎061)755-5302(전화주문 받습니다.)  
우체국 온라인: 501676-01-000689 송광사 지장

테잎 판매 이익금은 불법홍포佛法弘布에 쓰입니다.

---



## 신간 안내

# 心卽是頌

마음 그대로가 계송이라

달이 은하수를 오가며 점점 둥글어져  
은은한 달빛 삼천대천세계를 비추네  
원숭이들 팔 이어 호수에 비친 달 잡으려하나  
고류은 본래 푸른 하늘을 떠나지 않았네  
- 본문 중에서 -



조계총림 승보종찰 송광사 전통강원 강사스님들이 뜻을 내고  
강사스님들과 학인스님들이 평소 애송하는 계송들을 모아서 공부하는 중에  
삼보를 찬탄하는 계송별로 편집하였습니다.

산하대지 천지만물이 모두 제각각의 방식으로 진리를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 삼보의 공덕을 찬탄하는 계송이 으뜸이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이것을 공부 방편으로 삼아서 수행해 간다면 문자를 통해 문자 이전의 경계를 맞볼 날 있겠지요.

어느 것인들 공부를 지어가는 좋은 수단이 아니리요만 경전 속에 담겨있는 계송들과  
조사들의 해탈가를 벗 삼아 손바닥과 주머니 속에 좋은 선지식으로 항상 모시고  
깨침의 길로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지이다.

아무쪼록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번역)을 시비하지 마시고  
이 인연으로 모든 유정들이 참된 도에서 물러나지 않고 마침내 무상정등정각을 이루어 지이다.

불기 2547년 하안거 성만을 즈음하여

구입하실 분은 조계총림 송광사 불일서점(☎061-755-53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강원 후원내역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원 후원금

송광사 유나, 율주, 율원장스님·부산 관음사·대구 관음사·대한불교관음종·개천사 보화스님·광주 무각사·서울 길상사·송광사강원총동문화·양종숙님·박정란님

### 대중 보시 하셨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스님·대한불교관음종·운문사·법련사·경북 송림사·불국사 강원 입승스님·부산 문수사·통영 미래사·광주 증심사·조계사 신도회·법혜심님·박 정련화님

### 대중공양 동참하셨습니다

부산 관음사 신도일동·하남 광덕사 신도일동·음성 광명선원 신도일동·송림사 신도일동·부산 문수사·파계사 진옥스님·광주 증심사·고성 계승사·광주 원각사 신도일동·법화사 신도일동·조계사 신도회·개천사 신도일동·축서사·고흥 금탑사·정각스님·운문암 해중스님·창원 강원후원회·송사모·진해 해군불자회·수보리님·비로행님·선혜월님·반야행님·최 범왕자님·묘은지님·조영숙님·303기무대장·이종학님·조희자님·문필녀님·묘은지님·김동욱님·양혜윤님

### 「정혜사」지 후원 감사합니다

송광사 율원장스님(디지털 카메라 보시)·이영숙님·김현정님·곽미숙님·조선희님·류인석님·한인희님·조영숙님·김승우님·이복향님·김갑숙님·백의숙님·신증녀님·강경희님

### 바로잡습니다

26호 사진속 이야기(p2)의 ㄹ은 莫이고 終은 冬입니다.  
특별취재 동문명단(p41)의 12회 正山은 定山입니다.

## 후원 안내

「정혜사」지 발간에 도움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체국 : 500660-01-001029

예금주 : 송광사 정혜사

주소 변경이나 정기구독(무료)을 원하시는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 : (우)540-930

전남 순천시 송광면 신평리 12

송광사 강원 「정혜사」 편집실

전화 : 061)755-5302

## 편집후기

응향각凝香閣 한 권에 딸린  
조그마한 보금자리...  
스님들의 소박한 마음과  
마주했던 시간들...  
어느덧 인연의 마침표를  
가슴 속에 아로 새기며...  
다시 모일 새로운 인연들.  
거듭나기를  
더 알찬 모습으로.  
말없이 함께 해준  
편집실 스님들께 감사드린다.



## 계미년 하안거 송광사 결재대중



대중大衆에게 권勸하노니  
공부工夫한다는 상相을 가지고  
공부工夫하지 말라.  
공부工夫는 점점 멀어지고 마魔가 나타나서  
공부工夫를 방해妨害할 것이다.  
- 방장스님 법어 中 -



# 應真堂



소승위小乘位 거이 수료修了 일급성위一級聖位 진급進級인데  
삼승사과三乘四果 성취成就되야 대승과위大乘果位 진입進入장고  
어쨌다 독선이사獨善利已에 머물러만 계신고.

- 「인암시조선」 송광사 순례시조 가운데서 -

**응진전** 응진전應真殿은 나한전羅漢殿이라고도 하며, 부처님의 제자인 16나한 또는 500나한을 모신 전각殿閣이다. 송광사松廣寺 응진전應真殿은 1623년 중건重建 되었으며 영험靈驗있기로 정평定評이 난 숨은 기도도량이다.